

# 第40回 韓日經濟人會議

## THE 40TH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08. 5. 15~16 URAYASU, JAPAN

### 報 告 書



社團  
法人

韓日經濟協會



# 第40回 韓日經濟人會議

THE 40TH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08. 5. 15~16 URAYASU, JAPAN

## 報 告 書



社團  
法人

韓日經濟協會



✧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단장단 예방 (후쿠다 총리 & 고무라 외무대신)



회의장(쉐라톤그랜드도쿄베이호텔) 전경



개회식 전경



개회인사하는 조석래 단장과 이이지마 단장



사회자 다케자와 전무



축사자 권철현 주일한국대사, 시게이에 주한일본대사, 키무라 외무부대신, 나카토미 경산성 대신관방심의관, 도모토 치바현 지사



공로상을 수상하고 인사하는 세토 명예회장과 김상하 명예회장



기념강연 하고 있는 이회범 고문과 니시무로 일본경단련 평의회 의장

경과보고자 허남정 전무와 아소 체어맨

## ✧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양국 공동주최 리셉션



입례하는 양국 단장부부



사회자 아끼야마 상무



축하공연



지역 내빈인사



건배하는 양국 단장



환담하는 양국단장 부인



내빈과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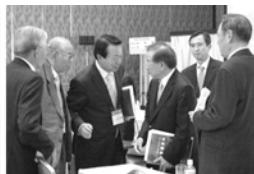
SESSION I : 요네쿠라 좌장과 발표자 요네쿠라 사장, 쓰게 학장, 이희국 사장, 나경환 원장



SESSION II : 이타미 좌장과 발표자 노조에 교수, 무라카미 사장, 임천석 교수, 금병주 사장, 장석춘 위원장



공동성명 채택



폐회후 단원들과 인사하는 단장



양국단장 기자회견 모습



매스컴 포토타임



공동성명 심의하는 단장단



양국재단 연락협의회



카와무라기념미술관을 견학하고 있는 양국부인들

# - 目 次 -

I. 團長團 禮訪活動 .....	3
II. 共同聲明 .....	5
III. 日 程 .....	8
IV. 議 題 .....	12
V. 兩側 代表團 名單 .....	13
1. 韓國側 代表團 名單 .....	13
2. 日本側 代表團 名單 .....	20
VI. 議 事 錄 .....	31
1. 開 會 式 .....	31
(1) 團長人事	
飯島 英胤(IIJIMA Hidetane) 團長 .....	32
趙 錫 來 團長 .....	34
(2) 40回 記念 兩國頂上 祝賀 메시지	
福田 康夫(FUKUDA Yasuo) 內閣總理大臣	
[代讀：重家 俊範(SHIGEIE Toshinori) 駐韓日本國特命全權大使] .....	36
李明博 大統領 [代讀：權 哲 賢 駐日大韓民國特命全權大使] .....	37
(3) 來賓祝辭	
木村 仁(KIMURA Hitoshi) 外務省 外務副大臣 .....	38
中富 道隆(NAKATOMI Michitaka) 經濟產業省大臣官房審議官 .....	39
堂本 曉子(DOMOTO Akiko) 千葉縣 知事 .....	40
權 哲 賢 駐日大韓民國特命全權大使 .....	41
(4) 特別功勞賞・感謝狀 施賞 및 人事	
瀨戶 雄三(SETO Yuzo) (社)日韓經濟協會 名譽會長 .....	44
金 相 廈 (社)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	45
2. 記念講演 .....	46
(1) 日本側 記念講演	
西室 泰三(NISIMURO Taizou) (社)日本經団連 評議員會 議長 .....	47
(2) 韓國側 記念講演	
李 熙 範 (社)韓國貿易協會 會長 .....	54
3. 經過報告 .....	60
(1) 韓日新產業貿易會議 報告	
麻生 泰(ASO Yutaka) 麻生라파즈시멘트(株) 社長 .....	60
許 南 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	63

(2) 一般經過報告 (協會活動) .....	66
4. SESSION I .....	68
(1) 座長 人事 米倉 誠一郎(YONEKURA Seichiro) 一橋大學 이노베이션연구센터 教授 .....	69
(2) 日本側 發表 ① 米倉 弘昌(YONEKURA Hiromasa) 住友化學(株) 社長 .....	70
② 柘植 綾夫(THUGE Ayao) 芝浦工業大學 學長 .....	72
(3) 韓國側 發表 ① 李 熙 國 (株)SILTRON 代表理事 社長 .....	76
② 羅 璟 煥 韓國生產技術研究院 院長 .....	80
(4) 質疑應答 및 自由討論 .....	82
(5) 座長 總括 .....	99
5. SESSION II .....	100
(1) 座長 人事 伊丹 敬之(ITAMI Hiroyuki) 東京理科大学大学院 教授 .....	101
(2) 日本側 發表 ① 野副 伸一(NOZOE Shinichi) 亞細亞大學아시아研究所 教授 .....	102
② 村上 雅章(MURAKAMI Masaaki) 韓國三井物産(株) 代表理事 社長 .....	105
(3) 韓國側 發表 ① 任 千 錫 建國大學校 商經大學 貿易學科 教授 .....	107
② 琴 秉 周 (株)WOOSUNG I&C 社長 .....	110
③ 張 錫 春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委員長 .....	113
(4) 質疑應答 및 自由討論 .....	114
(5) 座長 總括 .....	125
6. 閉 會 式 .....	126
(1) 共同聲明 採擇 .....	126
(2) 團長人事 趙 錫 來 團長 .....	127
飯島 英胤(IIJIMA Hidetane) 團長 .....	128
(3) 閉會 .....	128
VII. 兩國團長 共同記者會見 .....	131
<附錄 1> 프레젠테이션 資料 .....	137
<附錄 2> 報道資料·新聞記事 .....	181



## I. 團長團 禮訪活動

한국과 일본 경제인의 교류행사인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가 5월 15일, 1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300여명의 양국 주요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지바현 우라야스시에서 개최되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기업,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양국 경제의 협력관계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서 1969년 '한일·일한민간합동경제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발족되었다.

한편, 관례에 의거 방문국측 단장단 (단장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전경련, 효성 회장) 일행은 5월 14일 회의가 개최되기 전날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내각부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하여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경제산업성 경제산업대신, 고무라 마사히코(高村 正彦) 외무성 외무대신을 예방했으며, 5월 15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재무성 재무대신을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후쿠다 총리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올해로 40회를 맞은 것을 축하하며, 지금까지 매년 빠짐없이 동 회의를 개최해온 양국 경제계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으며,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신시대' 구축을 위한 양국 경제계의 협력은 물론 양국 경제관계의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EPA(한일경제연계협정)를 위해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조석래 단장은 한국 국민은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미 FTA를 추진해보니 국가이익과 국민여론과 정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한일 FTA는 한미 FTA의 경험을 살려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며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대되는 한일무역적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많아 원활한 한일FTA 협상의 재개와 체결을 위한 환경정비에 일본정부의 강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리고 6월부터 시작되는 교섭재개 검토를 위한 정부간 실무협회의 재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경제인들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무라 외무대신은 '한일 신시대'는 경제계의 양 어깨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한일 FTA/EPA 추진을 위한 양국 경제계의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측 대표단은 경제계에서도 '한일 신시대'를 향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양국 정상의 BSR개최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양국 경제교류가 증진되고 우호협력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한일간 협력무드를 잘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밖의 예방활동을 통해 원화강세, 원자재, 유가 상승 등의 영향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에너지 효율 등에 있어 앞선 일본의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얻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유학생 30만명 계획 책정 시 한국 학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1. 禮訪 實績

가.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내각부 내각총리대신

- 일 시 : 2008. 5. 14(수) 14:00~14:30
- 장 소 : 수상관저 접견실
- 예방인사 : 조석래 단장 등 한국측 단장단 10명  
※ 배석 : 권철현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김경수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상무관)

나.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경제산업성 경제산업대신

- 일 시 : 2008. 5. 14(수) 15:30~16:00
- 장 소 : 경제산업성 11층 大臣실
- 예방인사 : 조석래 단장 등 한국측 단장단 10명  
※ 배석 : 김경수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상무관)  
(이하 동일)

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 正彦) 외무성 외무대신

- 일 시 : 2008. 5. 14(수) 17:30~17:50
- 장 소 : 외무성 11층
- 예방인사 : 조석래 단장 등 한국측 단장단 10명

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재무성 재무대신

- 일 시 : 2008. 5. 15(목) 09:30~10:00
- 장 소 : 재무성 2층
- 예방인사 : 조석래 단장 등 한국측 단장단 10명

## 2. 禮訪人事 名單

NO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1	團 長	趙 錫 來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株)曉星 會長
2	顧 問	李 熙 範	(社)韓國貿易協會 會長 ※14일 예방
3	副 團 長	具 本 俊	(株)LG商事 副會長
4	副 團 長	金 熙 勇	東洋物産企業(株) 會長
5	副 團 長	羅 應 燦	新韓金融持株會社 會長
6	副 團 長	徐 敏 錫	東一紡織(株) 會長
7	副 團 長	薛 元 鳳	大韓製糖(株) 會長
8	副 團 長	禹 石 亨	(株)SINDORICOH 會長
9	副 團 長	崔 用 權	三煥企業(株) 會長
10	團 員	許 南 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案內	飯島 秀胤(IIJIMA Hidetane)		(社)日韓經濟協會 會長/東レ(株) 特別顧問
	瀬戸 雄三(SETO Yuzo)		(社)日韓經濟協會 名譽會長/アサヒビール(株) 相談役
	武澤 泰(TAKEZAWA Tai)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 Ⅱ. 共 同 聲 明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08년 5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일본국 치바현 우라야스시(千葉縣浦安市)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조석래 단장 등 136명, 일본 측에서는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英胤) 단장 등 164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1.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 관한 보고·제안 및 한일 양협회의 일반 활동 보고는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2. 제40회 경제인회의를 기념하여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및 일본국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총리대신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또한 양국 내빈으로부터 축사가 있었다. 기념강연에서는 한일 경제인에 의한 무역, 투자 등의 경제제휴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과 한일FTA/EPA 교섭 재개·체결에 대한 기대가 표명되었다.
3. 전체회의 제1세션에서는 「한일 기술경쟁력강화와 경제제휴」, 제2세션에서는 「한일 간 균형 있는 무역확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양국 전문가에 의한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테마들은 지난 4월 개최된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무역과 투자의 균형 있는 확대와 그 실현을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다.

4. 이러한 제1세션 및 제2세션에서의 논의를 통해 양국 경제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인식과 의견을 같이 했다.
  - (1) 양국 경제인은 자원부족국가인 한일 양국이 지속성 있는 경제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개발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2) 특히 독창적 연구·기술 개발력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관학 연구개발의 연계와 국가의 일관된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연구기술자 육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
  - (3) 또한 급속히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국제경제 속에서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기술면에서의 가일층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 인력 교류가 중요하다.

(4)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중요해 지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양국이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5) 2007년 한국의 대일무역적자가 299억 달러에 달하는 등 무역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한일 양측은 무역확대를 도모하며,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6) 향후 한일 간의 균형 있는 무역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분야에 대한 협력과 대한 투자확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사항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한국의 투자환경이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향후 가일층의 투자환경개선과 함께 일본기업도 대한투자확대에 협력할 것

둘째, 한국은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며, 일본은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

셋째, 한국기업은 일본시장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시장의 니즈에 맞는 제품개발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본 측은 수입환경 개선에 가일층 노력할 것

5.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FTA/EPA 교섭 재개와 조기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에 양국 경제인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6. 양국 경제인은 별첨 사항을 양국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7. 차기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08年 5月 16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趙 錫 來

日本側 代表團 團長 飯島 英胤

[별 첨]

## 합 의 사 항

- (1)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FTA/EPA 교섭 재개와 조기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에 협력하는 건
- (2) 양국 간 균형있는 무역확대와 양방향 투자확대에 협력하는 건
- (3)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사업에 협력하는 건
- (4) 「청소년교류사업」으로 한일고교생교류 및 학생미래회의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건
- (5)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의 한일비즈니스·인재교류 사업에 협력하는 건
- (6) 기타 한일·일한 양협회의 합의하에 추진되는 사업에 협력하는 건

### Ⅲ. 日 程

開催場所：Sheraton Grande  
Tokyo Bay Hotel

#### 《團長團 禮訪》

##### 5月 14日 (水)

08:40～10:45	金浦空港 → 羽田空港 (KE 2707) 또는
09:25～11:25	金浦空港 → 羽田空港 (OZ 1025)
12:10～13:00	羽田空港 → HOTEL (BUS)
13:00	HOTEL CHECK IN (Hotel Okura東京)
13:30～18:00	主要機關 禮訪 (內閣總理大臣, 經濟産業大臣, 外務大臣)
19:00～20:30	駐日韓國大使 主催 晚餐會

##### 5月 15日 (木)

09:30～10:00	主要機關 禮訪 (財務大臣)
11:40～13:00	Hotel Okura東京 → HOTEL (BUS)
13:00	HOTEL CHECK IN (Sheraton Grande Tokyo Bay Hotel)

#### 《團 員》

##### 5月 15日 (木)

08:40～10:45	金浦空港 → 羽田空港 (KE 2707) 또는
09:25～11:25	金浦空港 → 羽田空港 (OZ 1025)
12:10～13:00	羽田空港 → HOTEL (BUS)
13:00	HOTEL CHECK IN (Sheraton Grande Tokyo Bay Hotel)

#### 《共 通》

※ 韓國側 事務局：1F VIP-A / 日本側 事務局：1F VIP-B  
VIP待期室：1F KEGON Ballroom

14:00～14:30	登録・接受
-------------	-------

14:30～16:00 開會式 ----- 1F CLUB Fuji B・C

- 14:30～14:35 開會 (議長選出・議題採擇・禮訪活動 報告)
- 14:35～14:50 兩側 團長人事  
日本側：飯島 英胤(IIJIMA Hidetane) 團長 (日韓經濟協會 會長)  
韓國側：趙 錫 來 團長 (韓日經濟協會・全經聯 會長)
- 14:50～15:00 40回 記念 兩國頂上 祝賀 메시지 (※代讀)  
日本側：福田 康夫(FUKUDA Yasuo) 內閣府 內閣總理大臣  
韓國側：李 明 博 大統領
- 15:00～15:50 兩側 來賓祝辭  
日本側：木村 仁(KIMURA Hitoshi) 外務省 外務副大臣  
日本側：中富 道隆(NAKATOMI Michitaka) 經濟產業省大臣官房審議官  
日本側：堂本 曉子(DOMOTO Akiko) 千葉県 知事  
韓國側：權 哲 賢 駐日大韓民國特命全權大使
- 15:50～16:00 功勞者 施賞 및 人事  
日本側：瀬戸 雄三(SETO Yuzo) (社)日韓經濟協會 名譽會長  
韓國側：金 相 廈 (社)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16:00～16:15 COFFEE BREAK

- 16:15～17:15 記念講演  
日本側：西室 泰三(NISIMURO Taizou) (社)日本經団連 評議員會 議長  
東京証券取引所 會長, (株)東芝 相談役  
『日本經団連 및 東芝와 韓國과의 關係』  
韓國側：李 熙 範 (社)韓國貿易協會 會長 (前 産業資源部 長官)  
『東北亞 經濟共同體 構成을 위한  
韓・日 兩國間 協力強化 方案』

17:15～18:00 經過報告

- 17:15～17:55 韓日新産業貿易會議 報告 및 質疑應答  
日本側：麻生 泰(ASO Yutaka) 麻生라파즈시멘트(株) 社長  
韓國側：許 南 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 17:55～18:00 一般經過報告 (協會活動)

18:30～20:30 共同主催RECEPTION ----- 1F CLUB Fuji A・B

## 5月 16日 (金)

06:30～08:30 朝食(個別) ----- 1F Grand Cafe, 2F Nadaman, Maihama, Toastina

09:00～11:30 **SESSION I** ----- 1F CLUB Fuji B・C  
〔議題：韓日 技術競争力強化와 經濟 提携〕  
座長：米倉 誠一郎(YONEKURA Seiichiro) 一橋大學 이노베이션研究센터 教授

09:00～09:10 登壇者 紹介 및 座長 人事  
09:10～09:25 日本側 發表 ①：米倉 弘昌(YONEKURA Hiromasa) 住友化學(株) 社長  
09:25～09:40 日本側 發表 ②：柘植 綾夫(THUGE Ayao) 芝浦工業大學 學長  
09:40～09:55 韓國側 發表 ①：李 熙 國 (株)SILTRON 代表理事  
09:55～10:10 韓國側 發表 ②：羅 璟 煥 韓國生產技術研究院 院長  
10:10～11:25 質疑應答 및 自由討論  
11:25～11:30 座長 總括

11:40～13:20 午餐會  
- 顧問・團長團・專門委員長・座長 (共同聲明案 審議)  
----- 新館 2F Ocean Blue  
- 團 員 ----- 1F CLUB Fuji A

13:30～15:40 **SESSION II** ----- 1F CLUB Fuji B・C  
〔議題：韓日間 均衡있는 貿易擴大를 위하여〕  
座長：伊丹 敬之(ITAMI Hiroyuki) 東京理科大学大学院 教授

13:30～13:40 登壇者 紹介 및 座長 人事  
13:40～13:55 日本側 發表 ①：野副 伸一(NOZOE Shinichi) 亞細亞大學아시아研究所 教授  
13:55～14:10 日本側 發表 ②：村上 雅章(MURAKAMI Masaaki) 韓國三井物産(株)  
代表理事 社長 兼 서울재팬클럽 理事長  
14:10～14:22 韓國側 發表 ①：任 千 錫 建國大學校 商經大學 貿易學科 教授  
14:22～14:34 韓國側 發表 ②：琴 秉 周 (株)WOOSUNG I&C 社長  
14:34～14:40 韓國側 發表 ③：張 錫 春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委員長  
14:40～15:35 質疑應答 및 自由討論  
15:35～15:40 座長 總括

15:40～16:00 COFFEE BREAK (共同聲明(案) 配布)



16:00～16:20      閉會式

16:00～16:10      共同聲明 採擇 (主催國側 朗讀)

16:10～16:20      兩側團長 閉會人事

16:20              閉會

16:30～17:00      共同記者會見 (兩國團長) ----- 2F Akemi Room

17:00～18:00      HOTEL → 羽田空港 (BUS)                      ※ Option行事 不參者

19:35～21:50      羽田空港 → 金浦空港 (KE 2710) 또는

20:05～22:25      羽田空港 → 金浦空港 (OZ 1035)

5月 17日 (土)      <Option Program>

06:30～07:30      朝食(個別) ----- 1F Grand Cafe, 2F Nadaman, Maihama, Toastina

07:30～09:00      HOTEL → TATENO Classic Golf Club (BUS)

09:00～17:00      親善交流活動 (午餐包含)

17:10～18:00      TATENO Classic Golf Club → 羽田空港 (BUS)

19:35～21:50      羽田空港 → 金浦空港 (KE 2710) 또는

20:05～22:25      羽田空港 → 金浦空港 (OZ 1035)

## IV. 議 題

### 1. 記念講演

韓國側：『東北亞 經濟共同體 構成을 위한 韓・日 兩國間 協力強化 方案』

李 熙 範 (社)韓國貿易協會 會長 (前 產業資源部 長官)  
(社)韓日經濟協會 顧問

日本側：『日本經団連 및 東芝와 韓國과의 關係』

西室 泰三(NISIMURO Taizou) (社)日本經団連 評議員會 議長  
東京証券取引所 會長, (株)東芝 相談役

### 2. SESSION I

[議 題：韓日 技術競爭力強化와 經濟 提携]

座 長：米倉 誠一郎(YONEKURA Seiichiro) 一橋大學 이노베이션研究센터 教授

韓國側：『韓日 經濟協力 電子部門 事例와 發展 方向』

李 熙 國 (株)SILTRON 代表理事

『韓日間 技術協力 活性化 方案』

羅 璟 煥 韓國生產技術研究院 院長

日本側：『 』

米倉 弘昌(YONEKURA Hiromasa) 住友化學(株) 社長

『國家建設로 결실맺는 科學技術創造를 目標로

~이노베이션 創出能力 強化를 위한 과제』

柘植 綾夫(THUGE Ayao) 芝浦工業大學 學長

### 3. SESSION II

[議題：韓日間 均衡있는 貿易擴大를 위하여]

座 長：伊丹 敬之(ITAMI Hiroyuki) 東京理科大学大学院 教授

韓國側：『韓日間 貿易不均衡 原因과 改善方案』

任 千 錫 建國大學校 商經大學 貿易學科 教授

『韓日間 部品素材産業의 交易實態와 協力 方案』

琴 秉 周 (株)WOOSUNG I&C 社長

『韓國 勞動者들의 優秀性을 믿고 投資해 주십시오』

張 錫 春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委員長

日本側：『變化하는 韓國의 對外經濟關係 - 中國 편중의 빛과 그림자 - 』

野副 伸一(NOZOE Shinichi) 亞細亞大學아시아研究所 教授

『韓日의 均衡있는 貿易擴大에 대해서』

村上 雅章(MURAKAMI Masaaki) 韓國三井物産(株) 代表理事 社長

兼 서울재판클럽 理事長

## V. 兩側 代表團 名單

### 1. 韓國側 代表團 名單

順：職責·가나다 順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長	趙 CHO	錫 Suck	來 Rai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株)曉星 會長
名譽會長	金 KIM	相 Sang	廈 Ha	(社)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株)三養社 Group會長
顧 問 (記念講演者)	李 LEE	熙 Hee	範 Beom	(社)韓日經濟協會 顧問 (社)韓國貿易協會 會長
副 團 長	具 KOO	本 Bon	俊 Joo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株)LG商事 副會長
副 團 長	金 KIM	熙 Hi	勇 Yo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東洋物產企業(株) 會長
副 團 長	羅 RA	應 Eung	燦 Cha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新韓金融持株會社 會長
副 團 長	徐 SUH	敏 Min	錫 Sok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東一紡織(株) 會長
副 團 長	薛 SULL	元 Won	鳳 Bo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大韓製糖(株) 會長
副 團 長	禹 WOO	石 Suk	亨 Hyu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株)SINDORICOH 會長
副 團 長	崔 CHOI	用 Yong	權 Kwo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三煥企業(株) 會長
來 賓	權 KWON	哲 Chul	賢 Hyun	駐日本國大韓民國特命全權大使
特別參加 (Session I 發表者)	羅 NA	璟 Kyoung	煥 Hoan	韓國生產技術研究院 院長
特別參加 (Session II 發表者)	琴 KEUM	秉 Byung	周 Joo	(株)WOOSUNG I&C 社長
特別參加 (Session I 發表者)	李 LEE	熙 Hee	國 Gook	(株)SILTRON 代表理事 社長(CEO)
特別參加 (Session II 發表者)	任 IM	千 Chon	錫 Sok	建國大學校 商經大學 貿易學科 教授
特別參加 (Session II 發表者)	張 JANG	錫 Seok	春 Chun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委員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李 LEE	吉 Gil	鉉 Hyun	(社)韓日經濟協會 監事 (株)旻元 會長
團	員	姜 KANG	信 Shin	浩 Ho	東亞製藥(株) 會長
團	員	金 KIM	正 Jung	守 Soo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株)JS開發 會長
團	員	李 LEE	一 Il	揆 Kyu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Best Western Korea 會長
團	員	鄭 JUNG	榮 Young	鉉 Hyun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株)天馬 顧問
團	員	黃 HWANG	昊 Ho	均 Kyoon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株)The Faceshop Korea 副會長
團	員	尹 YOON	鳳 Bong	秀 Soo	韓國中堅企業聯合會 會長 (株)南盛 代表理事 會長
團	員	姜 KANG	在 Jae	祚 Jo	東南鑄物工業(株) 代表理事 會長
團	員	奇 KEE	秉 Byung	泰 Tae	(株)HIKARI情報 會長
團	員	金 KIM	德 Duk	吉 Kil	大永產業開發(株) 會長 AIS(株) CEO
團	員	金 KIM	泳 Young	奎 Kyu	UNION CHEMICALS, INC. 會長
團	員	金 KIM	英 Young	泰 Tai	(社)韓國經營Consulting協會 會長
團	員	金 KIM	侖 Yun	壽 Su	仁山竹鹽村(株) 會長
團	員	盧 RO	喜 Hee	燦 Chan	三一紡織(株) 代表理事 會長 大邱商工會議所 名譽會長
團	員	朴 PARK	城 Sung	亨 Hyung	新羅纖維(株) 代表理事 會長
團	員	徐 SUH	甲 Kap	洙 Soo	韓國技術投資(株) 會長
團	員	宋 SONG	明 Myung	哲 Chul	(株)南旻R&D 會長
團	員	宋 SONG	錫 Seok	俊 Joon	(株)巨養 會長
團	員	申 SHIN	德 Duck	鉉 Hyun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會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梁 YANG	龍 Yong	雄 Woong	(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會長
團	員	劉 YOO	載 Jae	晟 Sung	泰昌鐵鋼(株) 會長
團	員	柳 YOO	在 Jae	泌 Pil	有進企業(株) 會長
團	員	尹 YOON	在 Jae	烈 Yul	(株)THREE R 會長
團	員	李 LEE	健 Kun	洙 Soo	(株)東亞電通 會長
團	員	鄭 CHUNG	時 Shi	均 Kyun	(株)LAFIEN 會長
團	員	盧 RO	成 Sung	泰 Tae	大韓生命保險 研究院長
團	員	李 LEE	鍾 Chong	燮 Hoon	學校法人 德成女子大學校 理事長
團	員	金 KIM		正 Jung	HANWHA GROUP 顧問
團	員	李 LEE	卓 Tag	熙 Hee	韓國光學機器協會 常勤副會長
團	員	全 JOHN	賢 Hyun	哲 Chul	韓國中堅企業聯合會 常勤副會長
團	員	崔 CHOI	明 Myung	煥 Hwan	(株)HHI 副會長
團	員	金 KIM	敬 Kyung	泰 Tae	(株)TC TECH 社長
團	員	金 KIM	相 Sang	道 Do	(株)POWERNET 代表理事 社長
團	員	朴 PARK	南 Nam	淑 Sook	共生國際特許情報(株) 代表
團	員	朴 PARK	在 Jae	弘 Hong	HANWHA JAPAN(株) 社長
團	員	朴 PARK	浩 Ho	鎭 Jin	N-HITECH 社長
團	員	徐 SUH	炳 Byung	珉 Min	(株)豐山 社長
團	員	梁 YANG	龍 Yong	球 Koo	韓國創業投資(株) 社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李 LEE	榮 Young	澤 Taek	World Entertainment 代表
團	員	張 CHANG	世 Sea	豐 Foong	韓國Lost-Wax(株) 代表理事
團	員	鄭 JUNG	淳 Soon	旭 Uk	(株)天馬 代表理事
團	員	陶 DO	斗 Doo	亨 Hyung	法務法人 世宗 辯護士
團	員	李 LEE	厚 Hoo	東 Dong	法務法人(有限) 太平洋 辯護士
團	員	魯 RO	在	峯 Jaebong	(株)曉星 專務
團	員	朴 PARK	禹 Woo	建 Keon	韓國生產性本部 專務理事
團	員	許 HUH	南 Nam	整 Jung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團	員	李 LEE	栢 Baeg	儀 Euy	(株)三養社 常務
團	員	金 KIM	都 Do	亨 Hyung	啓明大學校 國際學大學 日本學科 教授
團	員	吳 OH	泰 Tae	憲 Heon	慶熙Cyber大學校 日本學科 教授
團	員	姜 KANG	英 Young	之 Ji	(社)韓國Technomart 理事
團	員	崔 CHOI	海 Hai	淑 Sook	(株)Rootone Entertainment 理事
團	員	黃 HWANG	碩 Sug	基 Ki	共生國際特許情報(株) 理事
團	員	司 SAKONG	空	穆 Mok	產業研究院 研究委員
團	員	柳 RYU	奉 Bong	雨 Woo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理事
團	員	金 KIM	汝 Yeo	種 Jong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Japan Outsourcing Center 事務局長·理事
團	員	宋 SONG	成 Sung	基 Gi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日本企業研究Center 事務局長·理事
團	員	橋 HASHIMOTO	本	栄 Sakae	Conex Asia Network(株) 編集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Observer	金 KIM	京 Kyong	洙 Soo	駐日本國大韓民國大使館 公使參事官 (商務官)
Observer	楊 YANG	正 Jeong	周 Joo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對外協力本部長
Observer	白 BAIK	大 Dae	振 Jin	韓國勞動組合總聯盟 任員附屬室 局長
Observer	鄭 CHUNG	善 Sun	洙 Soo	光州廣域市 經濟政策課長
Observer	柳 YOU	鉢 Mih	秀 Soo	光州廣域市 經濟政策課
Observer	金 KIM	彰 Chang	彬 Bin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企劃管理Team長
Observer	張 CHANG	震 Jin	旭 Wook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產業技術Team長
Observer	金 KIM	度 Do	勳 Hoon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日本企業研究Center 研究委員
隨 行 員	李 LEE	康 Kang	賢 Hyeon	KTIC JAPAN(株) 代表理事
隨 行 員	金 KIM	基 Ki	映 Young	大韓製糖(株) 東京支社長
隨 行 員	李 LEE	信 Sin	基 Gee	新韓銀行 東京支店長
隨 行 員	徐 SEO	禎 Jung	培 Bae	(株)三養社 東京支店長
隨 行 員	坂 下 SAKASHITA	清 彦 Kiyohiko		三煥企業(株) 東京支社長
隨 行 員	申 SHIN	尙 Sang	憲 Heon	HANWHA GROUP 次長
隨 行 員	李 LEE	德 Deok	根 Keun	韓國生產技術研究院 中小企業支援本部長
隨 行 員	田 JEON	虎 Ho	日 Il	韓國生產技術研究院 技術政策室 前任研究員
隨 行 員	李 LEE	東 Dong	基 Ki	(社)韓國貿易協會 秘書室 次長
隨 行 員	李 LEE	東 Dong	震 Jin	全國經濟人聯合會 前任調查役
隨 行 員	李 LEE	相 Sang	允 Yoon	全國經濟人聯合會 東京連絡事務所 次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隨 行 員	丁 JUNG	光 Kwang	鎮 Jin	(株)SILTRON 戰略企劃Team長
隨 行 員	楊 YANG	東 Dong	原 Won	(株)曉星 部長
隨 行 員	林 LIM	延 Yoen	柱 Ju	(株)曉星 代理
隨 行 員	宋 SONG	玟 Min	英 Young	(株)曉星 社員
事 務 局	趙 CHO	德 Duck	卯 Myo	(社)韓日經濟協會 部長
事 務 局	金 KIM	正 Jung	鎬 Ho	(社)韓日經濟協會 部長
事 務 局	沈 SHIM	揆 Kyu	榛 Jin	(社)韓日經濟協會 課長
事 務 局	洪 HONG	昭 So	榮 Young	(社)韓日經濟協會 社員



<駐日韓國企業聯合會 會員 參加者 名單>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Observer	張 CHANG	永 Young	軾 Sik	(株)永山 代表理事 會長 兼 CEO
Observer	權 KWON	錫 Seog	睦 Mok	Coway(株) 代表理事
Observer	朴 PARK	省 Seong	顯 Hyun	大宇JAPAN(株) 代表理事 社長
Observer	尹 YOON	旻 Min	秀 Soo	STX日本(株) 社長
Observer	李 LEE	揆 Kyu	弘 Hong	LG電子JAPAN(株) 代表理事
Observer	安 AHN	塙 Bok	煥 Young	(株)HUMAX JAPAN 代表理事 副社長
Observer	金 KIM	亨 Hyung	基 Ki	日本三星(株) 專務理事
Observer	金 KIM	永 Young	浩 Ho	日本三星(株) 商事支援Team長
Observer	朴 PARK	貞 Chung	金 Kum	中原商事(株) 東京事務所 支店長
Observer	朴 PARK	永 Young	守 Soo	太榮商船(株) 東京事務所長/常務
Observer	辛 SHIN	允 Yoon	錫 Seok	GRAND KOREA CORP. 日本Center長
Observer	張 JHANG	東 Dong	原 Won	韓國電力公社 東京支社長
Observer	張 JANG	喜 Hee	九 Goo	(株)KOLON 東京事務所長/常務
Observer	張 JANG	聖 Seong	燮 Seob	慶尙北道 東京駐在 通商投資駐在官
Observer	薛 SEOL	在 Jae	秀 Soo	POSCO JAPAN(株) 經營企劃部長
Observer	金 KIM	東 Dong	斌 Bin	(株)DPI Holdings 東京支店長/次長
Observer	朴 PARK	富 Boo	圭 Kyu	(社)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長
Observer	朴 PARK	龍 Young	奎 Gyu	(社)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 次長
Observer	朴 PARK	然 Youn	雨 Woo	(社)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 次長

## 2. 日本側 代表團 名單

(敬称略・順不同)

団 長	飯 島 英 胤 IJIMA HIDETANE	(社)日韓経済協会 會長 東レ(株) 特別顧問
名譽會長	瀬 戸 雄 三 SETO YUZO	(社)日韓経済協会 名譽會長 アサヒビール(株) 相談役
副 団 長	荒 木 浩 ARAKI HIROSHI	(社)日韓経済協会 副會長 東京電力(株) 顧問
副 団 長	田 崎 雅 元 TAZAKI MASAMOTO	(社)日韓経済協会 副會長 川崎重工業(株) 取締役會長
副 団 長	鮫 島 章 男 SAMESHIMA FUMIO	(社)日韓経済協会 副會長 太平洋セメント(株) 代表取締役會長
副 団 長	麻 生 泰 ASO YUTAKA	(社)日韓経済協会 副會長 日韓新産業貿易會議チェアマン 麻生ラファージュセメント(株)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宮 原 賢 次 MIYAHARA KENJI	(社)日韓経済協会 副會長 住友商事(株) 相談役
副 団 長 發表者	米 倉 弘 昌 YONEKURA HIROMASA	(社)日韓経済協会 副會長 (株)日本経済団体連合会 副會長 住友化学(株)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池 田 弘 一 IKEDA KOUICHI	(社)日韓経済協会 副會長 アサヒビール(株) 代表取締役會長
相 談 役	藤 村 正 哉 FUJIMURA MASAYA	(社)日韓経済協会 相談役 三菱マテリアル(株) 名譽顧問
來 賓	木 村 仁 KIMURA HITOSHI	外務副大臣
來 賓	重 家 俊 範 SHIGEIE TOSHINORI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特命全權大使
來 賓	堂 本 曉 子 DOMOTO AKIKO	千葉縣知事
來 賓	中 富 道 隆 NAKATOMI MICHITAKA	經濟産業省 大臣官房審議官
來 賓	成 尾 政 美 NARUO MASAYOSHI	千葉縣議會 副議長
來 賓	大 塚 弘 OTSUKA HIROSHI	(社)千葉縣經營者協會 會長
來 賓	松 崎 秀 樹 MATSUZAKI HIDEKI	浦安市 市長
來 賓	秋 葉 要 AKIBA KANAME	浦安市 市議會議長

来 賓	柳 内 光子 YANAI MITSUKO
特別参加 記念講演	西 室 泰 三 NISHIMURO TAIZO
特別参加 コーディネーター	米 倉 誠一郎 YONEKURA SEIICHIRO
特別参加 発表者	柘 植 綾 夫 TSUGE AYAO
特別参加 コーディネーター	伊 丹 敬 之 ITAMI HIROYUKI
特別参加 発表者	野 副 伸 一 NOZOE SHINICHI
団 員 発表者	村 上 雅 章 MURAKAMI MASAACKI
団 員	古 川 和 雄 FURUKAWA KAZUO
団 員	杉 山 廣 明 SUGIYAMA HIROAKI
団 員	後 藤 綾 孝 GOTO RYOTAKA
団 員	大 西 康 司 OHNISHI YASUSHI
団 員	樋 田 憲 一 HIDA NORIKAZU
団 員	三 浦 園 子 MIURA SONOKO
団 員	渡 辺 精 一 WATANABE SEIICHI
団 員	山 口 耀 司 YAMAGUCHI YOJI
団 員	今 井 雅 啓 IMAI MASAHIRO
団 員	鈴 木 敦 SUZUKI ATSUSHI
団 員	岩 崎 在 宏 IWASAKI MASAHIRO
団 員	吳 希 昌 OH HI-CHANG
団 員	權 京 鎬 KWON KYONGHO

浦安商工會議所 會頭

(株)日本經濟団体連合會 評議員會議長  
(株)東芝 相談役

一ツ橋大學イノベーション研究センター 教授

芝浦工業大學學長

東京理科大学大学院教授

亞細亞大學アジア研究所 教授

韓國三井物産(株) 代表理事社長

(株)I H I 海外營業戰略部渉外グループ部長

旭化成(株) エレクトロケミカル事業推進室部長

旭化成ケミカルズ(株) 人事室課長

旭硝子(株) ディスプレイカンパニー企画管理室主席

アサヒビール(株) 秘書室室長

アサヒビール(株) 秘書室課長

(株)ロッテアサヒ酒類 理事

學校法人麻生塾 法人本部次長

伊藤忠商事(株) 執行役員海外市場部長

伊藤忠商事(株) 海外市場部アジア・大洋州室  
室長代行

韓國伊藤忠(株) 社長

(株)インジェスター 代表取締役社長

(株)インジェスター 取締役副社長

団員	上田 勝弘 UEDA KATSUHIRO	大垣精工(株) 代表取締役社長
団員	和田 英二 WADA EIJI	(財) 北九州国際技術協力協会 技術協力部専門部長
団員	服部 和史 HATTORI KAZUSHI	川崎重工業(株) 営業推進本部国際部長
団員	中村 隆男 NAKAMURA TAKAO	川崎重工業(株) 営業推進本部国際部国際課課長
団員	平井 彰 HIRAI AKIRA	(社)九州経済連合会 総務企畫本部長
団員	矢野 佳秀 YANO YOSHIHIDE	(社)九州経済連合会 総務企畫本部課長
団員	赤木 由美 AKAGI YUMI	九州旅客鐵道(株) 総合企畫本部 経営企畫部企畫国際室 室長
団員	青木 秀雄 AOKI HIDEO	近畿産業信用組合 副會長
団員	倉石 英一 KURAISHI EIICHI	ケイ・アンド・ケイ コミュニティー 代表取締役
団員	伊藤 清彦 ITO KIYOHICO	(社) 経済同友会 執行役
団員	畠山 襄 HATAKEYAMA NOBORU	(財) 国際経済交流財団 會長
団員	井上 勝 INOUE MASARU	(財) 国際経済交流財団 業務部長
団員	日比野 健 HIBINO KEN	(株)ジェイティービー 取締役旅行事業本部副本部長
団員	野澤 肇 NOZAWA HAJIME	(株)ジェイティービー 旅行事業本部国際企畫チーム グローバル戦略担当部長
団員	廣木 幹彦 HIROKI MIKIHICO	(株)ジェイティービー 事業創造本部・事業開発室 アシスタントマネージャー
団員	黒木 志穂 KUROKI SHIHO	(株)ジェイティービー 旅行事業本部国際企畫チーム アシスタントマネージャー
団員	藤田 徹 FUJITA TORU	(株)住友商事総合研究所 情報調査部シニアアナリスト
団員	清水 祥之 SHIMIZU YOSHIYUKI	住友化学(株) 秘書室部長
団員	田邊 弘幸 TANABE HIROYUKI	双日(株) 副社長執行役員
団員	土田 毅 TSUCHIDA TSUYOSHI	双日(株) 秘書部部門間事業推進室長

団員	瀬下 猛 SESHIMO TAKESHI	双日(株) 秘書部渉外担当課長
団員	伊勢谷 元彦 ISETANI MOTOHIKO	ソニー韓国 副社長
団員	舟久保 陽一 FUNAKUBO YOUICHI	太平洋セメント(株) 秘書部長
団員	清田 瞭 KIYOTA AKIRA	(株)大和証券グループ本社 取締役副会長
団員	神賀 省一 KAMIGA SHOICHI	(株)大和証券グループ本社 秘書室部長
団員	西山 泰博 NISHIYAMA YASUHIRO	(株)ダリア 管理本部常務取締役
団員	寄木 正敏 YORIKI MASATOSHI	月島機械(株) 社友
団員	山田 和彦 YAMADA KAZUHIKO	月島機械(株) 代表取締役社長
団員	森島 進 MORISHIMA SUSUMU	月島機械(株) 執行役員
団員	松本 優幸 MATSUMOTO MASAYUKI	月島機械(株) 海外営業部 第2営業グループリーダー
団員	羽田野 彰士 HATANO SHOUJI	テルモ(株) 広報室室長
団員	井口 徹夫 IGUCHI TETSUO	(株)東芝 秘書室参事
団員	藤巻 義恭 FUJIMAKI YOSHIYASU	(株)東芝 社会・産業部産業関連担当部長
団員	渡邊 敬信 WATANABE TAKANOBU	(株)東芝 社会・産業部産業関連担当課長代理
団員	今須 聖雄 IMASU MASAO	東洋アルミニウム(株) 代表取締役社長
団員	山田 勝之 YAMADA KATSUYUKI	東レ(株) 経営企画室参事
団員	三本木 伸一 SANBONGI SHINICHI	東レ(株) マーケティング企画室長
団員	小林 純 KOBAYASHI JUN	東レ(株) 国際部門長
団員	沼野 隆一 NUMANO RYUICHI	東レ(株) ソウル事務所長
団員	古川 洋三 FURUKAWA HIROMI	東麗中国有限公司 顧問

団員	島 地 啓 SHIMAJI KEI	東レインターナショナル(株) 海外業務部長
団員	松 田 雅 一 MATSUDA MASAKAZU	東レエンジニアリング(株) 管理部門総務部長
団員	宮 木 宏 尚 MIYAKI HIROHISA	(株)東レ経営研究所 M O T チーフディレクター
団員	永 井 知 美 NAGAI TOMOMI	(株)東レ経営研究所 産業経済調査部
団員	栗 田 純 男 KURITA SUMIO	東レ・トラベル(株) 理事 本社営業部部長
団員	阪 本 節 郎 SAKAMOTO SETSUO	(株)博報堂 エルダービジネス推進室チーフコンサルタント
団員	高 杉 暢 也 TAKASUGI NOBUYA	韓国富士ゼロックス(株) 最高顧問
団員	河 本 兼 尚 KAWAMOTO KANEYOSHI	(株)パシフィックアイランディアリゾート 取締役顧問
団員	清 水 紘一郎 SHIMIZU KOOICHIRO	(株)ホテルオークラ 代表取締役副社長
団員	小 林 啓 郎 KOBAYASHI KEIO	(株)ホテルオークラ東京 営業統括部セールス課セールスマネジャー
団員	高 橋 恒 弘 TAKAHASHI TSUNEHIRO	(株)日立製作所 グローバル事業本部・部長
団員	成 田 洋 助 NARITA YOSUKE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カウンセラー
団員	山 崎 弘 YAMAZAKI HIROSHI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
団員	讃 井 善 郎 SANUI YOSHIO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日韓中小企業情報交流センター所長
団員	遠 藤 一 郎 ENDO ICHIRO	日鉱金属(株) 顧問
団員	水 野 隆 張 MIZUNO TAKAHARU	日本経営管理教育協会 営業部営業部長
団員	青 山 周 AOYAMA MEGURI	(株)日本経済団体連合会 アジアグループ長
団員	縄 野 克 彦 NAWANO KATSUHIKO	(株)日本航空 代表取締役副社長
団員	山 村 毅 YAMAMURA TSUYOSHI	(株)日本航空 韓国地区支店長
団員	石 田 賢 ISHIDA MASARU	日本サムスン(株) 戦略企画室顧問

団員	篠原 徹 SHINOHARA TORU	日本商工會議所 常務理事
団員	山内 清行 YAMAUCHI KIYOYUKI	日本商工會議所 国際部課長
団員	櫻井 正樹 SAKURAI MASAKI	日本繊維産業連盟 顧問
団員	門脇 英晴 KADOWAKI HIDEHARU	(株)日本総合研究所 理事長
団員	鈴木 厚 SUZUKI ATSUSHI	日本貿易振興機構ソウル・センター 所長
団員	米山 晋 YONEYAMA SUSUMU	(株)野村総合研究所 主席コンサルタント
団員	生田 章一 IKUTA SHOICHI	丸紅(株) 執行役員
団員	柴田 光慈 SHIBATA KOJI	丸紅韓國會社 社長
団員	中村 英剛 NAKAMURA HIDETAKE	(株)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 常務執行役員
団員	安田 幸生 YASUDA YUKIO	(株)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 国際管理部部長
団員	末永 明 SUENAGA AKIRA	(株)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 アジア業務管理部部長
団員	成川 敦 NARIKAWA ATSUSHI	(株)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ソウル支店 支店長
団員	高 延 旼 KO JEONGMIN	(株)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ソウル支店
団員	會田 南 AIDA MINAMI	三井住友銀行ソウル支店 支店長
団員	古川 壽正 FURUKAWA TOSHIMASA	三井物産(株) 専務執行役員アジア・大洋州本部長
団員	矢野 雅英 YANO MASAHIDE	三菱商事(株) 常務執行役員生活産業グループCEO
団員	伊与部 恒雄 IYOBE TSUNEO	三菱商事(株) 常務執行役員コーポレート担当役員
団員	森原 康夫 MORIHARA YASUO	三菱商事(株) 業務部アジア・大洋州チーム アジア・大洋州担当マネージャー
団員	栗谷 勉 AWAYA TSUTOMU	韓國三菱商事(株) 代表理事社長
団員	鶴見 大輔 TSURUMI DAISUKE	韓國三菱商事(株) 企画本部課長

団 員	西 村 和 義 NISHIMURA KAZUYOSHI	三菱マテリアル(株) 社友
団 員	帶 刀 楯 夫 OBINATA TATEO	韓國横河電機(株) 代表理事會長
団 員	岸 田 昇 KISHIDA NOBORU	U C C 上島珈琲(株) 海外事業本部・担当課長
団 員	村 上 吉 胤 MURAKAMI YOSHITSUGU	學校法人立命館東京キャンパス 副事務所長
団 員	西 田 宗 旦 NISHIDA MUNAKI	學校法人立命館東京オフィス 参与
団 員	中 村 家 國 NAKAMURA IEKUNI	(株)ロツテ 常務
団 員	武 澤 泰 TAKEZAWA TAI	(社)日韓經濟協會 専務理事
団 員	秋 山 迪 AKIYAMA SUSUMU	(社)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調査・廣報部長
特別参加	尾 池 厚 之 OIKE ATSUYUKI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公使
特別参加	赤 堀 毅 AKAHORI TAKESHI	外務省 日韓經濟室長
特別参加	水 野 智 裕 MIZUNO TOMOHIRO	外務省 日韓經濟室外交實務研修員
特別参加	東 谷 研 二 AZUMAYA KENJI	經濟産業省 通商政策局北東アジア課
特別参加	山 本 榮 二 YAMAMOTO EIJI	内閣府經濟社會總合研究所 上席主任研究官
特別参加	竹 谷 正 之 TAKETANI MASAYUKI	(社) 千葉縣經營者協會 専務理事
特別参加	齋 藤 秀 貴 SAITO HIDEKI	千葉縣經濟同友會 事務局長
特別参加	小 川 和 裕	浦安商工會議所 専務理事
特別参加	生 井 俊 一	浦安商工會議所 事務局次長
特別参加	泉 澤 豊 IZUMISAWA YUTAKA	(株)C V S ベイエリア 代表取締役社長
特別参加	鈴 木 正 一 SUZUKI SHOICHI	(財) ちば國際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専務理事
特別参加	影 山 美佐子 KAGEYAMA MISAKO	(財) ちば國際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事務局長



特別参加	森 竹 津四志 MORITAKE TSUYOSHI	(財) ちば国際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コンベンション事業部長
特別参加	古 谷 嘉 正 FURUYA YOSHIMASA	(財) ちば国際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支援課長
特別参加	河 野 雅 祐 KOHNO MASAHIRO	(財) ちば国際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支援課主任
特別参加	東 條 秀 彦 TOJO HIDEHIKO	(財) ちば国際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市場調査課長
特別参加	徳 弘 泰 雄 TOKUHIRO YASUO	(社) 岡山市観光協會 (社) おかやま観光コンベンション 協會設立準備室室長
特別参加	安 治 純一郎 AJI JUNICHIRO	(社) 岡山市観光協會 (社) おかやま観光コンベンション 協會設立準備室
特別参加	高 橋 洋 二 TAKAHASHI YOJI	岡山市役所 経済局観光課係長
特別参加	松 原 静 香 MATSUBARA SHIZUKA	岡山縣 産業労働部産業企畫課
特別参加	川 崎 一 男 KAWASAKI KAZUO	岡山商工會議所 振興課課長
特別参加	山 潟 良 一 YAMAGATA RYOICHI	ホテルオークラ岡山 總支配人
特別参加	宗 野 康 一 MUNENO KOICHI	ホテルオークラ岡山 マーケティング部副支配人
事務局	保 坂 昭 壽 HOSAKA AKITOSHI	(社)日韓經濟協會 調査・広報部主任調査役
事務局	初瀬川 茂 HATSUSEGAWA HIGERU	(社)日韓經濟協會 事業企畫部長
事務局	木 下 和 彦 KINOSHITA KAZUHIKO	(社)日韓經濟協會 事業企畫部長
事務局	杉 山 茂 夫 SUGIYAMA SHIGEO	(社)日韓經濟協會 總務部長
事務局	伊 藤 美千代 ITO MICHIO	(社)日韓經濟協會 總務部課長
事務局	孫 修 珍 SON SUJIN	(社)日韓經濟協會 事業企畫部



## <청간지>



## VI. 議 事 錄



### 1. 開 會 式

司會【武澤 泰 (社)日  
韓經濟協會 專務理事,  
以下同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 지금부터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  
회 및 진행을 맡게 된 일한경제협회 전무  
이사를 맡고 있는 다케자와입니다. 여려  
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시통역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통역 수신기는 채널 0번은 일본어, 채널  
1번은 한국어입니다. 원하시는 채널을 맞  
추셔서 통역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통  
역 수신기에 전원이 잘 안 켜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을 본체에 꼽으시  
고, 수신기 중앙 오른편에 있는 전원 부  
분을 누르십시오. 그럼 0이라는 숫자가  
뜰 것입니다. 여러분 전원을 켜셨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의에 앞서서 조석래 단장  
님을 비롯한 한국측 대표단의 일본 정부  
예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국측 대표단 10명은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의 안내를 받아 어제

5월 14일 오후에 후쿠다 내각 총리대신,  
아마리 경제산업성 대신, 그리고 코무라  
외무성 대신을 예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는 누카가 재무성 대신을  
예방하셨습니다. 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쿠다 총리대신 및 일본의 각 대신들  
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새로운  
한일 신시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그  
리고 일한·한일 FTA/EPA의 협상을 조기  
에 재개하여,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마  
는,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  
다. 그리고 양국 간에 형성되고 있는 진  
솔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부 간  
대화도 긴밀화한다. 이를 위하여 경제계  
여러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아주 고무적인 발언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편, 단장단은 「정상회담 이  
후 양국 정부 간 신뢰 관계가 고양되고  
있음에 대하여 경제계는 이를 환영한다.  
한일·일한 FTA/EPA와 양국 간 무역 투  
자 확대를 중시하며, 한일 두 나라가 핵  
심이 되어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리  
드해 나가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  
였습니다. 그 외에도 화기에애한 가운데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예방  
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0회 한일·일한 경제  
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측 단  
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한

경제협회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석래 회장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전경련의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어서 한국측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일본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 권철현 대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한국무역협회 이희범 회장님이십니다. 이어서 한일경제협회 김상하 명예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한국 전경련의 강신호 명예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일본측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외무성의 기무라 히토시(木村 仁) 부대신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이 지역 치바현의 도모토 아키코(堂本 曉子) 지사님이십니다. 이어서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시게이에 토시노리(重家 俊範) 대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성 나카토미 미치타카 대신 관방심의관님이십니다. 다음은 일본 경단련 평의원회 니시무로 타이조(西室 泰三) 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일한경제협회 세토 유조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본 경제인회의의 관례에 따라 양측 경제협회 회장님들께서 본 회의의 공동 의장으로 취임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됩니다.

#### (1) 團長人事

司會 :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양 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측을 대표하여 일한경제협회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IIJIMA Hidetane)

日本側 代表團 團長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한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이지마입

니다. 금번 경제인회의는 제40회를 헤아리는, 기념할 만한 대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마다 양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회의를 개최하면서 금번 기념 대회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배 제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40회 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한국측의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스텝 여러분들, 그리고 치바현과 우라야스시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력 하에 이렇게 개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한국측에서 주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 권철현 대사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일본측에서는 외무성의 기무라 부대신님, 그리고 도모토 치바현 지사님, 그리고 시게이에 주한 일본 대사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양국으로부터 다수의 내빈 여러분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25일에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새로운 일한·한일 관계가 구축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관계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외교 뿐 아니라 경제면·문화면·인적 교류면, 그리고 지역 간 교류면 등등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양국 정상들의 신뢰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분야에서 미국에서는 프라임 모기지 문제라든지, 원유가 급등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한일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826억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최대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일본측의 299억불의 흑자입니다. 즉, 무역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자 확대 경향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하여 확대·균형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WIN-WIN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까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혹은 대처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정계, 재계 그리고 관이 함께 협력하여, 정면으로 여기에 대응하여 하나하나 실효성 있는 결실을 거두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양국 간 경제력 향상 그리고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 그것은 한일 양국 간 쌍방향의 투자확대입니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환경 정비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한 투자확대가 관건이 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무역입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를 받쳐 주고 있는 것은 국제 경쟁력이 높은 기술 개발력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 개발력 강화라는 것을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산·학·관이 하나가 되어서 이 기술 개발력 강화를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과제, 그것은 한국의 대일 수출 확대입니다. 최근 이 부분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일본 시장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대일 전략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일본측에서도 한국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과제들은 내일 세션에서의 테마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의 FTA/EPA 협상 재개라고 하는 국면에서도 아주 관건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세션에서 건설적이고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인적교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과 한국 간을 오고간 사람의 수는 484만 명을 헤아렸습니다. 이것은 과거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사람이 260만 명을 헤아렸습니다. 즉, 일본에서 한국을 찾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한국 분들이 일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적 교류 상황 속에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이 양국 간에 특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한일·일한경제협회는 5년 전부터 「고교생 교류캠프」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 졸업생들에 의한 Advanced Course로서의 「학생 미래회의」라고 하는 것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와 같은 사업들을 국가 정부 예산으로 치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내용을 더욱더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운영 강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던 경제 교류, 청소년 교류와 관련하여 저희 일한·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활동을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4월에 중소기업정보교류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양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연계나 상거래 확대 측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경제협회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공동사업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지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이공계 대학원생 연수 강화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약 20명 정도의 연수생이 왔습니다만, 이것을 두 배인 4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수기간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대학원생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쌍방향에서 하이레벨의 연수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일본의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의 전면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관건이 되는 것은 「실천」입니다. 앞으로도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서로 연계하면서 이와 같은 사업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동안의 한정된 시간이라는 합니지만, 본 경제인 회의가 많은 성과를 이루길 기원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모님들께서도 추억에 남는 멋진 시간을 일본에서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의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이이지마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측을 대표하여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趙 錫 來**  
**韓國側 代表團 團長**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석래입니다. 풍경이 아름다운 이곳 우라야스시에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한일·일한경제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서 이이지마 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69년에 첫 회의를 연 이후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올해로 40회째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 일한경제협회와 이이지마 히데타케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기무라 히토시 외무성 부대신님, 도모토 아키코 치바현 지사님, 나카토미 미치타카 경산성 심의관님, 그리고 권철현 주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양국 관계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와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그 깊이를 더하고 폭을 넓혀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국 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선배 기업인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로패를 받으시는 세토 유조 명예회장님과 김상하 명예회장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올해 한국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도 새롭게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여 후쿠다 야스



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더욱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국 경제계의 탑 리더들은 「비즈니스 서미트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양국 간 협의 기관을 설치하여 부품소재 분야에서 교역의 확대·균형과 투자 및 교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환경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기업의 제휴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양국 기업인들은 이러한 합의를 실천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기술협력이 크게 늘어나 두 나라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새 정부는 규제완화, 세금, 노사관계, 외국인 생활환경 등 여러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대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기업의 투자 확대는 두 나라 사이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서브 프라임론 사태」로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한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면 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여 두 나라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에 동참하게 된다면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입니다. 지금 일중 관계가 「따뜻한 봄날」로 비유된다면, 한일 관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푸르른 신록의 계절」로 묘사되도록 하여야 하며, 앞으로 알찬 결실을 수확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저는 우리 두 나라가 상대방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경제인들이 이렇게 매년 모여서 대화하는 취지도 서로의 기대를 잘 파악하여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상도(商道)의 선각자이신 이시다 바이간 선생은 「진짜 상인은 상대방도 이익이 되고, 자기도 이익이 되는 길을 늘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협력의 정신이 우리 두 나라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모든 참석자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의견을 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일한경제협회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40回 記念 兩國頂上 祝賀 메시지

司會 : 조석래 회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그리고 한국 대통령 각하께서 본 기념대회 앞으로 보내신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쿠다 야스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메시지를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님이신 시게이에 토시노리 대사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重家 俊範

(SHIGEIE Toshinori)

駐韓日本國特命全權  
大使



서울에 있는 시게이에 토시노리라고 합니다. 후쿠다 내각 총리의 메시지를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과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일한·한일 양국 경제계 대표자 여러분, 제40회 일한경제인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1969년 1월에 열린 제1회 회의 이후 매년 빠짐없이 일한 양국에서 개최되어 온 경제인회의의 걸음은 국교정상화 이후에 일한 양국의 경제성장과 양국 간의 경제관계 강화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한경제인회의를 40년간에 걸쳐서 개최해 오신 일한경제협회, 그리고 한일경제협회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때, 그리고 4월 22일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가 한층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서 확대하여 새로운 신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결의를 새롭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 대해 다시 결의를 다졌습니다. 특히 FTA/EPA에 관해서는 협상 재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올해 6월 중에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 한일·일한 EPA는 양국 간 무역 투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연계의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EPA 협상의 초기 재개 및 타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한경제인회의에서는 벌써 이런 EPA 협상의 추진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해와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확대와 기업 간의 산업 협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4월 22일에 이뤄진 제1회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일한 간의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쌍방의 노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된 바가 있습니다. 40년이란 전통을 갖는 일한경제인회의에서도 과거 충실한 토의의 축적을 토대로 폭넓은 분야에서 대표 여러분의 식견을 빌려서 앞으로의 경제 관계 구축방면에 대해서 활발히 토의를 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도 앞으로 노력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참고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한경제인회의의 발전과 양국 경제의 교류 촉진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스오  
대독해 드렸습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주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권철현 대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權 哲 賢  
駐日大韓民國特命  
全權大使



지금부터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제40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도쿄 디즈니랜드로 잘 알려진 치바현 우라야스시에서 이처럼 뜻 깊은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민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한일경제인회의가 벌써 4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69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들 간의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교류와 유대 강화는 물론 투자 확대와 산업기술 협력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양국 경제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2월 후쿠다 총리의 방한과 4월 저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양국이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수준 높은 협력을 통해 더 큰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4월 일본 방문에서 저와 후쿠다 총리는 양국 무역의 균형적 확대를 비롯해 부품소재산업의 투자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에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조업을 넘

어 서비스업과 에너지·환경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양국 기업인들이 논의한 BSR(비즈니스 서밋라운드) 테이블의 결과를 보고받으며,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 재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상 간의 좋은 합의와 기대도 기업과 경제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을 꿰어 합의를 실현해 가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모이신 경제인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여러분께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며, 미래지향적 관계의 진전도 바로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일본 경제단체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규제를 풀고 친(親)기업 정책을 추진하며, 일본기업의 대한민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빨리 실천으로 옮겨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신(新)기업 대한민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지난 4월 정상 간 경제 합의를 구체화하고, 기업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한일·일한 경제인회의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대독해 드렸습니다.

### (3) 來賓祝辭

司會 :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40회 기념대회를 위해 양국의 내빈 여러분으로

부터 축사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측 내빈인 외무성 기무라 히토시 부대신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기무라 부대신님, 잘 부탁드립니다.

木村 仁  
(KIMURA Hitoshi)  
外務省 外務副大臣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이이지마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일한 양국 경제계 대표여러분, 외무성 대신을 대신하여 제40회 일한경제인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대표단 여러분의 방일을 환영합니다. 한일 수교 직후인 1969년 첫 발을 내딛은 일한·한일 경제인회의는 그야말로 양국의 경제 관계와 경제계의 우호 친선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고 말씀드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간의 일한경제협회 및 한일경제협회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 번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한일 수교 당시 불과 만 명이었던 양국 간 인적왕래는 작년에 하루에 만 명을 훨씬 넘는 연간 500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양국 국민 간 교류는 꾸준히 심화·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 간 교류의 심화 및 확대는 양국의 강력한 경제 관계에 기인하는 바가 큼니다. 실제로 양국 간 무역은 통계에 의하면 1965년 당시 2.2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에는 그 370배에 해당하는 814억불을 기록하는 등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월에 개최된 정상회담 때 후쿠다 야스오 총리대신과 이명박 대통령 간에 양국 관계를 한층 성숙된 파트너십 관계로 확대하여 일한·한일 시대를 개척해 나가자고 하는 결의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양국 경

제계 여러분들께서는 양국 정상과의 이와 같은 분위기와 기운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도 계속 양국 관계 강화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한일 양국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긴급한 과제, 그것은 일한·한일 경제연계협정 FTA/EPA의 조기 협상 재개 및 타결입니다. 작년에 개최되었던 제39회 일한·한일 경제인회의에서는 양국의 FTA/EPA 조기협상 재개와 체결을 강력히 바란다고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바 있으며, 이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 경제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4월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FTA/EPA 협상 재개를 위하여 검토를 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올해 6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측에는 일본과의 FTA/EPA 체결과 관련해서 이를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한·한일 FTA/EPA는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 그리고 양국의 경제 경쟁력 강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연계 촉진, 그리고 양국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틀림없이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FTA/EPA 협상의 조기 재개 및 타결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지지와 건의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력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한·한일 경제인회의의 성공과 발전, 그리고 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인 여러분의 교류 촉진을 기원드리며, 저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성 대신님의 축사를, 경제산업성 대신 관방심의관을 맡고 계시는 나카토미 미치타카 심의관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中富 道隆

(NAKATOMI Michitaka)

經濟産業省大臣官房

審議官(通商政策局擔當)



아마리 경제산업성 대신님께서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습시다만, 일본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님의 메시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한일·일한 양국의 경제계 대표 여러분, 오늘 제40회 일한·한일 경제인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번 경제인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벌써 지난 두 달 반 사이에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올해 안에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 관계에서 이처럼 빈번하게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한·한일 관계가 진정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된다는 면에서 참으로 멋진 스타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며,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무역 입국이라는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통의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이와 같은 공통 과제를 토대로 하여 양국 관계를 한층 높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제 분야, 국제적인 과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신시대를 개척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양국 경제계 여러분들 과도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번 제40회 경제인회의의 주제는 「양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경제 연계」, 그리고 「양국 간 균형 있는 무역 확대를 위하여」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대신으로서 금번 테마와 관련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미 성숙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국이 앞으로도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 양자 간 관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격한 성장에 예견되는 지역에서의 사업 전개가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일·일한 양국은 세계의 경제 성장 센터인 아시아에 위치합니다. 본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선진국으로서, 이 지역의 성장 발전을 위해 공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전부터 ASEAN+6에서의 FTA/EPA를 제창해 왔으며, 이 역내 교류의 활성화가 한일 양국의 공통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시아에서 선진국인 우리 두 나라가 아시아에서 리더십 발휘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초기에 FTA/EPA를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 기업의 국제 분업 체제 또한 지역적 생산 네트워크 발전을 통해서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ASEAN+6의 FTA/EPA를 체결하는 것이 양국 공통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일한 양국의 FTA/EPA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6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무쪼록 일한·한일 FTA/EPA 협상 재개를 위한 검토가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한·한일 양국은 이미 정보통신기기나 디지털 가전 분야 등에서 상호 비교 우위에 의거한 호혜적 분업 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WIN-WIN 관계 하에서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양국 산업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형태로 양국 경제 협력관계가 FTA/EPA를 통해서 구축되고, 아시아 전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로서도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양국 경제계 리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한일 관계의 심화의 중요성이나 적극적인 의의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 일한·한일 경제인회의가 양국에 신뢰와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며, 한일 신시대 구축에 이바지하길 기원하며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경제산업성 대신 아마리 아키라  
이상 대독해 드렸습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모토 아키코  
치바현 지사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堂本 暁子  
(DOMOTO Akiko)  
千葉縣 知事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0회 기념대회를 맞이하게 된 일한경제인회의를 치바현 우라야스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600만 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올해 2월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일한 관계는 대단히 많은 진전을 했고, 미래지향적인 일한 신시대가 도래

했다는 기대가 많이 부각되면서 저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 이루어진 일한 정상회담에서는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되었던 EPA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는 합의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6월에 다시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역 총액도 늘고, 6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교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류 붐이나 일류붐 같은 것이 그 저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류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입니다. 밤늦게 잠이 오는데도 TV를 켜서 드라마 「겨울연가」를 보면서 울고 웃었고, 옛날 한국의 궁중 요리를 보면서 ‘맛있겠네’ 하고 입맛을 다시곤 했습니다. 치바현은 김이 많이 나는 곳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따끈한 밥에 한국의 김을 말아서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김치도 무척 좋아합니다. 이런 한류붐이 양국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한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일한경제인회의의 이념과 성과를 공동성명으로 양국 정부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더 많은 기대가 걸려 있다고 봅니다. 하네다에서 방일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치바현에는 나리타공항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나리타-서울 간 100여 편의 비행기가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내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등의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또한 500명이 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치바 대학교를 비롯한 현 내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배우고 있고, 1992년부터는 프로야구 롯데 마린즈가 치바현을 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바현과 한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바현에는 골프장과 온천, 산해진미 등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께서도 즐겨 찾으시는 곳입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본에 관광한 곳 중 어디를 추천하고 싶은가?」하는 질문을 했는데, 「치바현이 좋았다, 일본에서 최고였다」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답변하신 분들이 ‘디즈니랜드를 가셨을까, 골프를 치셨을까’ 생각하면서 기쁘게 신문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국제 관광전(KOTFA)」이 개최될 예정이고, 여기에 치바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쌍방향의 관광 교류도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조석래 회장님께서 「일중 관계는 따뜻한 봄이다, 그렇지만 일한 관계는 초록이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치바현은 신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신록 속에서 개최되는 일한·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앞날을 상징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의 성과, 양국의 긴밀한 경제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길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도모토 지사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측 내빈께서 나오셨습니다. 권철현 주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권 대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權 哲 賢  
駐日大韓民國特命  
全權大使

지금 소개받은 주일  
대사 권철현입니다. 대



사로 부임해서 아직 한 달이 되지 않는 일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의 40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0년이란 세월이 어떤 세월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말에 「10년이면 산천도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산천의 변화가 네 번이나 바뀌었을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40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많은 대화와 협력에 의해서 40년간 교역 규모가 근 400배로 확대되고, 양국의 방문객수가 500만을 넘어가는 성과를 이루게 된 것도 40년 회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한일 관계가 참으로 위험한 때도 많았고, 안타까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게 된 것은 40년간 노력해 주신 경제인 여러분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 의미를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의미는 40년간 이렇게 노력해 온 여러분들이 지금도 더 큰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 장래에, 아니 가까운 장래에 더 큰 희망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본측 회장님과 조석래 한국측 회장님을 비롯한 양측 경제인 여러분들께 정말 뜨거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일본 쓰쿠바 대학에 유학을 해서 쓰쿠바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유학생 출신입니다. 그때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친절한 일본인 덕분에 얼마나 행복했던지, 대학 교수 생활을 20년 하면서 일본의 대학에 와서 강의하기도 하고, 일본의 교수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함께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12년간 국회의원 생활

을 하면서, 한일의원연맹의 간사장 시절 일본의 많은 정치인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많은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분들에게 받은 고마움, ‘내가 언제 이 은혜를 갚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자들의 좋지 못한 행동과 지도자급들의 망언 등으로 인해 우리들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그런 아픔도 느껴 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느낀 것은 우리들의 노력도 소중하지만, 결국 최고 지도자들의 확실한 신념과 의지, 실천력이 없다면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못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아픔도 맛보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금년 들어와서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저와 양국 국민들의 기대가 모두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과 4월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아픈 과거사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역사는 직시하되 가슴에 묻고 미래지향적·창조적인 실용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를 한층 강화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쿠다 총리께서도 한일 관계의 신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몇 차례나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양국 간의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 분야, 에너지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번이 어쩌면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며, 한

일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일부 언론의 비난을 무릅쓰고도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겠다.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본 대사를 지냈던 유명환 대사를 한국의 외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하셨습니다. 유학생 출신에 정치인인 저를, 정치를 그만두게 하고 일본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양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기회가 찾아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때에 일방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무역적자의 누적이 계속된다면 한국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들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실용외교 결과가 이것들이냐,」라는 비난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양국 경제인들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협력 같은 것을, 저희들은 말만 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부품소재 공단을 조성하고, 규제와 법인세를 완화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서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일본의 많은 경제인들께서 대한 투자를 확대시켜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을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2년 후인 2010년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즉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한 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은 분명하리라 믿습



니다. 그 때가 되면 한일 간 100년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한국에서는 이곳저곳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격렬한 토론들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8년과 2009년 양국 정상은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40년째 계속되는 여러분의 노력이 힘을 더해서 가슴을 열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한다면, 2010년의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후쿠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한일 관계의 신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평화로운 양국의 관계가 오래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2008년, 2009년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같은 이러한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지 저희에게 더 깨닫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의는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의 수뇌 회동 이후 처음 열리는, 민간 레벨에서의 최고의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에서 정상 간에 논의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협의 방안이 논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 또한 주일대사로서 경제인 여러분들의 좋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한일 관계의 조그만 다리가 되어서 제가 젊은 날에 살아보았던 이곳에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경제인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빌면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4) 特別功勞賞・感謝狀 施賞 및 人事

司會 : 대사님 감사합니다. 내빈 여러분께 축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로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본 시상식은 제40회 경제인회의를 기념하여 양

협회에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신 공로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표창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일한경제협회의 명예회장님이신 세토 유조 명예회장님에 대한 감사장을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님께서 증정하시겠습니다.

#### <감사장>

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명예회장  
세토 유조 귀하

귀하께서는 일한경제협회의 제6대 회장으로서, 또한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제3대 이사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셨으며, 한일 양국의 경제 산업기술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셨습니다. 특히 「한일 고교생 교류 사업」을 창설하셨으며, 양국 청소년 교류 및 육성에 진력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일·일한 우호관계 증진과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회장 조석래  
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회장 이이지마 히데타네

司會 :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일경제협회 김상하 명예회장님에 대한 특별공로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일한경제협회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께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 <특별공로상>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  
김상하 귀하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의 제7대, 제8대 회장 및 재단법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제3대, 제4대 이사장으로서 일본과 한국 양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기술 협력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일한 우호증진에 기여하셨습니다.

니다. 그 커다란 공적과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에서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맞이하여 이에 감사패를 증정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회장 이이지마 히데타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회장 조석래

축하드립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수상을 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토 유조 명예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瀬戸 雄三

(SETO Yuzo)

(社)日韓經濟協會

名譽會長



방금 소개받은 세토입니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으로부터 훌륭한 감사패를 받게 되어 지금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40회 일한·한일경제인회의가 열리는 기념할 만한 해입니다. 이런 해에 이와 같은 감사패를 받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2년에 그동안 한일 관계의 우호를 위해서 진력하신 후지무라 전 회장님의 뒤를 이어서 일한경제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현 이이지마 회장님께 바통을 넘겨 드렸습니다. 그 4년 동안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절이었습니다. 때로는 산도 있고, 때로는 계곡도 있는, 우여곡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계 여러분들께서 저

회들을 깊이 이해해 주셨고, 바닥에 있을 때, 정말 어려울 때에도 그 우정을 저버리지 않고 더욱더 그 우정을 심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3년 때의 일입니다만, 그 당시 한일경제협회의 회장으로 계셨던 김상하 회장님과 비행기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서울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와 김상하 회장님은 '한일 관계를 더 탄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까 조석래 회장님께서 해 주셨던 '고등학생 교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이이지마·조석래 회장님 대까지 계승이 되어 지금 아홉 번째 고등학생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시 김상하 회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어떻게 양국간에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매년 상담회가 개최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이이지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조직에서 지금 더욱더 강력한 중소기업 교류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커다란 추억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서울에서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개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데모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석래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경제인회의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드렸더니, 조석래 회장님께서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훌륭하게 경제인 회의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정말 고무적인, 마음 든든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단상에 서면서 그간의 여러 가지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늘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분들께 많은 것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 경제인 여러분들께 참으로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오늘 이렇게 표창을 받게 되어서 정말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양국 관계가 증진되고 우호관계가 심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감사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김상하 명예회장님께 감사인사를 부탁드립니다.

金 相 廈  
(社)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오늘 제40회 한일 경제인회의를 기념해서 마련된, 영예로운 특별공로상을 제가 평소에도 깊이 존경하고, 아까 세토 유조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귀한 업적을 쌓으신 세토 유조 회장님과 함께 대기실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둘이 쌍으로, 세트로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나눴는데, 세토 회장님과 같이 받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의(謝意)를 표합니다. 또한 그 동안 다소 소원했던 양국 관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

로운 한일 신시대가 열리는 이 시기에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고 첫 번째로 맞은 1998년 일본의 미야자키에서 있었던, 꼭 10년 전입니다만, 제30회 한일경제인회의가 한국의 외환위기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한국측 회장단 및 후지무라 마사야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측 여러분께 의논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야 한다.』는 말씀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무사히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한일 양국 기업인들의 신뢰와 우정으로 뭉쳐진, 저력 있는 한일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 상에 담겨진 뜻이, 『선배 경제인들이 남긴 한일 우호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여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관계로 만들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한일 간 경제 교류 및 선린우호 증진에 미력하나마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한일 양국 경제인들의 건승과 양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또한 이 경제인회의가 더욱더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가교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개회식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Coffee Break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 앞 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진행이 예정보다 약간 당겨지고 있습니다. 16시 10분까지 Coffee Break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16시 10분부터 기념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착석하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ffee Break>

## 2. 記念講演

司會 : 지금부터 제40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를 기념하는 기념 강연 등 오늘의 주요 의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동의장인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과 조석래 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團長 : 그럼 지금부터 조석래 회장님과 둘이서 공동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념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측 강연이 있고, 이후에 한국측 강연이 있겠습니다. 일본측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평의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니시무로 선생님께서 『일본 경단련 및 도시바와 한국과의 관계』라는 테마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니시무로 의장님께서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도시바에서 96년부터 대표 취체역(取締役) 사장, 2000년부터는 대표 취체역(取締役)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상담역을 맡고 계십니다. 2005년에 도쿄 증권거래소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또한 2001년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2002년부터는 현재의 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니시무로 의장님께서서는 명실 공히 일본 경제계의 리더로서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니시무로 의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1) 日本側 記念講演

『日本経団連 및 東芝와 韓國과의  
關係』

西室 泰三

(NISHIMURO Taizo)

(社)日本経団連

評議員會 議長



존경하는 조석래 회장님, 존경하는 이이지마 회장님, 그리고 일본과 한국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본 경단련의 미타라이 회장님께서 원래 같으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하지만,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기념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경단련과의 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도시바와 관련해서 저도 한국과 인연을 맺은 지 거의 30년을 헤아리게 되는데, 그간의 여러 에피소드와 토픽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경단련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경단련 사무국에서 저에게 발표내용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단련은 1983년부터 매년 조석래 회장님께서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시는 한국 전경련과 이른바 양국 재계 회담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해 왔습니다. 양국 경제계의 교류, 한일 경제의 강화에 힘써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23차례에 걸쳐서 양국 재계 회담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동경에서 「한일 재계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아시아에서의 양국의 역할이라

든지, 제3국에서의 양국 기업의 산업협력이라는 부분 등 양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재계 회담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에서의 양국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일한 FTA 협상 재개에 관련된 강력한 기대감이 표명되었습니다. 또 양국이 서로 공조하면서 각국이 리드를 해서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흐름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 전개와 한일 기업 간 협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각국에 있어서의 환경대응에 대해 소개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으며, 지구 온난화 문제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양국 경제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국제 표준화 진전과 관련된 제안과 중국에서의 외자 기업 현황 인식, 그리고 한일 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재계 회담 이후에 전경련 대표단 일행은 총리 대신, 자민당 사무역, 재무성 대신, 경산성 대신, 일본은행 총재를 예방해서 FTA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후 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커다란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동북아 발전」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한·중·일 3개국의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써 「한·중·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회의가 작년 10월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 한·중·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그 이전까지 5년 동안 개최가 되었던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을 개편한 회의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일본과 한국, 중국 3개국의 주요 산업의 대표 300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어

떤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기에는 참가자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차원에서 「공통 과제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반성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수로 압축을 해서 라운드 테이블 스타일로 개최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이 라운드 테이블에는 한국에서 허동수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 한국측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고, 허동수 회장님은 GS 칼텍스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소사봉 중국기업연합회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일본측에서는 평의원회의 의장인 저를 비롯하여 경단련의 관계 부회장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3개국 합해서 30명 정도의 경영진 및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경영 전략과 FTA, 또 중국의 통상 외자 이용 정책 전환과 중국 시장의 향방, 그리고 환경 에너지 절약 문제와 기업의 환경 경영 등, 이상의 테마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활기 넘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이 6년 전에 개최되었을 당시에는 3개국 간의 비즈니스맨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IT 분야나 관광 분야 등 관계 업계별로 다양한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국 경제계 대표들이 소수정예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할 수 있는 회의체는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기회를 포착해서 양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범위를 동아시아 전역으로 넓히기 위한 의견 교환,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 통합 추진에 관련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본 회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정부에게 협상 재개를 강력하게 요망했던 한·중·일 FTA 문제, 이 FTA에 관해서는 현재 3개국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단계 이후에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에서는 한·중·일 FTA를 위시한 동아시아에서의 제도적인 경제 통합·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3개국의 기업 경제 활동이라는 면에서 커다란 메리트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따라서 3개국 경제 통합을 한층 심화시킴으로써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일본 경단련과 한국 전경련 간에는 「한일·일한 관광협력회의」도 두 번 개최되었습니다. 이 관광 협력 회의는 2005년 6월에 일본 경단련이 발표한 바 있었던 건의가 있습니다. 즉, 국제 관광 입국에 관한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관광 진흥은 국가 진흥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 촉진을 통한 동아시아 문화 안전 보장으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한·중·일 관광회의의 개최를 제안하는 바이다」라는 건의에 의거해서 개최된 것입니다. 국제 관광 진흥을 동아시아의 경제 연계 촉진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2006년 9월에 일본 경단련 관광위원회와 전경련의 관광산업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된 제1차 일한·한일 관광협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입니다. 관광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관련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작년 2007년 10월에는 제2차 일한·한일 관광협력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

경단련 측에서는 미타라이 회장님을 비롯한 쓰쿠다 부회장님과 오즈카 관광위원장님 등 일본 경단련 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전경련 측에서는 금호아시아나 회장님이신 박삼구 전경련 관광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 외에도 대한항공사 사장님,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등 전경련의 관광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관광협력회의에서는 동북아 관광 ZONE 형성 방안과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를 위한 각 업계 차원의 대응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경제 연계에 관련한 일본 경단련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경단련이 「희망의 나라.일본」이라는 타이틀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와 더불어 세계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표명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축을 이루는 것이 「FTA 촉진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두 가지입니다. 「희망의 나라.일본」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일본 경단련은 비전을 공표하기에 앞서서, 또 그 직후에 두 가지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견서를 일본 정부와 관계방면에 건네 드렸습니다. 2006년 10월에 발표된 의견서가 바로 「경제연계협정 확대와 심화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의견서였습니다. 여기서는 국제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앞으로 일본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에 의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사업체제의 구축 촉진이 불가결하다는 점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연계 협정(EPA)은 이를 위한 중요한 경제 인프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큰 성장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간에 호의적인 EPA를 체결하는 것이

일본과 아시아가 세계의 성장 센터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점이 제창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와 더불어 걸어 나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그 풍요로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의 국가들과 호혜적인 EPA를 발전·확대시키고 심화시켜야 한다고 제창하고 있습니다. 즉, 동아시아와의 경제연계 중시 자세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 10월에는 「대외경제 전략 구축과 추진을 촉구한다. 부제 : 아시아와 더불어 걸어 나가는 무역입국·투자입국을 지향하여」라고 하는 의견서가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추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이념, 그리고 우리의 공통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자유무역이나 시장경제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면에서의 통합은 가능한 분야부터 촉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ASEAN+6」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로서 인도와 ASEAN, 호주·뉴질랜드와 ASEAN이 FTA 조기 체결을 강력히 기대하는 바라고 제창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된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일하셨고, 양국 정상의 요청으로 경제계 톱 리더들이 모여 「일한·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무역투자환경 정비,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중소기업 협력, 다자간 제3국에서의 공조 등 일한·한일 양국의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논의 내용을 수상 관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대신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양국 경제계가 2월에 출범한 한국의 이명박 신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대외 투자 환경 정비 개선정책 등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환영하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한 신정부의 발족이 양국 관계 강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며, 또 비즈니스 라운드 서미트 테이블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 구축을 위하여 양국 간에 더욱더 경제관계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종전 이상으로 무역 투자확대에 힘쓰겠다고 하는 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회의에서 토의한 여러 가지 항목들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역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일한 쌍방의 투자환경 정비,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한 경제의 심화된 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 기관을 설치하고, 투자환경 정비·개선과 관련된 과제를 추출하여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아시아 경제를 위해서도 타산지석으로 인식을 하여, 앞으로 세계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도 환경과 경제를 양립시키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급선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경단련과 한국 전경련 모두 환경이 자주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각각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일본에서 「G8 서미트」가 개최될 것이고, 거기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주요 테마의 하나로서 거론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과제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일한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양국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환경 에너지 절약, 지역 간 산업 교류 등의 분야에 있어서 기업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기반 정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CDM 사업 등을 포함한 지구 온난화 대책을 양국에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고 연료 전지, 태양 전지 등 구체적인 공업 제품 분야에서 협력에 대해서도 토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간의 연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양국의 부품 소재 관련한 중소기업 간의 무역과 기술 협력, 인재 협력 등 비즈니스를 기초로 하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양국의 관계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노력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양국의 상공회의소의 교류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다국간 제3국에 있어서의 한일·일한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한의 무역구조는 많은 분들에게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본이 하이테크 부품을 한국으로 공급하고, 한국에서 디지털 제품·자동차·철도·차량·선박 등 고도 가공 제품을 중국이나 구미 쪽으로 수출하면서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주목해야 할 연계로써 발해만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시도가 여러 가지 소개된 바 있습니다. 발해만 경제권에는 중국 동북부의 요녕성과 산둥성, 환동해 경제권은 러시아, 동시베리아, 연해주 등이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경제가 크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한이 일체감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물류 기능을 정비한다는 것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한의 존재감을 더욱더 높이고, 양국의 경제 관계 확대에 연결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일한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에 대해서도 토의된 바 있습니다. 경제계에 있어서 보다 나은 경제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소개되었습니다. 일한 경제계는 이런 FTA 체결이 양국 경제 관계에 호혜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중단되어 있는 일한 FTA 협상의 재개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고,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양국 정상에게 노력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본 경단련은 시종일관 일한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한 FTA를 실현시켜 양국이 견인하는 그런 식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일하시고 개최된 일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체결 협상 재개를 위해 6월에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은 실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일한·한일 경제계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일본 경단련의 주장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단련을 대표하여, 사실은 조석래 회장님께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바에 있어서 제 자신의 한국과의 경험, 추억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합해서 14년 정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12년의 주재

원 생활을 끝내고, 1978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도시바에서 저는 전자기기의 판매의 마케팅 책임자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 도시바의 전자기기 부품 수출은 북미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전자사업의 성장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고, 제 자신도 성장의 와중에 시의 적절하게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의 도시바의 입장은 결코 높은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종전부터 관계가 있던 몇몇 회사가 있었지만, 브라운관을 만드는 회사인 오리온 전기와의 관계를 제외하면 반도체 수출의 규모는 그리 조직적이지 못했고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이 제일 먼저 발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한 달에 한번 정도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전자 브랜드인 삼성, LG, 대우가 일렉트로닉스 사업을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했고, 중소 오디오 업체와 거래를 했습니다. 라디오 카세트를 위한 반도체, TV 용 반도체 등의 판매와 영업이라는 것은 기술 지원도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 회사는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기술 지원을 기피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의 기술자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등 노력을 거듭한 결과, 도시바의 반도체를 위한 TV kit를 거의 모든 한국의 TV 메이커가 사용을 하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많은 공장에 저희 회사 직원은 거의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저 또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국에 가서 공장에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했던 일은 그 기업의 경영진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일렉

트로닉스 메이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 브랜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얘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제가 그쪽 경영자 여러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경우는 당시 회장님은 자주 뵈 기회가 없었지만, 몇 번 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의 사장, 지금은 신세계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는 정재은 씨를 자주 만나 뵈 수 있었는데,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한국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포함해 일렉트로닉스야말로 장래를 향해 발전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반도체를 공급하였습니다. 당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부품도 저희가 100% 공급하였습니다. 하루는 정재은 씨가 그 부품은 자기가 제조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 부품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경위와 현재 세계의 상황과 필요한 엔지니어의 수 등 세 시간 정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 세 시간 동안 이런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만약 지금 시작하신다면 채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부품을 계속 공급하겠다고 말하며 지금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은 씨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결론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당시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일렉트로닉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로닉스 말단 부품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힘, 설령 채산이 맞지 않는 시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1982년 일본에서 나카소네 정권이 발족했습니다. 나카소네 정권의 하나의 정책으로써 「일한우호산업진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때 일본과 한국의 산업을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도시바는 오리온 전기의 주식 33%를 한국측에 양도하겠다고 하는 협상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할 필요도 없을 만큼 오리온 전기가 이미 성장을 했고, 기술도 충분히 습득을 했다, 앞으로는 기술 지원만 해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의 협상을 위해서 한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 때 김포공항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두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나고 했더니 그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저와 잠깐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KCI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저는 KCI는 미국 CIA, FBI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려운 상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프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은 지금 나카소네 정권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한일 우호 산업 진흥이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도시바의 움직임은 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책임자로서 회사 내부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협력이 아니라, 독립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을 가졌다면 기술 원조 계약은 계속하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해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처럼의 기회였으니까 그 때 KCI 본부에 찾아 갔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라는 것이 아주 긴밀하며, 동시에 한국의 산업 자체의 결심이 아주 확고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1983년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제2의 반도체 메이커가 되었습니다만, 기흥의 반도체 제1공장 낙성식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정식으로 초청받은 일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때 놀란 것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단 기간 내에 아주 첨단적인, 새로운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대단한 사업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자체가 대통령도 나와 계셨고, 삼성전자의 그 사업에 관련된 분에 대한 훈장 수여식도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산업을 육성한다는 부분에 힘을 경주한다는 증거로써, 당시 한국의 일렉트로닉스 산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한일 서로가 예전같이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司會 : 니시무로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국측 기념강연이 있겠습니다. 조석래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趙錫來 團長 : 니시무로 의장님께서 아주

솔직한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측에서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서 계시는 이희범 회장님께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한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념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희범 회장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1987년에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경영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정부의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활동하시다가, 2006년 2월에 제26대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시어 대내외적으로 경제활동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희범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 (2) 韓國側 記念講演

### 『東北亞 經濟 共同體 構成을 위한 韓日 兩國間 協力強化 方案』

李 熙 範

(社)韓國貿易協會 會長  
前 産業資源部 長官



조석래 회장님, 좋은 소개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한일경제인회의가 40회를 맞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민간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1969년 시작된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40년 동안 한일 양국 경제인들의 교류와 대화의 장으로써 한일 양국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과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양측 사무국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권철현 주일본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님과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 일본 특명전권대사님, 또 오늘 영예의 감사장을 받으신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명예회장님,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님을 비롯해서 한일 양국의 저명한 기업인을 모신 가운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니시무로 의장님의 경우처럼 구체적이지는 못하고, 일반적인 논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공생관계

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가운데 양국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렸고, 앞으로도 서틀외교를 통해 현안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한중 FTA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가 완료되고, 역시 6월에 한일 FTA/EPA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과 이에 따른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해도 지리는 변하지 않는다(Everything changes but geograph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군사전략을 공부하는 미국의 National War College의 현관 계단 벽에 걸린 지도에 붙어있는 글귀인데, 한국과 일본의 필연적 관계를 잘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일본에 와서 후쿠다 총리대신을 비롯한 몇 분의 장관님을 뵈후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아침에 회의에 참석하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의 지리적 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일본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포에서 하네다까지는 한 시간 반이 소요가 되지만, 한국 육지를 벗어나서 일본 육지에 이르기까지는 비행기로 단 20분 만에 일본 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720여 년 전인 고려 후기 승려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의 연오랑, 세오녀 부부가 일본에 「빛」을 건네주고 왕과 왕비로 추대되었다는 민중설화가 나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아주 오래 전인 고대 시절부터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일 양국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을 공유해 왔습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의 교류와 교역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한일 양국 간 교역액은 827억 달러로, 이는 1965년 국교 수교 당시 약 2억 달러에 비해 414배나 신장한 것입니다. 2003년 이후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일본과의 교역 비중이 다소 위축되었으나, 일본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자 2위 수입국입니다. 한국도 일본의 3위 수출국이자 6위의 수입국으로 일본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면에서 2007년 말까지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건수로 총 9,955건, 금액으로는 20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 건수의 25%, 금액으로는 15%에 해당합니다. 특히 일본의 대한투자는 1962년부터 1979년까지 전체 외국인 투자 건수의 77%, 금액의 61%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산업화 진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설치 등 투자 인센티브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조립업종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기술격차의 축소로 양국 경제 관계도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경쟁구조로 변화하고, 투자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 투자 패턴은 1997년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전기·전자, 기계, 섬유, 금속 등 2차 산업에서 금융·보험,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업, 문화·오락, 통신, 도·소매 등 3차 산업으로 투자 영역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인적, 문화적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일본에게 있어 한국은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였으며, 한국에게 있어 일본은 근대화 및 산업화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인적 교류 면에서도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인적 왕래는 연간 1만 명 정도였으나, 2007년에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총 260만 명, 한

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총 220만 명으로 약 480만 명이 교류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양국의 총 외국인 입국자수 1,470만 명의 33%에 해당합니다. 작년도 한·일·중 3국의 전체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4,100만 명 중 40%인 1,560만 명이 역내 관광객이었습니다. 문화면에서도 일본의 대중문화가 1998년 한국에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영화와 대중가요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겨울연가』를 비롯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가 일본에서 『한류』바람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한국 TV와 극장에서도 일본 영화는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눈물이 주룩주룩』이란 일본 영화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보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 경제교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먼저 한일 양국의 무역불균형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1994년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매년 늘어나 2007년에는 29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1965년 이후 누적 적자액은 3,112억 달러로, 이는 지난해 한국의 총 외채액인 3,806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전체무역 중에서 일본에 대한 비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 수출 중에서 대일 수출비중은 1970년 28.1%에서 지난해에는 7.1%로 감소하였고, 한국의 총수입 중에서 대일 수입 비중도 1970년 40.8%에서 작년에는 15.8%로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한일 간의 교역은 일부 품목, 일부 기업에 의한 편중도가 높습니다. 한국의 대일본 수출 중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전체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IT제품, 철강재 등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이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면에서도 상위 30대 기업의 수출비중이 51.5%를 차지하여 한국의 중

소기업들에게 일본 시장은 그만큼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대외지향적 정책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개방화 및 지역주의적 경제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으나, 과거에 얽매어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미래의 공동번영을 위해 서로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한일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한일 간 무역불균형은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출발하나, 투자의 불균형 등으로 유발된 측면도 강합니다. 교역과 투자확대를 위해 일본측이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첫째,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애로 요인 해소 등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의 70%인 210억 달러를 소재·부품, 반제품 등의 중간재가 차지한 사실에서 볼 때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둘째, 한국기업의 대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해외투자 패턴이 저임금 활용에서 현지화, 글로벌화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기업의 일본 투자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제거에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기업들은 일본의 전자제품 인증검사가 국제표준보다 까다롭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제를 포함한 위생기준도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경쟁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국측도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대표하는 Seoul Japan Club(SJC)은 매년 한국 내 기업 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한국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의 절반이 노사문제였으나 새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기업 규제해소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미 절반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70%가 본사보다 자산수익률(ROA)이 높았습니다. 2006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조사에서도 아시아에 진출한 일본기업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일 기업 간 합작투자, 기술제휴,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과 기금조성도 필요합니다. 「한일 교역 및 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상 애로 요인 발굴 및 개선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한일 FTA/EPA 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에 양국 정상은 6월부터 실무협의를 개시키로 합의하였습니다. 한일 FTA/EPA의 체결은 궁극적으로 중국, ASEAN을 포함시킨 아시아 경제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문화적 교류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학 간 커리큘럼을 교환하고, 공동학점제를 인정하며 역내 유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양국 정상은

연간 3000명에 이르는 워킹홀리데이, 즉 취업관광사증제도 참가자를 2009년에는 7200명으로 확대한 후에 2012년까지 10000명으로 늘리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유학생 교류를 향후 3년간에 새로이 1500명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전문가들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상회의를 수행하는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투자환경의 개선, 환경에너지 절약, 산업협력, 부품소재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한일 FTA/EPA 교섭 재개 등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양측 재계 대표들은 올 가을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 협의체를 두어서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설립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는 총 8차례의 관세인하 협상을 통해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을 39.5%에서 4.7%로 인하시켰습니다. 또한 1995년에 발족된 WTO(세계무역기구)체제는 상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에 대한 교역장벽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하여 대외 교역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더욱 촉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DDA(도하개발 아젠다)협상이 중단되면서 세계 각국은 다자협상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국가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952년 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으로 시작된 유럽통합은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역주의는 이념과 체제를 넘어 경제적 득실에 따라 보편화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90건이 넘는 지역무

역협정이 체결되었거나 발효 중이며, 이들 국가 간의 교역비중은 세계 교역의 5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인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FTA 그리고 한국·일본·중국의 동북아는 세계경제를 이끄는 3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일본·중국의 동북아 3국은 세계 인구의 약 23%, 세계 GDP의 16%, 세계 무역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동북아 3국이 세계 GDP의 약 50%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일본·중국은 모두 ASEAN과 FTA를 체결하거나 협정이 발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일·한중·일중 간에는 지역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서리모양, 즉 「Frost shape」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일본·중국 등 3국간에 FTA가 체결되면 ASEAN을 중심으로 한 별모양, 즉 「Star shape」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Star shape」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협력은 궁극적으로 상품에 대한 역내 교역관세 철폐를 넘어 자본·서비스·사람(전문가) 등 4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FROST shape」와 「STAR shape」는 자료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실용」의 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일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 5월 초의 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양국 수뇌의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를 개최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비춰볼 때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간의 협력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성 전후의 모습>

[구성 전: FROST shape]



[구성 후: STAR shape]



- 주: 1. GDP는 06년 기준 World Bank 통계 인용 (한국, 중국은 07년)  
 2. 무역규모는 07년 기준 자국통계 인용 (단 중일 교역은 일본통계 엔/달러 연평균환율 사용)  
 3. 입국자수는 07년 기준 자국 입국자 통계 인용

지난 4월 북경에서 개최된 한국과 일본, 중국의 현인회의에서는 세 나라간의 발전

적 미래관계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실무차원의 협의체와 함께 각 분야별로 각료회담, 더 나아가서 한·일·중 세 나라의 정상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 주도의 경제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민간 경제협력의 주요 채널로 자리매김한 한일경제인회의가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긴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 간의 대학생 상호 교류와 학점 공동인정제, 공동커리큘럼 개발 등 대학 간 협력의 강화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환경·에너지·기술표준 등 쉬운 과제부터 협력이 필요합니다. 동북아 3국은 세계 원유의 약 20%를 소비하고 있으며, 자원의 공동 개발과 공동비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협력은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아시아 표준기구의 설립 등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향후 경제통합을 위한 스탠더드가 갖추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지역 출신인 Robert Schuman은 1950년 프랑스 외무장관에 취임하자 유럽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독일과 프랑스 간 갈등해소가 선행조건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는 두 나라의 공동산업인 석탄과 철강을 매개체로 하여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유럽통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북아에 있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은 미래를 내다보는 「실용」의 정신으로 성공적인 한일 FTA 체결을 이뤄내어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 원고를 정리한 다음에 작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된 39회 경제인회



의에서 김상하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또 2006년 5월 삿포로에서 개최된 38회 경제인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대단한 발견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작년에 김상하 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또 2006년에 손경식 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일본 측이 발표한 내용이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맥락은 똑같았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변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변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사고가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공존·공생·평화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선도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趙錫來 團長** : 이희범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이지마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團長** : 니시무로 회장님, 이희범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Global Thinking, Local Action」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세계화 시대의 기업 경영과 글로벌 시대 한일 양국의 방향을 여타 지역과의 관계와 함께 생각해야 되겠다고 하시며, 두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진 나라인가 하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셨습니다. 내일 제1세션, 제2세션에서 논의되는 테마와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정보가 개진되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분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 3. 經過報告

飯島 英胤 團長 : 그러면 신산업무역회의의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산업무역회의는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에서 각각 다른 두 가지 테마와 관련해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진지한 검토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9회 신산업무역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활동 중에서 두 전문위원회의 활동에 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측, 한국측에서 각각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측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일본측 회장을 맡아 주셨던 아소 유타카 회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韓日新産業貿易會議 報告

麻生 泰  
(ASO Yutaka)  
麻生LAFARGE  
CEMENT(株) 社長



그러면 일한·한일 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일한 간 경제 교류와 경제 협력, 인재 교류, 앞으로의 무역 확대와 관련한 공통 과제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제9회 회의는 작년 11월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측 35명, 한국측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제9회 회의는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 제3세션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각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한 활동의 중간보고가 이루어졌고, 이

에 관련된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제1세션은 저출산과 기업경영 전문위원회, 제3세션은 한일 기업 간 협력 전문위원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각각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투자 확대에 관해서 양국 간에 인식을 공유하고자 최근 수 년 동안 한일 간 투자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출산과 기업경영 전문위원회에 관련된 보고입니다. 이것은 일본측이 담당한 저출산과 기업경영 전문위원회에 관련된 보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여성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양국이 여성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는 점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기업 측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인력의 활용입니다. 특히 고급 전문 능력·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계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자격증을 일본에서 활용할 수 없겠는가 또는 일본의 자격증을 한국에서 활용할 수 없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양자 간 매칭을 통해서 한일 간 친선을 도모하고, 양국의 문제를 해결해 WIN-WIN의 관계를 도출해 나가는 그러한 인재교류 촉진과 관련한 자격 공통화, 체류기간 장기화라는 테마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한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인력이 사회 활동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업도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앞으로 저출산과

인력부족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커다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5가지 분야에서 현황을 산업계와 지자체,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대책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란 주제는 역시 경영 TOP, 즉 회사의 사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매력 있는 조직이 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의 경우 입사하는 것뿐 아니라 장기근속을 시킬 수 있도록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기업과 지자체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세대 가족의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적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관여가 3세대 가족 제도와 관련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역시 육아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설의 비용과 관련해서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기에 이런 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여자들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을 중심으로 한 정부 시책의 개선을 통해서 세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던 5가지 분야는 완전히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대책과 연동시키면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결혼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기업에서 커리어도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측도 이러한 여건을 준비함으로써 능력 있는 여성들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저출산·고령화에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하

는 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껏 여러 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저는 그 중에 몇 차례밖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 회원사 중에서 여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가 발표된 적도 있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을 이렇게 극복했다는 사례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두 오픈하면서 회원사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역시 경제인회의의 커다란 매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국측에서 LG와 아시아나 항공이 들어오셔서 한국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는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상호간에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격 공통화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지만, 저는 수요가 있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4개의 자격에 대한 공통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IT 기술자입니다. 두 번째는 CG 컴퓨터 그래픽 기술자입니다. 세 번째가 미용사 자격증입니다. 네 번째는 투어 컨덕터라고 하는 통역 가이드, 여행수행안내원입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일 간 자격 상호 인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한 취업 비자도 좀 더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기간도 지금은 1년에서 3년으로 한정적인데, 그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고, 이것을 정부가 승인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IT 기술자에 대해서는 이미 2001년부터 초급수준의 3개 자격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 제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중급·상급 레벨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구현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양국의 고급 능력자들의 고용 능력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제 경험상 같은 직장에서 외국인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많이 부족한 국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자동적으로 직장에서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국 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강화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제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면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수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IT 기술자입니다. 일본에서는 IT 기술자가 부족합니다. 한국·중국과 같은 아시아의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IT 선진국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IT 인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 그래픽 기술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현현실은 제작부분에서 아시아나 한국에 큰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애니메이션 시장도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가 한국에 침투하고 있어서 상호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용사 자격증입니다. 왜 미용사 자격증이냐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일본의 고용 여건이 아주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용사 지망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미용사 부족이라는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인력에 대한 취업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투어 컨덕터 혹은 가이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일 간 교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500만 명 가

운 숫자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 중에서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국인이 일본을 안내해 준다든지, 또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다는지 하는 이런 부분이 구현된다면 관심도 더해지고 새로운 재방문자도 늘어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 업계 분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상 네 가지 자격증의 공통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격 공통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양국 간 자격이 동등할 경우에는 상호 인증을 하며, 레벨이 다른 경우에는 간이취득이라는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IT 기술자, 미용사는 상호 인증의 대상이 될 것이고, CG 기술자나 여행 가이드는 간이취득이란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재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격 공통화 뿐 아니라 일본 체제기간의 완화라는 것도 동시에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1년 내지 3년이라는 단기 체제지만 이것을 5년으로 장기화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자격의 공통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활동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는 올해도 행동과 실천을 하자는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벽과 행정의 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선택한 네 가지 테마는 수요도 있고, 실현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일 양국의 프로페셔널들이 서로 직장을 공유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이해도 심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선 교류가 비즈니스로 전개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교류로 발전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자신도 이 위원회에 몇 차례 참석을 하고 회원사들의 제안을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돌파구 마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에 이상 제안을 드리는 바이오니 그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飯島 英胤 團長** : 감사합니다. 저출산, 기업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한일 간의 공통된 문제이고, 자격의 상호 인증 활용이라는 문제도 일한·한일 하나의 노동 시장화를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구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뜻을 살릴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측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석래 회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趙錫來 團長** : 다시 한 번 아소 사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국측 전문위원회의 한일 기업간 협력 활동 보고에 대해서 한국측 체어맨인 한국무역협회 유창무 부회장이 참석을 못한 관계로 대리로서 우리 사무국인 한일경제협회 허남정 전무이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남정 전무이사, 보고 부탁드립니다.

**許 南 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허남정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

축의 필요성과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 증대 등으로 한일 기업 간의 협력 필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일 기업 간 협력 지원 전략으로 크게 한일 대기업 간 협력, 한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한일 중소기업 간 협력, 한일 기업 간 협력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특히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과제로 중소기업 간 협력과 인적 교류 강화, 정보 교류 활성화 방안과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 또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형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망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기업이라는 형태를 지니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품질 개선 및 원가 절감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모두 제조업 기피 현상 때문에 제조업 분야의 양국 중소기업들은 후계자 양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한일 협력 사업으로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적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국의 IT 분야 기능자의 일본 취업을 확대하고, 일본 퇴직 기술자의 한국에서의 재취업을 위한 인재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한국의 유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일본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일본의 숙련된 기술자가 퇴직 후 한국의 기업으로 옮겨와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환

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보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주요 산업별 한일 기술 표준화 실현을 위한 기술표준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가전 등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분야의 기술표준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수 있으며, 차세대 신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조업 중에서도 양국 간 표준이 달라 교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품소재 품목의 각종 기준, 규격 등의 상호 인증 및 통일을 통해 양국 부품 산업 협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소비재 규격의 단일화 등 KS와 JIS를 통일하기 위해 시범 업종 및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일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대한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활동이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 및 일본 기업들이 국내 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한일 간에 현안이 되어 있는 대일 무역 적자 문제도 국내 대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가 유지될 경우에 국내 부품소재 산업이 발전하고, 일본 기업 등 해외 부품소재 기업이 국내에 투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호적인 대일관계 형성을 위한 여론 조성입니다. 약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반일감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언론기관이 앞장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프로그램이나 기사를 자제하고,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한일 관계를 부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내 기업이 원하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일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일본 기업과 가장 원하는 협력 형태는 대일 수출의 확대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일본 기업이 원하는 한일 기업 간 연계 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기업, 특히 일본 중소기업 중에는 최근 한국 기업과의 상호보완을 원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호보완 형태로 한국 기업의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 시장 개척 및 확대, 상호 기술 노하우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한국 기업에 대한 생산 위탁, 상호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 진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한국 기업 정보는 물론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한국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원하는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 기업에 대한 제안 의견입니다. 첫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본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상거래 등 일본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

시장 개척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단 성사된 거래에 대해서는 장기간 유지되고, 또 다른 비즈니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둘째, 기술력 향상 등을 통한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본 기업이 동반자로서의 한국 기업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나 한국 기업 경계론을 지양하고, 한일 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자국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WIN-WIN할 수 있는 한일 경제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한일 기업 간의 협력 형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한일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한국측 전문위원회의 제안 의견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협력과제는 별첨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趙錫來 團長** : 허남정 전무이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주 솔직한 제안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일 간 투자 확대에 대해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내일의 의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해주신 일본측의 저출산과 기업 경영, 한국측의 한일 간의 기업 연계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제안이나 질문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을 하실 때는 먼저 회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산업무역회의의 두 전문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승인된 걸

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飯島 英胤 團長** : 그럼 다음으로 금년도 신산업무역회의 전문위원회의 활동 방침에 대해서 아소 চে어맨으로부터 제안이 있겠습니다.

**麻生 泰(ASO Yutaka) চে어맨** : 작년 회의에서 최근 투자 현황에 대한 인식 공유를 도모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투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한일 간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환경, 즉 세제나 인·허가, 노사문제 등의 형성에 대한 과제와 개선책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서 일본 분과회, 한국 분과회를 각각 설치하여 구체적인 투자 과제와 해결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한 간의 투자 확대는 양국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으로 합의에 이르렀던 일한 간의 투자환경 개선과 일치하는 프로젝트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회의는 금년 12월경에 신산업무역회의를 한국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飯島 英胤 團長** :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활동 방침으로서 투자 문제를 거론하고, 또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하부에 일본측, 한국측에 분과회를 설치해서 폭넓게 현상과 과제, 그 대책에 대해서 토의를 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석래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일한 관계는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방향으로 앞으로도 조정기간이 설치되어 검토가 되어갈 것이고, 그러한 회의에 대

한 경제인회의의 제안으로도 연결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금년도 활동 방침에 대해 승인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협회활동과 관련된 일반 보고를 다케자와 전무이사님께 부탁드립니다.

## (2) 一般經過報告 (協會活動)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武澤 泰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許 南 整

지난 1년 동안 양국 협회가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일한 양 협회 공동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제인 회의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립니다. 제 39회 경제인회의는 2007년 4월 12일과 13일 양 일간에 걸쳐서 한국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측에서 197명, 일본측에서 115명이 참석하였으며,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9회 회의의 특징은 이 회의의 결의에 의거하여 양국 정상에게 일한 FTA 조기 협상 재개와 체결에 관련된 요망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공동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한일 청소년 교류 사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고교생 교류 캠프입니다. 제9회 교류 캠프가 2007년 8월 동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10회 캠프는 한국 일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고교생 교류 캠프는 10회까지 개최되었고, 과거 10회의 참가자 수는 합계 919명이며, 한 회 평균 92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 학생 미래회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고교생 교류캠프 출신 OB들이 캠프에 참가하면서 쌓은 우정과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한일 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테마와 관련해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작년도 사업으로서 2008년 2월에 미래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회의에 총 45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교류 사업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가자들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도부터는 일본 정부의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이라고 하는 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일본 외무성 예산으로 실시되며, 내용 또한 한층 확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8월에 제11회 고교생 교류 캠프가 개최됩니다. 다음으로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에 관련된 내용인데, 방금 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한경제협회 단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제1회 일한경제심포지엄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의 주제는 「일한 경제 교류의 긴밀화를 위하여」였습니다. 강사로서 전 외무성 심의관님이신 다나카 히토시씨를 모셨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국가경영전략 연구원의 양수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두 강사님을 모신 가운데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경제계와 정부 관계자 160명이 참석하셔서 아주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일한경제협회의 조사·홍보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일한경제협회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조사·홍보활동을 더욱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써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월간 협회 북, 주보, 비정기 분석 리포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지 발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용을 더욱더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원 간담회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2번씩 개최했었는데, 작년에는 4번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격월로 연간 6회 개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회원들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산업계·학계·관료계 등 여러 강사님들을 모셔서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도 확충해서 연간 30,000건으로 꾸준히 접속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경제협회 단독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과 큐슈 간 경제교류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제14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한국-일본 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도 작년 11월에 개최되었습니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도 작년 11월에 개최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한국 기업의 대일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일 비즈니스 상담회가 작년 10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상 일한경제협회·한일경제협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렸으며,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飯島 英胤 團長 :** 이상으로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늘 경제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자 여러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이 시간 이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 반부터 양국 경제협회 공동 주최 리셉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장과 바로 옆 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리셉션은 6시 반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동안 환담을 나누실 수 있도록 로비에 카테일 바를 마련했습니다. 드시면서 기다리셨다가

6시 반이 되면 리셉션장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다음 내일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 제1세션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1시 반부터 제2세션이 개최됩니다. 마지막에 폐회식이 개최됩니다. 내일 9시부터 개최되는 제1세션에서는 「한일 간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경제 제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며, 제2세션은 「한일 간의 균형 있는 무역 확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리셉션장에서 다시 한 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통역 수신기는 반드시 책상에 놓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 SESSION I

議題：『韓日 技術競爭力 強化와  
經濟 提携』

司會【武澤 泰 (社)日韓經濟協會 事務理事, 以下同一】: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일한 경제협회 전무이사 다케자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통역 수신기가 일본어는 채널 0번입니다. 한국어는 1번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은 매너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와 발표하실 강사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세션의 사회를 맡아 주신 요네쿠라 세이치로(米倉誠一郎) 히토즈바시 대학 이노베이션 연구센터 교수님이십니다. 요네쿠라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네쿠라 세이치로 선생님은 1953년에 도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히토즈바시 대학의 사회학부, 경제학부를 졸업하신 후 1981년에 히토즈바시 대학원을 마치셨습니다. 1990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폭넓은 분야의 지식을 배경으로 히토즈바시 대학 상학부 교수를 거쳐서 1997년에는 히토즈바시 대학 이노베이션 연구센터의 교수로 취임하셨습니다. 이노베이션 연구센터는 일본과 아시아, 세계 각국에 혁신 창출과 정착에 공헌하고 있는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요네쿠라 선생님은 그 리더로서 아주 폭넓게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양국의 발표자를, 시간 관계상 직함과 성함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측의 강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님이시고, 스미토모 화학의 사장으로 활약하고 계시

는 요네쿠라 히로마사 사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전 내각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의원 이시고, 현재는 시바우라 공업대학의 학장으로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을 리드하고 계시는 츠게 아야오 선생님이십니다. 이어서 한국측의 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LG 전자 CTO를 거쳐서 현재는 주식회사 실트론의 대표이사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희국 사장님이십니다.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한국의 생산기술을 리드하고 계시는 나경환 원장님이십니다. 각 발표자의 발표시간은 한 분당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발표가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회의 진행을 요네쿠라 세이치로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 (1) 座長 人事

米倉 誠一郎

(YONEKURA Seiichiro)

一橋大學 이노베이션  
연구센터 教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 저는 성격이 아주  
온화한 사람이라서 회의는 온화하게 진행  
을 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모처럼의 기회  
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문제,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와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양국이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  
해 허심탄회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시  
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각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네쿠라라  
는 성은 일본에서는 매우 희성인데 우연  
히 똑같은 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요네  
쿠라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 (2) 日本側 發表

### ① 米倉 弘昌

(YONEKURA Hiromasa)

住友化學(株) 社長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 방금 소개 받은,  
일본 경단련 부회장을  
말고 있는 요네쿠라이입니다. 「제40회」라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일한·한일  
경제인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경  
쟁력 강화와 경제 연계」라는 테마로 이러  
한 토의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 적절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속적  
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첨  
단기술을 기점으로 한 꾸준한 혁신을 창  
출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나중에  
쓰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본 정부도 제3기 과학기  
술 기본계획에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  
러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업계에서 봤을 때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  
과 연구개발 투자가 일본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혁신의 창출 같은 구체적인 성과  
로 충분히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  
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으로 눈을  
돌린다면 미국은 작년 경쟁법을 제정했  
고, 중국도 과학기술 진보법을 개정했습  
니다. 또 EU는 신 리스본 전략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미나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혁신  
창출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혁신을 둘러싼 환경은 현재 크  
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지적  
수준의 고도화에 따라 혁신창출 프로세스  
가 매우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  
다. 과거에는 토마스 에디슨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  
는 대기업이라도 한 기업의 힘만으로는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  
니다. 다른 분야, 다른 업종의 지식을 융  
합시켜 나가는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  
니다. 일반적으로 혁신의 실현에 이르기  
까지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견으로부터  
개발, 연구, 시작화, 설비 투자, 새로운 제  
품서비스의 생산과 시장화, 이와 같은 긴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  
서 기업의 혁신 전략도 연구개발 단계의  
산학연계, 제품화, 시장화에 있어서 글로  
벌한 기업 간의 전략적 연계 등 조직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다면적 방안이 불  
가피합니다. 즉,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부터도 사람과 기술 같은 가장 뛰어난 자  
원을 획득하고,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접  
목·결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격화되는 글  
로벌 경쟁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지리적으로 가까  
우며, 서로 우수한 인적·기술적 리소스를  
갖는 일본과 한국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더 중  
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잠시 저희 회사의 사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미토모 화  
학은 한국에 3개의 연구소를 설립했습니  
다. 연구 테마는 「신규 기능재료의 개발」  
이라는 기반적인 연구로부터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한국의 고객 스펙으로  
바꾸기 위한 응용 연구와 같은 폭넓은 내  
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 활  
동은 매우 뛰어난 제조와 영업 기술자의  
육성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동우화인캡을 통해서 평택과 익산에 공장  
을 가지고 있으며, 액정과 관련해 편광필  
름과 칼라 필터, 케미칼의 생산·판매를 하

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9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동우화인캡의 편광필름 제5공장이 완성되었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편광필름과 칼라 필터 납품을 통한 한국의 삼성전자와의 거래액은 저희 회사 연간 매출액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우화인캡은 설립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당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장은 한국분이 맡아왔고, 일본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부사장이외에는 직원이 모두 한국분입니다. 그리고 올 6월부터는 현재 동우화인캡의 사장을 맡고 계시는 한국분도 스미토모 화학 본사 경영진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리소스를 접목·융합시키는 매니지먼트가 저희 회사에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일본의 이노베이션에 충분히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혁신은 기업이 사회적인 임팩트가 있는 재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완결됩니다. 그러나 일본 정책의 대부분은 정부와 대학 및 공적 연구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의 주역이어야 할 산업계의 지혜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이 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술 영역에 관한 연구개발을 비약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산·학·관이 서로 비전을 공유하면서 리소스를 투입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산업계가 주도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프레임 워크는 일본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는 온난화, 감염, 방제 등 많은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 양국의 산·학이 아시아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과 지역 전체의 성장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연구 과제를 공유하여 역할분담을 하면서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부도 포함시켜 다른 아시아 각국에 대해 공동으로 기술 이전과 인재 육성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국 주요기업이 모이는 본 경제인회의가 이와 같은 방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실 것을 강하게 기대합니다.

개방된 이노베이션의 전제가 되는 것은 사람·돈·상품·기술과 같은 경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양국의 FTA/EPA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제 통합의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일본과 한국의 FTA/EPA는 2003년에 정부 간 협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결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다. 2004년 11월에 제6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벌써 3년 반이 경과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하여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이명박 신정부가 출범한 현재가 그야말로 협상 재개를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최선의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후쿠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협상 재개를 향한 검토,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6월에 개최하는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물론 협상이 중단됨에 이른 원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일한 FTA/EPA에 관해서 체결에 의한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 무역 적자확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

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은 무역뿐만 아니라 쌍방향의 연구·투자·인재 교류 확대에도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따라서 WIN-WIN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기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정은 되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제1차 일한·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이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한·한일 경제 관계의 강화책을 둘러싸고 경단련의 미타라이 회장님, 전경련의 조희장님을 비롯하여 양국의 경제계 정상들에 의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 발표된 「미래지향적인 일한·한일 관계를 향하여」란 타이틀의 보고에서도 양국의 경제 연계 협정이 양국 관계와 양국 경제에 호혜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고, 협정 재계를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국 정상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일한 FTA/EPA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호혜적인 협정이 체결될 것을 강하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양국이 힘을 모아서 혁신을 일으키고,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을 발전시켜 지구 규모의 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츠게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 ② 『國家建設로 결실맺는 科學技術創造를 目標로 ~이노베이션 創出能力強化를 위한 과제』

柘植 綾夫  
(THUGE Ayao)  
芝浦工業大學 學長



츠게라고 합니다. 지금 시바우라 공업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원래 산업인 출신입니다. 그런 연유로 전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위원도 맡았으며,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책정과, 방금 요네쿠라씨께서 말씀하신 테마 「국가 건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과학 기술의 창조, 그리고 이노베이션 창출 능력의 강화」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일본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제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노베이션인가? 첫 번째로 국내적으로 10년 후에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사회가 도래될 것입니다. 국력의 지속적 발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과 지역적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범지구적인 여러 위기 해결을 위해 일본이 이바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글로벌 에코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앞으로 10년이 21세기 일본의 국가 건설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10년을 잘못 지낸다면 일본의 국력과 지역력이 쇠퇴할 것이고, 이 두 가지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셔널 이노베이션을 재정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 재정 연립방정

식의 답을 찾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는 국가재정·기업 재정·가정재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 일체를 이루는 해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건전한 고용과 합리적인 납세, 그 전제가 되는 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해서 기업의 재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즉 이노베이션 창출, 이것이 관건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세출은 비용이 아닙니다. 세 가지 재정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자라는 자리매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제1기 계획과 제2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개년 계획이 두 번 있었고, 지금은 제3기 5개년 기본계획 실시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3기 중에서 올해가 3년째입니다. 연간 25조 엔을 투자하게 됩니다. 知的 창조를 사회·경제적인 가치로 구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백업해줄 수 있는 창조성 있는 인재 활용이 중요할 것이며, 이노베이션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3차 기본 계획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이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그 성과를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인재 육성과 경쟁적인 환경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드웨어인 물건으로부터 사람으로, 하드웨어로부터 개인 중시, 이런 식으로 부제를 달아 놓았습니다. 제3기 기본계획에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기술로 어떤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하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6대 大목표와 12대 中목표가 있습니다.

맨 왼쪽 大목표를 봐 주십시오. 大목표1은 知的 발견과 발명, 大목표2는 과학기술의 한계 돌파입니다. 이것은 과학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력의 원천이라는 이념2가 있습니다. 大목표3은 환경·경제의 양립입니다. 中목표는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문제 극복,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순환형 사회 구현입니다. 그 다음 大목표4는 이노베이션 일본입니다. 다음 3가지 中목표가 있지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구현, 제조에서 넘버원 국가 실현,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中목표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이 이념3입니다. 이것은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大목표5는 평생 동안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大목표6은 안전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 환원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내걸었다고 하는 것이 제3기 기본 계획의 특징인 것입니다. 정부의 5개년 간의 투자총액은 약 25조 엔입니다. 이것은 계획 기간 중 세계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GDP 비율의 1% 정도는 투자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한정된 투자 금액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야 하는데, 이 투자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知, 혁신을 초래하는 기초 연구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일정 자원을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 4개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재료 분야,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이쪽에 우선적으로 자원 배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진 4개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에너지,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기술, 사회기반, 프런티어가 그것입니다.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기술은, 제2기 때는 「제조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3기에서는 세계적으로 산업은 「제조」라는 것이 패러다임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칭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전부 포함해서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라는 단어를 여기에 명기했습니다. 프런티어라는 것은 우주·해양·지구 쪽을 말하는데, 이쪽에 선택과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전략 중점 과학기술」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에 국가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국가 원천기술로 선정을 해서 엄정하게 평가합니다.

방금 요네쿠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과학기술 창조입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8개 추진 분야별로 개별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3기 기본 계획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즉, 知를 창조하고,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조, 이 양자의 결합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창출 능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만, 기초 연구인 知의 창조가 전략적인 중점 연구 소위 목적 기초, 응용이란 카테고리입니다. 최종적으로 사회·경제적인 가치 창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노베이션입니다. 파선으로 연결한 이 상호 관계들이 지금 과연 만들어져 있느냐가 바로 이노베이션 창출 능력의 요체가 됩니다. 이 결합 능력이 산·학·관이 철저하게 강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그 의원을 맡았을 때 이와 같은 관점을 주장했습니다. 일본 과학기술의 경영력 강화가 불가결하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요점은 과학 보

호 육성 시책과 사회·경제 가치 창조라고 하는 이 두 바퀴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기술 혁신에 의한 知의 창조를 사회·경제적 가치 창조로 결부시키는 개방된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 번 보십시오. 맨 밑에 있는 것은 知의 창조 부분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적인 가치 창출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보면 목적 기초 연구, 응용 실용화 연구라고 하는 중간 과정의 하나하나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가로축은 知의 창조 레벨에서 보면 학술적인 원리입니다. 가로축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구영역 A와 B,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축에서 위의 것을 보시면, 단일 기업체로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위의 부분에서의 가로축은 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역시 여러 가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분야별로 나누어진 여러 조직들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횡적 연계를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가운데에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영역 A와 B, 이 두 가지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됩니다. 또 맨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시즈의 재검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사이언스 쪽으로 「Back to Science」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역할은 오른쪽에 표시했습니다. 융합 연구거점, 융합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적인 것을, 즉 수직 연계 되고 있는 것을 수평 연계로 강화해야 한다, ICT라든가



의료분야, 이런 것들을 수평 부분으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규제완화의 필요할 것이고, 정부 조달 같은 것도 통합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를 백업해 주는 인재 육성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오른쪽 부분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요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체1은 연쇄적이면서도 개방성이 풍부한 이노베이션 흐름에서 知的 창조와 사회·경제적 가치 창조의 흐름이 기초연구에서 제품개발 시장 투입까지 수직방향·쌍방향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서도 그물처럼 수평방향으로도 결합되는 유기적인 결합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요체2는 이노베이션 흐름의 각 단계별로 상호 연계 하에 적절하게 매니지먼트를 하고, 知的 창조를 가치 창조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知的 창조로 니즈가 환류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쌍방향의 결합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체3은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의 약 3배가 넘는 민간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 메커니즘도 이상 말씀드렸던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책정됨과 동시에 「이노베이션 창출 종합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이노베이션 창출 종합 전략」의 개요입니다. 하나하나 나누어 보면, 첫 번째 가장 왼쪽의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이노베이션의 원천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노베이션을 씨에서부터 열매를 키우는 구조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노베이션을 결실을 맺게 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적어 놓은 네 번째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제도 개혁의 추진, 다섯 번째 이노베이션을 지탱하는 인력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이런 5가지 포인트를 주축으로 이 종합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이노베이션 창출이 어렵다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자 합니다.

20세기형은 「캐치업형」이라고 합니다. 표에 있는 삼각형을 보실까요? 저변은 기술의 폭입니다. 높이는 기술의 수준입니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21세기형의 「프론트 선두주자형」은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의 스펙트럼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통합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높이를 보십시오. 고성능화·고신뢰도화·심리적 만족감까지 줄 수 있어야만 사회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대규모의 피라미드 구조가 21세기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 구축 능력이 이노베이션 창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선두주자형 이노베이션 창출은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경제 시스템에 개별 첨단과학·기술창조능력과 통합화 능력, 이 두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육성해야 할 인재상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해서 적절하게 대응·확대해 나갈 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지탱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맨 꼭대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Differentiator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만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TYPE-E 기술을 보시면 Enabler Technologies 인력입니다. 이것은 이 기술이 없으면 반드시 패배하는 기술입니다. Super Competition 능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TYPE-B의 인재입니다. 폭넓은 기초기술과 기반기술·기능을 갖고 있는 인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베이스가 되는 도덕교육 등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공학 분야 교육에서는 TYPE-B의 교육이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대학과 교육계에서 잊기 쉬운 것이 TYPE-Σ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입니다. 知의 결합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조, 즉 진정한 이노베이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삼각형으로 표현하자면 이노베이션 구조의 가로·세로의 통합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는 TYPE-Σ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YPE-Σ의 인재가 필요하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산업계와 대학계는 충분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고등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지속가능한 이노베이션 창출 능력 구축의 핵심은 무엇이나 하면 각 대학과 대학 간의 새로운 결합, 구 국립연구소인 연구독립법인그룹군의 신결합, 산업군의 신결합 등이 불가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산·학·관과 독립적인 행정 연계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Σ형의 통합적인 인재가 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노베이션 창출 인력의 육성, 이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더욱더 협력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 (3) 韓國側 發表

#### ① 『韓日 經濟協力 電子部門 事例와 發展 方向』

李 熙 國  
(株)SILTRON  
代表理事 社長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 저는 LG 실트론의 대표이사인 이희국입니다. 오늘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주제발표를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와 전자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일 기업 간의 협력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재료와 부품, 케미칼 등의 원·부자재와 제조 장비, 그리고 반도체를 사용하는 가전, 컴퓨터, 통신 시스템 및 콘텐츠와 서비스까지 연결된 전자 산업의 수직 거래 구조 전반에서 양국 업체 간의 협력 현황과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 산업의 출발점이 되는 반도체의 재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 반도체의 재료는 모래와 유사한 산화 규소인데, 불순물을 걸러낸 순수한 실리콘 원재료를 Poly Silicon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태양전지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최근에 가격이 대단히 높이 올라간 물질입니다. 일본의 Tokuyama를 비롯한 여러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최근 동양제철화학 등이 Poly Silicon 사업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Poly Silicon을 재료로 해서 Silicon Wafer 원판을 만드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Silicon Wafer를 제조하는 회사로는 일본에 S.E.H, SUMCO, Covalent 등의 회사가 있고, 한국에는

실트론이 있습니다. 양국의 회사들은 미국, 유럽, 일본의 회사들로부터 Poly Silicon을 구입하여 Wafer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트론도 Poly Silicon을 미국과 일본의 회사들로부터 구입하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는 Tokuyama가 중요한 공급선 중의 하나입니다. 양국의 Wafer 회사들은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같은 Poly Silicon 회사들과 긴밀한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Wafer를 기판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소자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Toshiba, Matsushita, Renesas, Elpida, SHARP 등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고, 한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부, Magnachip, KEC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 구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소자 업체들도 양국의 재료 회사들로부터 Wafer와 각종 원·부자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의 가장 큰 고객은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인 HP, Dell 등과 양국의 종합전자시스템 회사들입니다. 일본에는 이름을 다 거명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만큼 유명한 전자 시스템 업체들이 많이 있고, 한국에도 LG, 삼성, 대우 등의 종합전자시스템 회사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회사들은 양국의 반도체 소자 회사들로부터 다양한 반도체를 조달받아 가전, 디스플레이, 통신, 모바일, 멀티미디어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Poly Silicon이나 Silicon Wafer 회사의 경우에는 자국의 고객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일부 반도체 소자의 경우에는 한일 두 나라에서 타국의 업체가 오히려 큰 고객인 경우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좀 더 심층적인 면을 보기 위해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실트론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licon Wafer의 제조에도 여러 종류의 원·부자재가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기계 장치 시설투자가 요구됩니다. Silicon Ingot를 만드는 Grower, Ingot를 얇게 잘라 Wafer로 가공하는 각종 장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트론의 경우 일부 기계 장치는 한국 내의 회사로부터 조달되고 있지만, 더 많은 장치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Grower는 실트론이 세부 사양을 결정·설계하고, 한국에서 외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트론이 Grower를 국산화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다시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Silicon Ingot를 생산하는 Grower가 설치된 저희 회사의 현장 모습입니다. 잠시 Grower의 구조를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rower가 Poly Silicon을 1400°C의 높은 온도에서 액체로 녹인 Melt로부터 Silicon Ingot를 길러 내기 위해서는 공정조건을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하고, 개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Grower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을 아주 정교하게 제작해야 되는데, 각 부품을 일부는 한국에서, 또 일부는 일본의 회사들로부터 공급을 받아 Grower는 저희 회사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수직거래구조에서 양국의 회사들이 서로 매우 밀접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시다만,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일본의 회사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의 제품에서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전자산업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에는 이처럼 상호간의 협력이 계속해서 절실히 필요할 것이며,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최종 소비자 제품뿐 아니라 재료·부품·기계 장치 등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비중이 더 커가고 있음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예로써 휴대전화의 제조와 핵심부품 사업을 들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한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 두 회사를 합쳐서 휴대전화를 3억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모든 휴대전화 제조회사의 생산량 전부를 합친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핵심부품의 공급은 한국 국내에서뿐 아니라 일본의 회사들이 경쟁력이 높고, LCD 화면, Camera Module, 2차 전지, Flash Memory 등 기타 정밀 부품 등을 일본의 부품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휴대전화 회사에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료와 부품의 국산화가 미비한 점, 한일 무역 역조가 늘어난다는 이슈는 어제도 이미 여러 연사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이슈의 개선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재료와 부품, 일부 품목에서는 현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휴대전화, LCD, 반도체 등 큰 규모의 산업에서 이제 일본의 재료·부품·장비 업체는 한국에 투자해서 고객의 가까운 곳에서 훨씬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사업을 성공시킨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여러 기업에 한국 진출의 기회를 잘 보시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인으로서 저는, 이미 어제 무역협회의 이회범 회장께서도 그런 말씀

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 왔지만, 실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사업에서 이런 진출을 했을 때 과연 향후 사업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이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는가 등 그 기업 스스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들이 장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업인으로서, 또 한국에서 전자시스템 사업을 관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여러 국내 공급처가 이런 핵심 부품들, 핵심 재료들을 국내에서 빨리 국산화를 하고, 한국의 시스템 회사에 성공적으로 납품하는 이런 사례들을 더욱 많이 발굴함을 통해서 오히려 일본에 계신 관련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 강한 압력을 넣는 것이 사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은 그런 사업의 관점에서 좋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양국의 회사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글로벌 비즈니스 프랙티스에 따라 자유롭게 공정하게 거래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국가 간의 경쟁논리에 의해 거래가 제약이 되고, 협력의 분위기가 훼손된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제가 관여하는 여러 사업에 있어서 사실 일본의 파트너로부터 중요한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받는 사례가 꽤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그러한 공급처에게는 저희 회사에 납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Market Share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례에 있어서는 제가 저녁에 식사를 함께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당신 회사와 우

리 회사가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일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저하는 눈빛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느낀 것은 한국과 거래를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본 사회에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왜 그런 눈치를 보는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한국 회사에 납품을 하면 뭔가 일본 사회에서 압력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나라의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현지화를 가속화하면서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경쟁을 택하기 보다는 협력을 택한 아주 좋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히다치 제작소와 LG전자는 오래 전부터 각자 퍼스널 컴퓨터의 주요 부품인 DVD Writer를 개발·생산·판매해 왔습니다. 8년 전에 양 회사는 기술 발전이 빠르고 경쟁이 매우 치열한 이 사업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활용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인트 벤처 회사인 HLDS를 설립했습니다. 사업기획과 마케팅, 세일즈는 HLDS가 담당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은 모 회사의 연구소가 역할을 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업 분야에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더라도 모회사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맡아 계속 협력을 하는 아주 효율적인 사업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창조적인 사업모델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HLDS는 오늘 현재 DVD Writer 부분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앞서서 출시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여 가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HLDS의 핵심 반도체와 정밀부품을 제공하는 일본의 다른 협력회사들에게도 아주 큰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HLDS가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양 모회사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두터운 신뢰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에서 경쟁하던 두 회사가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두 회사 사이에 오랫동안 여러 협력 사례를 통해 형성된 호감과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표시되지 않는 항목입니다만,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서로 신뢰와 존경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산업계·학계·관계의 리더들께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과 경쟁의 심화, 에너지 문제와 천연자원의 고갈, 신흥 경제대국의 출현 등 세계의 경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의존할 부분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반도체와 전자산업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제안으로서는 재료·부품의 한국 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업 기

회를 장기적으로 놓치지 않으시도록 한국 현지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 기업의 경영자로서 지금까지 일해 오는 동안 일본의 여러 회사와 다양한 만남을 가졌고, 거래를 해 오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 온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산업계가 앞으로 협력을 더욱 키워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하나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 ② 『韓日間 技術協力 活性化 方案』

羅 璟 煥  
韓國生産技術研究院  
院長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나경환입니다. 먼저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한일 간 산업기술 협력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회의자료 204쪽에 일본어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프롤로그, 한일 산업기술 정책의 방향, 협력 현황 및 저해 요인, 산업기술 협력 활성화방안, 맺음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도자기 기술은 장인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결합한 최첨단 제품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산업은 16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였고, 이러한 배경에는 그 당시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 장인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또한 한일정상회담도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일 간 유대관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치·문화·스포츠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일 산업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산업기술 정책은 살펴보면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일 기술협력 확대가 양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협력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협력의 저해요인을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양국 정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일찍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해서 현재까지 유지·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실적을 통해서 정부차원의 산업기술협력 현황을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정부는 93년도부터 산업기술인력 연수, 부품소재산업 협력, 신산업 교류·협력, 지역간 산업협력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업기술협력 촉진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의 실적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한일 양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몇 가지 저해요인

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일본 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및 일본 기업의 핵심기술 이전 기피 등이 주요 저해요인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을 잘 아는 1세대 경영진 대신 최근 미국 등 서구식 경영에 친숙한 2, 3세대 경영진의 등장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기술추격 우려, 한국 기업의 노사불안 등이 주요 저해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저해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국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인력·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연구 및 기술거래 활성화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공동연구의 확대가 필요하고, 산업기반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거래 등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기반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에 가칭 「기술이전촉진센터」의 설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 가능한 기술의 DB화 및 기술거래계약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협력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기술협력 지원 체제를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협력 체결 이후의 기능이 현재 미약합니다만, 이

러한 기능을 강화시키고 신규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한일 중소기업에 대한 ONE-STOP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끝으로 협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먼저 주요 부품의 공동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기술협력강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DB 구축이 필요합니다만, 이를 위해서 양국 정부가 공동 비용 부담으로 구축해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T 유사자격제도의 상호 인증제도 도입과 고가 연구 장비 활용을 통한 제도 구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협력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 한일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단지 조성 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학·연 활성화의 한 예로 한국 중소기업과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을 통해서 본 발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업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조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이해와 교류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국의 확대된 산업기술협력이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 및 양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력(協力)이라는 한자가 의미하듯이 협력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본 발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암묵적으로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의 산업기술협력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양국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質疑應答 및 自由討論

**座長** : 감사합니다. 발표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발제자가 여러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부터 한 번 토론을 해 볼까 합니다. 처음에 요네쿠라 사장님께서 발표를 하신 내용 중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 모두 자본주의 체제 자유국가이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경쟁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며, 거기서 어떤 일이 가능할 것인가, 즉 작은 하나의 파이를 서로 먹으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협력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신규 시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FTA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본과 한국, 나아가 세계적으로 이 FTA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후반부에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대화는 정부가 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는 경제인회의입니다, 그래서 경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FTA 문제를 얼마나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혹시 불가능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米倉 弘昌(YONEKURA Hiromasa) 住友化學(株) 社長** : 일본과 한국의 FTA/EPA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 협상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하자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인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물자·금융·기술·정보·서비스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나라에서



나 어떤 지역에서나 동일한 Rule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인에게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저출산·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크게 학장님께서도 일본도 앞으로 10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경우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도래되면 생산 공급력은 물론 수요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하는 시장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진출 대상국의 국민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ASEAN과 포괄적 EPA에 대해 이미 서명이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 발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미 체결을 끝냈습니다. 중국도 ASEAN과는 EPA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인도-ASEAN간 논의가 있고, 호주·뉴질랜드가 ASEAN과 FTA/EPA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체결이 된다면 ASEAN+1이 여섯 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묶으면 ASEAN+6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것을 다시 묶어 나가면 이제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의외로 빨리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ASEAN의 새로운 사무국장은 아주 의욕적이지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은 중국·한국·일본입니다. 거기에 호주·뉴질랜드·인도 이 여섯 나라까지 전부 포괄하는 전체적인 FTA/EPA가 또 필요해질 것입니다. 한국과 일

본은 지리적·역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나라가 상호협력해서 양국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지적하신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난국이지요. 그런 가운데 민간 기업이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겠느냐, 한 회사 한 회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FTA/EPA를 통해서 이노베이션을 실시·구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座長** :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후반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ASEAN이 중심이란 생각으로 나간다면 결국 일본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군가 만들어낸 표준을 일본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꺼려진다고 생각되는데, 한국과 중국이 먼저 앞서 나간다면 일본은 굉장히 타격이 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협상을 중단한 상태, 일부 권리와 권익만 주장하면서 FTA 논의를 완전히 방치해 놓는 상황은 일본의 국익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리더십을 발휘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米倉 弘昌(YONEKURA Hiromasa) 住友化學(株) 社長** : 그 부분은 오히려 정부 관계자 분들이 계시면 제일 답변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座長** :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민간에서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米倉 弘昌(YONEKURA Hiromasa) 住友化學(株) 社長 : ASEAN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협력을 생각해 볼 때 일본이 전면에서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SEAN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형태로 모양새를 잡으면서 전체를 아울러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 일본과 ASEAN, 일본과 여타 아시아 국가의 관계를 보면 일본은 미국이나 EU에게 가교역할을 하기 좋은 입장입니다. 다만 FTA/EPA는 정부 간의 협상이라 저희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요네쿠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이 의견을 내야만 정부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경단련은 지금 미국이나 호주·EU에 대해서 EPA를 추진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일본 경단련은 2년 전부터 FTA/EPA 추진위원회가 있어 저는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년 전, 경단련에 이 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FTA/EPA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그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상당히 뒤쳐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청을 높여 정부에 대해 FTA/EPA에 대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일본 정부가 ASEAN과 FTA/EPA 모양새는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트남만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서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성장하는 아시아의 활력을 일본에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도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座長 : 이회국 사장님께서서는 한국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의 어드바이저를 맡고 계

신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과의 FTA/EPA에 대해 한국은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건가요?

李熙國 (株)SILTRON 代表理事 : 요네쿠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참여하고 있는 기구는 무역 관련된 기구는 아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고 해서 국가 예산으로 R&D를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정책방향·평가 관련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스럽게도 FTA/EPA와는 거리가 좀 멀고, FTA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릴 만큼 전문성이 없어서 최종스럽습니다.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청중 중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제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座長 : 알겠습니다. 그럼 나 선생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코멘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羅璟煥 韓國生産技術研究院 院長 : 저도 주로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출연기관에 있는 연구자라서 FTA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座長 :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은 GDP가 86조 정도인데, 일본의 간사이 지방이 92조입니다. 즉, 한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의 간사이 지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사이를 포함해서 일본은 600조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커다란 틀 안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자원 문제에 직면해

서 과거와 같이 생각한다면 경제 발전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민간 경제인들의 감수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20년 전에 유럽인들이 앞으로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유럽은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좋은 나쁜 것 간에 유럽의 실재감이라는 것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한·한일 간 공통된 통화를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습니다.

**米倉 弘昌(YONEKURA Hiromasa) 住友化學(株) 社長** : 공통된 통화라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은 매우 어렵습니다. EU에서도 영국은 아직 유로화 사용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로서 주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국인이 주권은 실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권의 문제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국가 내에서 공통된 통화를 쓰게 되면 국가가 금융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공통 통화라는 것은 경제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 하면, 화폐를 교환할 때 그만큼 수수료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EU에서는 10개국 정도를 돌아가면 1달러가 10센트 가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공통 통화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경제 정책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뿐만 아니라 경제 EP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ule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투자 환경

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어떤 경제 거래를 어떤 공통적인 규칙에 따라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방금 발표에도 있었듯이 표준화 문제가 공통화 된다면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아주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座長** : 알겠습니다. 츠게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 코멘트 있으십니까?

**柘植 綾夫(THUGE Ayao) 芝浦工業大學 學長**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의논이고, 동시에 10년 후, 20년 후에 공통된 이념을 가지고 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이란 측면에서 10년, 20년 후의 이러한 논의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이노베이션으로 연결하는 인재로서  $\Sigma$ 형 인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네쿠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하는 인재로서 『메타내셔널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저는 최근에 와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문학에서 배운 개념으로 Beyond National 이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면 각 국가의 내셔널을 견제하면서도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또는 아시아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말합니다. 미국, 구미와 비교하면 아시아의 인재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육성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논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座長**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노베이션은 과학기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제도 혁신도 포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

습니다. 일한경제인회의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의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세계는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미토모화학에 이미 한국인 이사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츠게 선생님, 미츠비시 중공업에 근무하셨죠? 거기도 외국인 이사가 계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柘植 綾夫(THUGE Ayao) 芝浦工業大學學長** : 현지의 각 회사에는 물론 계시지만. 유감스럽게도 본사에는 아직 없습니다.

**座長** :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쭙 봤습니다. 저는 일본도 상당히 사람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인 사장이 취임한 기업도 있습니다만, 이제 일본 기업도 글로벌하게 활약하고 있는데, 여성과 외국인 임원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선생님께서 손을 들고 계시는데요.

**李熙國 (株)SILTRON 代表理事** : 조금 전에 상당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잠깐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일본과 한국이 유독 단일민족 개념이나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별나게 강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주변과 경쟁심이 강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권철현 대사님께서 강연 인사말씀 도중에 또 한 2년 정도 지나면 한국의 입장에서 여러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100년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훨씬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협력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우

리 기업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업인 이외에 정부나 민간단체 쪽에서도 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업과 기업인들이 협력과 실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사회 리더십을 가지고 끝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업의 경우에,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이사들 중 외국 사람은 얼마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까지 있던 LG전자의 경우,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판매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의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너무 미비한 점이 많다는 인식에서 Corporate Officer에서 CEO를 제외하고는 마케팅이나 전략, 최근에는 HR(인사부분)의 담당자까지도 이제는 글로벌 인재가 와야 제대로 된 글로벌화가 되겠다는 인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번쯤 시도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어차피 세계 곳곳에 현지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내셔널리즘이나 벽을 상당 부분 허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아직도 일본 기업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은 일본 기업이거나 하는 인상이 너무나 강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해소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에서는 매우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 일 두 나라만의 관계뿐 아니라 저희가 사

업을 하는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그런데 LG 그룹 본사에도 외국인 이사가 없습니까?

**李熙國 (株)SILTRON 代表理事** : LG에 최근 Corporate Officer로 외국 사람을 데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그 숫자는 굉장히 적고, 과거에는 한국에서 파견을 나가서 그곳에서 한국 사람이 전부 현지에서 Managing Director를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그건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약 3000여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나간 사람은 서너 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지 인재들을 계발하고, 그 현지 인재들이 본사에서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座長**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미토모 화학의 본사 임원에는 한국인 이외에 다른 외국인이 있습니까?

**米倉 弘昌(YONEKURA Hiromasa) 住友化學(株) 社長** : 이사라는 직책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의 문 사장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집행 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문 사장님 외에도 미국의 저회 농약 관계의 자회사의 사장인 미국분이 집행 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포지션으로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 50곳 정도 직책을 지정해 매년 2회 글로벌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교육도 실

시하고 있습니다. 그 50개 직책에 대해서는 전 세계 공통된 Rule을 통해 액세스와 프로모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座長** : 제가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한일경제인회의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큰 화제는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일반론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논의한 후에 얼마만큼 인재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만큼 긴밀한 거래 관계가 있다면 보다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게셔도 되고, 반대로 일본 기업인이 정규 이사로서 한국 기업에 있는 상황이 보다 더 일찍 실현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대학에 몸담고 있는데, 일본의 대학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여성 연구자가 한국에 돌아가서 취직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미국 대학에 가서 PHD를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최고 대학인 도쿄대학의 PHD가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편견이 아니라 Global Standard에 도달하지 못한 일본의 대학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 대학이 그만큼 신용을 잃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본의 대학에 들어가도 일본기업에 취직해서 그 사람이 TOP까지 진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세계의 학생들이 일본에 와서 공부하며 취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은 미국의 대학인데, 그 이유는 미국 대학은 시설뿐 아니라 졸업한 후에 장래가 밝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이 경제인의 등용에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하며 채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米倉 弘昌(YONEKURA Hiromasa) 住友化學(株) 社長** : 저는 도쿄대학의 경영협의회 멤버입니다. 가끔 간담회 자리에서 멤버 여러분의 고충을 듣는 기회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본 결과 역시 학생의 소양이나 소질은 다르지 않지만, 부모에게서 정신적인 자립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62년에서 1965년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인이 일해서 학비를 벌고 있거나,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편 일본의 대학원생을 보면 모두 부모에게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을 해도 스스로 자신들의 의사 결정을 못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이 요즘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훈련시키고 단련해야 한다고 학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측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아무리 불만을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

라서 기업 측에도 문제가 있고, 대학 측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의 장래를 짊어지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4월부터 신입사원 중에 한국 대학, 중국 대학, 인도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본사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들은 현재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座長** : 나 선생님, 아까 한일 간에 기술 협력과 대학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일의 대학 차원에서 어떤 식의 협력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일본 대학은 아직까지 매력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羅璟煥 韓國生産技術研究院 院長** : 사회자분께서 처음에 경쟁을 통한 협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Market을 Share하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측면에서는 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통계나 표준을 통해 양국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의 협력 부분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조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3D 업종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직업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 분야는 대부분 사람의 체화된 기술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 분야에 있어서 최근의 디지털 IT 베이스의 기술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본과 한국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이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소나 대학도 일본과 많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하신 내용, 여전히 한국에서 일본 대학 출신이 매력적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연구원에도 최근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연구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座長 :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李熙國 (株)SILTRON 代表理事 :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 요네쿠라 사장님께서 일본 기업체의 사장의 입장에서 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듣기에는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한국에도 매우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대학 중의 하나인 KAIST의 총장자문회의에 참여를 해서 실제 대학 개혁에 관한 고민과 어려움을 비교적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데, KAIST의 총장님은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MIT의 기계공학 과에서 석좌교수를 하셨고, MIT 자체 기계공학 개혁 프로그램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굉장한 명성을 가지신 서남표 박사라는 분이신데, 70이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셔서 KAIST 총장을 맡으셔서 대학 개혁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시도하는 것 중 하나가 첫째로 정교수도 연구 결과와 강의가 우수하지 않으면 탈락된다는, 한국사회에서 본다면 대단히 충격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계셔서 상당히 시끄러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만, 이런

개혁적인 조치들이 그런 대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학 사회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의 사장 입장에서 저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에 한국 유학생들을 유치해 보려고 꽤 부지런히 다니는 입장입니다만,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Academic Excellence라는 차원이 아닌 글로벌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미국 쪽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에게 상당한 메리트를 주고, 채용도 합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생각나는 것이, 어제도 얘기가 되었지만 계속 부품소재의 얘기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명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예로써 설명되었던 것 중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던 것은 고등학생들의 교류가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정을 쌓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경제인 단체에서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고등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양국 간 대학뿐 아니라 양국 기업체에도, 예를 들면 한국의 공과대학의 교수님들이 안식년을 맞을 때 아직도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국내 유명 기업 연구소에서 1년을 보내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의 교수님들이 양국 기업의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하는 것은 부품소재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쉬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한국과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과대학이 점점 인기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비해서 공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

는 것이, 비록 서서히 변화하기는 하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를 제가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한국의 경우에는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향후 전망을 봤을 때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얼마나 빨리 은퇴를 해야 하는가 등 이런 구체적인 기대치의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한 해결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어느 한 기업이 자기가 필요한 이노베이션을 혼자서 다 감당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원의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특히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Strategic Difference로 활용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 은퇴한 기술자들이 시간도 잘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은퇴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기가 가진 기술을 한국·일본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잘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활발하게 조성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는 IT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매개해 주는 회사들도 이미 일본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은퇴한 전문 기술자들이 좀 더 활발하게 동남아 전체를 포함해서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 단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여 여러 가지 협력의 차원을 구상한다면 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座長 : 네, 대단히 고무적인 발언을 해주

셨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자기가 키운 경험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의 벤처 비즈니스는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기업 OB들에 대한 활용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츠게씨 말씀해 주십시오.

柘植 綾夫(THUGE Ayao) 芝浦工業大學 學長 : 방금 이 사장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과 한국은 확실히 PHD 클래스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는 CEO까지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제 당연한 시대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매우 드물습니다. 최근 「과정 DOCTOR」로 CTO가 된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저도 과정 DOCTOR를 나와서 미츠비시 중공업에 입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쓸 만하겠는가 하고 저의 상사가 저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박사과정 기간 중에 산업계와 관련이 굉장히 많아서 교육과 자기 연구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술은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가지, 저는 박사과정 중에 이 삼위일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교육과 연구와 이노베이션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지금 도쿄대학을 포함해서 박사과정에서 지금 그런 교육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학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산되는 Discipline, 학문의 각각의 전문 분야만을 연구시켜서 박사학위를 주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박사가 당연히



배워야 할 교육, 그 안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내셔널 능력이나 기술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포함해서, 박사과정에 가는 사람의 70%는 산업계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내셔널 능력, 매니지먼트 능력, 박사논문으로 승패를 거는 학력도 가지면서도 공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폭넓은 소양을 갖는 사람들, 이런 완전한 인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박사학위 교육의 바람직한 이상이라는 면에서 볼 때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 에듀케이션 부분에서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닥터과정의 교육 협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협조를 실천하려면 여기에 산업계가 끼어들어야 합니다. 대학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경제인 여러분들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박사과정 교육 연구 이노베이션(넓은 의미의 교육)에 산업계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보다 나은 하이 에듀케이션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우리 경제인들의 또 하나의 미션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고,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座長** : 네, 그런 측면이 물론 있기는 한데,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측의 발표자 분들은 모두 미국 유학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후에 일본의 주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 수출 산업으로서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은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그 우

수한 인재들을 키워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의 대단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서로 이러한 종류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츠게씨의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일본의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은 하면서 전혀 실행이 수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5조 엔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점 4개 분야 Life Science, 정보통신, 환경 분야, 나노테크놀로지, 거기에 추진 4개 분야인 에너지,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사회기반, 해양·우주를 포함한 프런티어, 이걸 정말 전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좀 더 압축과 집약·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재원 2조 엔이 생겼는데, 그 단계에서 10년 동안 그것을 도로 정비에만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환경 기술에 전부 사용하고, 다른 부분은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세계는 환경문제라든지 식량 위기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싸이클론이 인재(人災)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후는 지금 우리의 상상 이상의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좀 더 중점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노베이션 추진방향을 보면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츠게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柘植 綾夫(THUGE Ayao) 芝浦工業大學 學長 : 네, 문제의 인식은 아마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중점 추진 8개 분야를 좀 더 압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맨 처음 제 자료를 보시면 정책목표라고 하는 것을 제3기 기본계획에서 명확하게 수립을 했습니다. 5페이지에 환경과 경제의 양립, 그리고 이노베이터 일본으로 대표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구현, 이 부분은 저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문제의 극복,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순환형 사회의 실현, 여기에 압축을 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은 여섯 가지, 이 이상의 선택과 집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까 설명 드렸던 8개 분야, 정보통신과 학술 쪽이 몇대로 분류를 한 요소 분야인데, 그러니까 학술 쪽에서 연구자들이 몇대로 정의를 내리고 추진분야를 사회·경제적 가치, 이것은 이노베이션 그 자체인데, 이 양자가 연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술적 知의 창조(IT)가 정책목표라는 사회·경제적인 가치로 과연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행정 측면에서 계획만 세워 놓고 지금까지 행동 메커니즘이 없이 선택과 집중만 했었습니다.

座長 :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노베이션 분야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발상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정부 예산 25조 엔을 투자한다는 것은 모래에 물을 뿌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계획과 여러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고, 다들 이노베이션을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 이 디즈니랜드에서 회의를 개최하는가' 하고, 여기 오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디즈니랜드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디즈니랜드 하나로 연간 2200억 엔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엄청난 산업이지요. 게다가 고맙게도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 디즈니랜드를 찾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입니다. 수출은 물건을 만들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인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비스 산업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조사했는데, 대학 조교에게 휴대폰으로 디즈니랜드 매출액을 찾아보라고 해서 지금 결과가 왔습니다. 저는 LG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을 진정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휴대폰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Google 검색입니다. Google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난 두 젊은이가 만든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10조 엔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노베이션의 정책 목표에서 대학 간 연합에서 이런 Google이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런 논의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 간의 최대의 문제는 이런 종류의 산업인들의 자유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말

겨 보자, 그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일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문화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拙게써 발표에서 제가 또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19페이지 ‘대학 간 신결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토츠바시 대학도 4대 대학 연합 중 하나인데, 우리가 보면 약자 대학 연합 같습니다.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강한 부분은 철저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시대의 요청입니다. 스탠포드, MIT, 하버드 대학교가 손잡고 뭔가를 한다는 발상이 아닙니다. 스탠포드는 스탠포드, MIT는 MIT, 하버드는 하버드대로 각각 강화시켜 서로의 매력을 가지고 세계의 知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학연합이라는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이 선생님께 발언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건의하셨던 사항인데,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를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한국기업조차도 지금 중국에 진출합니다. 일본기업이, 예를 들면 특히 부품소재 부분에서 해외직접 투자를 일본기업이 왜 하느냐 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진정한 수직 분업,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면 이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비전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직접 투자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할까요? 이

선생님께서서는 일본의 직접투자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李熙國 (株)SILTRON 代表理事** : 한일간의 무역 역조, 특히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 심화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내용들이 각 기업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의견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LG전자라는 상당히 큰 기업, 세계 시장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과 디지털 TV, 휴대폰 등을 수출하는 입장에서 핵심부품과 재료를 한국이든 일본이든, 최근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한국에도 여러 가지 다른 입장 회사들이, 대기업·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품소재에 대해서 딱 하나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발표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거론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무역역조가 많으니까 한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때를 쓰는 듯한 형태는 아무리 얘기를 해 봐도 실제로 해결책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냉정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여건을 훨씬 더 개선을 해 준다면, 세계 등 기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물론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매달려서 부탁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같은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들을 국내나 중국에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에서 부품과 소재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

에 진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현실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생각을 할 때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진출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만을 바라보지만 말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것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 중소기업, 소재부품 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대일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부품은 일본이 계속 독점하는 식의 이런 분업 구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해답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柘植 綾夫(THUGE Ayao) 芝浦工業大學 學長** :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지금의 유비쿼터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아까 요네쿠라 선생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모바일 폰 하나에 있어서도 그것을 구성하는 것을 각각 나누어 보면 정보 통신 기술이기도 하고,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생산기술이기도 한, 에너지절약형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기초 연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이 소재 분야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즈니랜드는 확실히 비즈니스 모델로서, 서비스로서도 독특한 디자인입니다만, 이것을 지탱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역시 반도체이고,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생산기술이며, 하나하나 기반기술입니다.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

으로는 대학이나 연구 독립법인들의 기초연구가 결실을 잘 거둔 결과라고 볼 수 있지요. 멀리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기초연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중에서 연결되지 않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座長** : 요네쿠라 선생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米倉 弘昌(YONEKURA Hiromasa) 住友化學(株) 社長** : 소재부품과 관련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시키고 투자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을 하니 수평 분업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협력을 하는 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산업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부품을 수입해서 최종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해외로 수출을 하는 과정을 통해 무역 수지가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제3국에 있어서 일한 협력을 통해 좀 더 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FTA/EPA가 단순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에 구성 멤버로서 양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뭔가 기본 이념을 가지면서 FTA/EPA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1977년의 「후쿠다 독트린」이기도 하고,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는 그런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평화와 번영을 동아시아에 정착시킨다는 이념으로 FTA/EPA를 생각하고, 아까 이 선생님께

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 대한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투자를 좀 더 촉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座長** : 이 선생님 어떻습니까?

**李熙國 (株)SILTRON 代表理事** :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충분한 애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한국에도 빠른 속도로 부품과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고, 저희 회사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 부품과 소재를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일본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볼 때 느끼는 것은 물론 일본의 품질 수준과 엄격함을 다 맞춰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합니다만, 의견의 차이일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충족된다고 해서 과연 한국기업이 일본의 부품이나 소재, 심지어 가전제품을 포함해서 충분히 판매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며,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가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부품소재 산업을 한 나라가 뺏기면 큰일 나는 그런 관점에서 보기 보다는 좀 더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우위 차원에서 사 줄 것은 사고, 팔 것은 팔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지금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코멘트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座長** : 그렇습니다. 그런 본심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와 미국에서는 현대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이 왜 수입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에도 비관세 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회의는 민간주도의 회의이기 때문에 솔직히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국들이 서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작은 파이를 가지고 경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파이를 만들거나 경쟁의 차원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의 차원을 바꾼다는 것은 싸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차원이 지금까지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안전하다든지, 지구 친화적이라든지, 에너지 절약형이라든지 하는 전혀 새로운 경쟁의 차원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의 강력한 파트너인 중국을 무시한 채 세계 경제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보다도 최적의, 지구 환경에 친화적 제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선생님께서는 표준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羅璟煥 韓國生産技術研究院 院長** : 부품소재 관련해서 대일 무역적자가 19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 품목들을 분석을 해 보면 한국에 기술이 있어도 마켓이 형성이 안 되어서 수입되는 부분이 있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갑자기 생산량이 늘었다든가 해서 부득이하게 수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 상당부분 원천 소재, 소재 관련된 그런 수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품과 소재를 나눠서 접근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다. 부품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방식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양국 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소재 부분은 기술협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의 표준화·공동화에 대해 말씀드렸습시다만,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산업구조나 부품에서의 공급 체인 형태를 봤을 때, 새로운 더 많은 시장을 개척·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품이라든지 관련된 기술의 표준화가 양국 간 발전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것이 협력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인재 관련 얘기가 나올 때 일본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는 몇 년 전부터 국립연구기관을 활용한 박사과정 인재양성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겼습니다. 연구기관에 고급 인력과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R&D를 통해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이란 제도가 생겨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장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함과 소속을 밝혀 주십시오.

**麻生 泰(ASO Yutaka) 麻生LAFARGE CEMENT(株) 社長** : 아소라고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코멘트입니다. 츠케 선생님의 자료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아까부터 일본의 경제력의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 츠케 선생님도 맨 처음 2페이지에서 앞으로 10년이 21세기 일본의 승부의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제3기 안이 노출되었고, 그것이 민간으로 가서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25조 엔의 재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코멘트도 좀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결합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민간이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위 차원에서 일본이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는데, 위기감과 함께 비전이라든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치적인 공약 같은 것이 필요하다, 카스미가세키[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민간에 영향을 많이 주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특히 츠케 선생님은 민간부분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국가가 좀 더 이런 비전속에 초점을 둔, 좀 더 가시적인 형태로 연도별로 나오는 형태의 공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네쿠라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10년 전과 테마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적절하고 현실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가운데 저희 위원회에서 낸 투어컨덕터라든지 CG 컴퓨터 그래픽 자격 같은 것은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일본에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포함했습니다. 아까 요네쿠라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회에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반면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큰 자극은 직장에 외국 사람들이 평소에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직장을 통해서 접근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이번 경제인회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구체적인 제안도 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츠게 선생님, 반론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柘植 綾夫(THUGE Ayao) 芝浦工業大學 學長 :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제가 적었는데, 제3기 기본계획에서 제1기, 2기에 없었던 것은 최종적으로 8개 분야에서 더욱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 통신 분야 등 어떻게 에너지 절약화할 것인지, 지금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집니다. 최종적인 사회 가치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까지 정했습니다. 이것은 분야별 추진 전략과 같은 두꺼운 4~5cm의 책으로 600명의 민간인도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은 방치를 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이 좋은 뜻의 견제를 행정에 가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약 3배 이상의 것을 민간이 연구개발 면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랑하는 일본기업의 체질입니다. 그러나 아까 요네쿠라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기본만을 하는 정도로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민간 투자 14조 엔에 달하는 것을 연간 국가는 3조 5천억 엔 정도밖에 쓰지 않는지, 그쪽으로 연결해 가는 시점도 포함해서 우리 민간 쪽에서 보다 좋은 의미의 견제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座長 : 그렇지만 관리는 아주 세부적인 것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주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지요, 끝부분에 계시는 분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세 번째 줄에 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李鍾燮 德成女子大學校 理事長 : 한국 덕성여자대학교의 이사장입니다. 오늘 제1세션 제목이 『한일기술협력의 강화와 경제 제휴』입니다. 일본분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요네쿠라 사장님, 두 번째 츠게 학장님, 주로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서 FTA/EPA를 협력하자는 결론이었고, 두 번째 츠게 학장님은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서는 시그마형 통합 인재 육성을 위한 한일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그랬는지 이노베이션의 중요성과 한일 협력의 중요성 만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노베이션 혁신을 위해서 과연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데 있어서 시그마형 통합 인재 육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국제 협력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예를 들어 한일 간에, 나아가 적어도 중국을 포함해서 한·중·일 3국간 이노베이션 혁신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오늘 발표의 결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중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은 이미 수출과 수입의 세계 제1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곧 무역 의존도가 미국보다도 중국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국을 제외하고 경제협력이나 무역협력·과학기술 협력을 논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일 협력을 얘기할 때는 중국을 전제로 해서, 사회자께서 한국과 일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서 경쟁을 전제로 하자고 하셨는데, 한일 문제를 논의할 때는 중국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일간의 과학기술 평균수준을 보통 5~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간의 평균기술 수준의 격차는 3~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6년이 지나면 일본이나 한국 역시 중국 기술을 도외시하고는 협력 애기가 어렵습니다. 모처럼 좋은 이노베이션에 관한 일본의 내용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3기 과학기술 기본 계획에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종합 전략이 있는데, 여기 국제간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이것에 맞춰서 한국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우리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노베이션에 관한 개념이나 목적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그럼 대답하기 전에 또 하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이노베이션 혁신에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맨 끝에 앉아 계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畠山 襄(HATAKEYAMA Noboru) (財) 國際經濟交流財團 會長** : 국제경제교류재단의 하타케야마라고 합니다. 아까 요네쿠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는 아주 자세한 것까지 잘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관리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부분을 두 가지 정도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는 한·중·일에서 최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액션 아젠다를 합의했습니다. 서로 여러 나라의 투자 환경을 이렇게 바꾸자, 개선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신 적이 없으시면 한 번 홈페이지로,

절차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부터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개인적인 제안이라서 죄송스럽지만, 해외 기술자 연수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기술자를 일본에서 연수시키는 단체입니다. ODA(정부 개발 원조)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ODA의 상태를 졸업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것을 활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돈으로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서 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한국의 경우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한국인 기술자를 일본에서 연수시키는 것, 일본의 모회사에서 연수를 시키는 것을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가 해 왔습니다만, 그것을 ODA를 졸업하신 한국의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座長** : 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액션 아젠다에 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 육성에 관해서 일본과 중국, 한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액션이 있는지 크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柘植 綾夫(THUGE Ayao) 芝浦工業大學 學長** : 제3기 과학기술 기본 계획은 일본의 대학에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일본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매력 있는 대학, 즉 일본 외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배우러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내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쿄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에서 오는 학생



들을 위한 대책이 최근에 「10만 명을 30만 명으로 하자」라는 정책을 확실히 국가적으로도 지원하자고 하는 의견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일본에 있어서도 각 나라의 내셔널에 입각해서 아시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글로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기 기본계획에는 예산도 포함해서 그 내용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座長 總括

**座長** : 시간이 벌써 늦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이 경제인회의가 40년 동안 해왔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많이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40년 동안의 축적이 서로 몸과 몸으로 이제부터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아주 열띤 민간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더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사회를 본 저의 소감입니다. 이번에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FTA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시 일본과 한국의 기업인들이 보다 높은 뜻을 가지고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큰 파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재 교류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각 기업에 대학 교수를 받아들인다든지, 이사회에 서로 각 나라 사람들을 늘린다든지, 교육계에 상대 국가의 인재를 채용하는 등 그런 종류의 인재 교류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경쟁이라는 것은 서로 자그만 파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닌, 차원을 바꿔서 지금까지 없었던 위기와 함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과 한국이 커다란 파이를 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기술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은 에너지 쪽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즉 저희와 같은 절박한 테크놀로지의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도 4000억 엔 규모의 신에너지 개

발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 우리 두 나라, 선진국인 우리 두 나라가 서로 협력을 한다면 아직도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가 미숙했는데요, 우리 경제인회의도 지금 새로운 차원을 향해서 매년 하나라도 아젠다를 해결하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40주년을 계기로 그런 회의로 바뀌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요네쿠라 교수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석 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성대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의 예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1세션이 끝나면 양국 단장단 여러분들은 신관 2층 「Ocean Blue」에서 점심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단원 여러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Club Fuji A」라는 방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되는 제2세션도 바로 이 방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찬회>

## 5. SESSION II

議題 : 『韓日間 均衡있는 貿易擴大를 위하여』

司會【武澤 泰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以下同一】 : 지금부터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2세션의 사회자와 발표를 하실 강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이타미 히로유키(伊丹 敬之) 도쿄이과대학 대학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타미 히로유키 교수님은 1945년 아이치 태생이시며, 1969년에 히토즈바시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1972년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후 히토즈바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등 국내외 여러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셨으며, 연구 활동에 임하셨습니다. 2002년에는 조직학회 회장, 2003년에는 히토즈바시 대학의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의 리더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공적이 인정을 받아서 2005년에는 정부로부터 국가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도쿄이과대학 대학원 교수로 취임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경영학자로 활약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양국의 발표자를 시간 관계상 직함과 성함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대학 아시아 연구소의 노조에 신이치(野副 伸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 미츠이물산 주식회사 무라카미 마사아키(村上 雅章) 대표이사 사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의 임천석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우성I&C 주식회사의 금병주 사장님이십니다. 이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장석춘 위원장님이십니다. 제2세션에서는 일본측 발표자가 두 분이고, 한국측 발표자가 세 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발표 시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측 발표자는 한 분당 10분이 되겠고, 일본측 발표자는 한 분당 15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의 진행은 이타미 히로유키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 (1) 座長 人事

伊丹 敬之

(ITAMI Hiroyuki)

東京理科大学大学院  
教授



진행을 맡은 이타미 히로유키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 균형 있는 무역 확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제2세션을 개최하겠습니다. 발표 시간도 균형을 맞추어 한국측은 약간 짧고, 일본측은 시간이 좀 깁니다. 시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본측 발표자 두 분과 한국측 발표자 세 분이 모두 발표를 하고 나서, 그 후 다섯 분간의 논의를 30분 정도 하고, 그 후의 30분은 회의장에 나와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에 신이치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 (2) 日本側 發表

### ① 『變化하는 韓國의 對外經濟關係 - 中國 評중의 빛과 그림자 -』

野副 伸一  
(NOZOE Shinichi)  
亞細亞大學아시아  
研究所 教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 제40회 일한경제  
인회의에 초청해 주신 주최 측 여러분들  
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한의 균형  
있는 무역확대를 위하여」라는 제2세션의  
발표자로 지명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고, 그것이  
빛과 그림자의 양면을 지닌다고 하는 것  
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제에서 약간 빗나  
간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전 세션에서도 의견이 나왔듯이, 이제  
는 한일 관계를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  
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서 한일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중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제 발표와  
관련해서는 요지밖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  
니다. 문장으로 된 내용도 실은 사무국에  
는 보냈는데, 여러분의 자료집에는 들어  
가 있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대외 경제관계』가 저  
의 테마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작년  
2007년까지 한국의 대외 무역관계를 살펴

보면 급속도로 대중 수출입에 대한 편중  
이라고 한마디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료 3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로 긴 표가 있  
습니다. 「한국의 대외무역 추이」라는 표  
인데, 여기 보시면 대미·대중·대일 등 2000  
년대 이후로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실적  
과 평균 증가율이 어느 정도이며, 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간단  
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대외 수출의 성장  
률이 연평균 11.6%였습니다. 반면에 대미  
수출은 2.8% 성장이고, 대중 수출은 23.7%  
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미국이 한  
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2000년대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았습  
니다. 완전히 중국이 이른바 한국의 성장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중국  
의 위상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것은 수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입  
의 세계 신장률에 있어서 12.1%였는데,  
대중 수입신장률은 25.6%였습니다. 그 결  
과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많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에 대해 살펴보면 22.1%, 수입에 있  
어서는 17.7%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른쪽에 2000년  
의 비중이 나와 있는데, 2000년에는 수출  
이 10.7%였는데, 2007년에는 22.1%가 되  
었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중국이 2000년  
에는 8.0%였는데 17.7%가 되었습니다. 그  
러니까 둘 다 엄청난 신장세를 보였습니  
다. 이와 같은 신장률의 차이로 인해 대  
중 수출입의 성장률은 더욱더 높아질 것  
으로 보며, 그러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은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  
일·대미의 비중은 어떻게 됐느냐? 상대적  
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한  
국의 무역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인들의 세계에 대한 눈이 중국으로 집

중되어 있고, 미국이나 일본의 위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22.1%, 수입 18.2%는 아직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상당히ダイナミック한 대중 무역의 발전 외에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대중 무역이 한국에서 보면 엄청난 달러박스라는 것입니다. 대중 수출입의 마지막 칸을 보십시오. 수지를 보시면 대중 무역에서는 계속 한국이 흑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대외무역 환경은 황금의 사각형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즉 대중무역흑자, 대미무역흑자, 거기에 대일무역적자 3자를 더해서 합계로는 흑자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대중 무역흑자의 신장률이 황금의 사각형을 받쳐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중 무역 활발화의 배경을 보면 대중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놀랐던 점은 2004년의 한국의 대중 투자는 62.5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그해 일본의 대중 투자는 54.5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는 대중 투자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한국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GDP가 일본의 15%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대중 투자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대중 무역 급증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기할 만 한 점은 중국의 수입 수요가 컸으며, 한국의 경쟁력이 생겼다는 것, 한국의 대중 투자의 활발화를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중 수출의 40%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 수출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

습니다만, 이렇듯 투자와 수출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급격한 대중 치중은 빛과 동시에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아까도 여러분께서 표를 보셨지만, 이 기간 동안 대미 무역의 신장률이 2.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3.7%였습니다. 대중 수출이 늘어남으로써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하에서 내수, 즉 소비나 국내 투자와 같은 부분이 상당히 침체했었지만, 그것을 수출로 커버했습니다. 그 수출은 대중 수출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무역의 대폭적인 흑자가 한국에게는 아주 괜찮은 대외여건을 제공했습니다. 즉 황금의 사각형을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밝은 빛의 부분입니다.

반면 그림자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겠느냐?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몇 가지 그림자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상징적인 것인데, 중국 쇼크가 있었습니다. 2004년 5월에 발생한 쇼크가 있었습니다. 4월 28일이었던 것 같은데, 원자바오 총리의 경기 과열과 관련한 긴축 정책 필요성을 발언했습니다. 이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의 주가가 폭락하였습니다. 그때 원유가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상설이 나돌다 보니 이런 것과 얽혀,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했고, 그 결과 한국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얼마나 주가가 폭락했느냐 하면, 시가총액으로 거의 90조 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GDP 규모로 환산하면 12.4%라는 엄청난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조선일보 5월 5일자 기사였는데, 골드만삭스의 아주 재미있는 내용의 리포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내수 증가율이 1% 올라가면 그 주변국가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통계였습니다. 이 리포트에 의하면 중국의 내수 증가율 1%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2.7%이고, 대만은 2.5%, 싱가포르 1.6%, 일본은 1.4%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변 국가 중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은 그만큼 중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만과의 관계보다 한국과 중국이 더 밀접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대단히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2003년부터 대중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 대중 수출 증가율을 연평균 45.7%로 한국의 2배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만은 지금 계속 대륙 쪽(중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 수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중 무역의 신장뿐 아니라 대중 투자의 활발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뿌리째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한국의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라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지나친 대중 편중에 대해서도 한국 국내에서도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왜 한미 FTA를 체결하려고 했느냐, 반미 자주외교를 펼쳤던 대통령이 왜 한미 FTA를 체결하려고 했는지 저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속 추진해서 그 역시 한국이 대중 무역에서 균형을 이루려면 대미 관계의 균형을 강화해 미국으로부터 기술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런 것이 FTA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쓰여진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

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황금의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표 맨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 맨 아래를 보시면 'a+b+c=' 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미 무역흑자, 대중 무역흑자, 대일 무역적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계속 흑자가 계속되었는데, 2007년이 되면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과거에는 흑자이면서 흑자가 남아돌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갑자기 적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현상인지가 중요합니다. 결론은 구조적인 것입니다. 즉 앞으로도 적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 무역흑자의 감소와 대일 무역적자의 확대입니다. 이 두 측면에서 황금의 사각형이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대중 흑자 감소 원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율이 높아났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던 것을 중국 국산품으로 대체시켜 나가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00년 이후 형성되었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바람직한 대외관계의 틀이 이로 말미암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분들의 상황 인식도 상당히 우려하는 색채가 짙어졌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이견희 삼성 회장의 「샌드위치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일본과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는 이론으로, 한국이 놓여 있는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 발언을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 때 저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司會 : 그럼 다음으로 무라카미 마사아키 선생님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발표시간은 15분입니다.

## ② 『韓日の 均衡있는 貿易擴大에 대해서』

村上 雅章

(MURAKAMI Masaaki)

韓國三井物産(株)

代表理事 社長

兼 서울재팬클럽 理事長



서울재팬클럽(Seoul Japan Club)의 개인 멤버가 총 1800명이 있고, 35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의 감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300억 달러의 무역역조, 부품소재 문제, 투자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일한간의 균형 잡힌 무역 확대라는 테마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싶고, 제가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일한 양국 간의 무역뿐만이 아닌,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글로벌한 일한 무역의 실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을 포함하는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기업과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커다란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

으로서 저희 일한만의 무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널리 세계 시장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정확한 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전망에는 커다란 미래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일본에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의식으로서는 한국 속에서만 일한다는 의식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 기업도 한국 기업도 모두 다 아시아 속에서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는 산업의 수평·수직을 포함해서 분업이 되어 있고, 모든 형태로 산업구조가 글로벌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써 우리로서는 한국에 있지만 비즈니스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과 나아가 러시아까지 포함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기업이 세계에 어느 정도 진출해 있는가를 보면 세계 TOP 기술을 자랑하는 디지털 가전 미디어를 지탱하는 LG 전자나 삼성, 자동차산업을 지탱하는 플라스틱, 특수필름, 유리, 스미토모 화학 같은 예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품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스미토모, 미츠비시, 미츠이, 도레이, 아사히 가라스를 포함해서 거의 각 분야 풀 라인으로 부품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한 협력관계도 상당히 일체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실감이 듭니다. 통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상사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일간의 거래는 약 30%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한국의 일류상품, 훌륭한 기술을 갖춘 상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기업

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한국제품을 수출한다, 그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예상하기에 그 금액은 5000억 엔 정도가 될 것이고, 엔지니어링 관련 제품을 포함하면 1조 5000억 엔에서 2조 엔 정도로, 아주 커다란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제품의 수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철도 차량·석유화학, 철강제품 등은 일본제품과 똑같이 상당히 기술력이 높은 제품이 많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통용되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일한 양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링은 이미 세계의 정상급입니다. 정상급을 넘어서 일본을 완전히 추월한 분야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저께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63억 달러의 쿠웨이트의 정유 플랜트를 한국의 4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의 기업과 GS가 협력해서 40억 달러의 정유소를 건설하는 상당히 커다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카타르에 프로젝트를 현대건설과 40억 달러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멕시코에도 삼성과 같이 터미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합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 진출해 있는 기업과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일본계 기업, 한국계 엔지니어링 회사의 현재의 금액은 아마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금액은 일본과 한국의 기업이 같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실은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실은 한국 사회·산업계에 있어서 일본계 기업들은 상당히 일체감을 가지고 산업화에

많이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리적인 개념과 경제규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도 상당히 가깝지만, 주변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좀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일본도 한국에 대해 좀 더 중요시하고, 한국과 일본이 일체가 되어서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의 동북3성, 이미 몽골이 자원이 많이 있고, 러시아의 바이칼호부터 동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서쪽(발해만), 중국에서도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대련·천진·연태, 그 바로 앞 인천항의 중요도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측에서 상당히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물류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에 보답하는 것처럼 싱가포르 정부, 미국의 자본도 이곳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주시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취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고야·오사카·고베보다도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산항의 역할이 그야말로 동해의 바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연해주·동시베리아·중국 동북지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큐슈는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발전의 Hot Spot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37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데, 큐슈에서만 100만 대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중국 동북지구, 천진에서도 300만 대를 생산하면 합쳐 1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큐슈, 한국,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를 하나의 축으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중요하고, 발해만·동해를 연결하고, 그 가운데 위치하는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계도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역조뿐만 아니라 제3국, 동북아시아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은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한국측 세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측의 발표가 두 분다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과 일본, 그러한 구도 속에서 일한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자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측 발표가 있습니다. 임천석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 (3) 韓國側 發表

#### ① 『韓日間 貿易不均衡 原因과 改善方案』

任 千 錫

建國大學校 商經大學  
貿易學科 教授



저는 제2세션의 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의 임천석이라고 합니다. 40년이라는 전통 있는 한일경제인회의에 발표자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한일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과 개선 방안」입니다. 제 발표에서는 한일 무역현황과 무역불균형 원인, 한국에서 최근 한일 무역불균형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한일 무역 불균형 및 대일 관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안인 무역불균형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간 무역은 2007년 합계 8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중 무역, 일중 무역에 비하면 한일 무역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한중·일중무역의 증가속도에 비해서는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는 2007년 약 300억 달러의 적자에 달하였습니다. 저는 무역 불균형 문제 못지않게 한일 간 무역이 상대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는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과의 비즈니스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또 한국은 다른 시장에 비해 일본시장에 활발

하게 진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기 때 문입니다. 다음으로 무역불균형 원인입니 다만, 한일 무역불균형은 기본적으로 한국 대일 수입유발적인 수출산업구조와 대 일 수입에 크게 못 미치는 대일 수출규모 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일 수입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봐주시고, 저는 특히 한국의 대일 수출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수입은 전통적으로 제품의 비중이 낮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품 수입, 특히 기계기기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소위 기업 내 무역에 의한 대중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시장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경쟁력을 가진 일본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기업의 업계에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하청계열관계도 외국 기업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쉽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례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인 자동차가 2007년에 약 285만 대 수출되었는데, 일본에는 약 1200대 수출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도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는 한일 무역불균형에 대해서 대략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대일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 상품의 수입확대나 대한 기술 이전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수지 측면에서 보다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부품소재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부품소재의 지나친 해외의존을 문제시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대일관계, 앞으로의 대일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까지는 한국의 급속한 수출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이 차선택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지지해 주는 주요요인이었습니다. 국산기계나 소재 부품산업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동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빨라지는 IT 분야 중에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점이 대일 수입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과의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일본으로부터 자본재·중간재 수입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수요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일본의 부품소재 관련 유력기업의 대한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이 대일 수입과 일본산업 유치를 함께 묶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일 무역불균형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또 현재도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FTA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일 FTA의 논의는 상당히 빨리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한일 FTA는 양국 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규모의 경제효과, 그리고 일본의 대한 투자 촉진을 할 수가 있고, 한일 간 기업 내 무역 촉진을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FTA 실현은 일본의 기계 소

재부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이라든가 양국의 기준 인증제도, 상호 인증으로 인해 수입이 간소화됨으로써 가격의 인하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한·중·일+3, 한·중·일+6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일 FTA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한·중·일+3, 한·중·일+6 논의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체결했고, 한중 FTA도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내에서는 한일 FTA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먼 상태입니다. 이 기회에 일본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무역 불균형 확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향적으로 고려해서 한국을 포용하는 FTA 정책을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본에도 이익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많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점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사실 한국은 일본 기업에게 한국을, 중국 및 동북아시아 비즈니스에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 서해안 지역, 소위 환황해권 자유무역지역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진해·광양만 등 한국 남부와 일본 서남부를 연결하는 광역 통제권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은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서 이용할 수 있고, 한국은 일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통과 물류 등 서비스 기능을 고려한 무역지역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와의 FTA나 중국과의 FTA도 한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키고, 한국을 좀 더 매력적인 장소로 만든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추진

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구미를 아우르는 글로벌 인력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청년 교류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일본 시장 진출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의 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 등 개도국의 급격한 출현에 직면해서 선진국 시장의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은 지금까지 어렵다고 생각해 온 일본 시장 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제 발표 자료에서 세 기업의 대일 수출 성공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어느 것이나 진출에는 시간이 걸렸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 성공은 한국보다 5배, 혹은 10배가 큰 시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기술 축적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금병주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② 『韓日間 部品素材産業の 交易實態와 協力 方案』

琴 秉 周

(株)WOOSUNG I&C  
社長



제가 이 테마를 가지고 의뢰를 받고 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일 경제인 회의가 벌써 40년이 되었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관여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일 간 경제 회의가 있거나 양국의 어떤 정상회담같은 자리가 있으면 대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한일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그 중에서 특히 나오는 게 부품소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고,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 무엇을 요구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지 등 이것이 제가 10년 전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했을 때나 지금 현재나, 물론 거기에 따른 방향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어제 두 분께서 기념강연을 하시고, 오늘 제1세션에서 네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대일 무역수지 적자, 부품소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일본측에서는 일본 무역협회 회장님은 FTA(일본은 독창적으로 EPA라고 합니다만)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본측에서 발표하신 분들은 대개 한일 간 FTA를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 또한 공교롭게도 부품소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LG상사 사장을 하고, 1970년대에 우리가 TV를 만들고,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에 컬러 TV를 만들면서, 그간의 역사를 보면 한일 간의 부품소재에 대한 역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 1970년대는 제가 일본에서 라디오 진공관을 수입하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계·부품이라는 것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흑백 컬러의 브라운관, 이것도 일본에서 가져 오려고 시도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칼라TV에 들어가는 원자재와 부품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반도체의 시대였습니다. 직접 제가 핸들링도 해 보고 했습니다. 캐논과 니콘, 소니의 배터리, 산요도 배터리를 사기도 했습니다. 최근 1990년대 말에 와서 LCD 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LCD에 들어가는 편광판, 필름 등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후지필름이 LCD에 들어가는 거의 80~8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품소재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또 앞으로도 한국의 수출이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역수지 적자와 부품소재의 수입은 더 늘어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혹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4월 10일자 한국의 조선일보에 기고된, 현재 와세다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의 글이 있습니다. 「대일 무역 관련 적자 고정관념을 깨라」라는 글을 몇 번을 읽어 보았습니다. 대일무역 적자 문제의 본질은 상당히 칼럼의 내용으로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 문제의 본질은 거시경제도, 미세 기술 격

차 문제도, 중소기업의 문제도 아니고, 금리 등 개개의 기술력에서 한국이 충분히 그런 수준이 된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의 국내 생산이 없는 부분 등 또 한국, 한국인, 한국기업만이 할 수 있는 독창성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결론을 내린 기사를 제가 유심히 읽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경제논리에서 보면 정치적이거나 지리적 여건이나 노동환경에서 볼 때 항상 한국에 투자를 하라고 하며 이런 회의를 많이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부품소재에 대해 협력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하나 언급해 드릴 것은, 한국의 부품소재 총 수출이 2001년도에는 약 620억 불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약 1000억 불을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2007년도 1690억 불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이와 연관해서 대일 무역에 관해서는 부품소재가 2001년도에 약 103억 불의 적자를 냈고, 2007년도에는 180억 불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무역적자, 특히 부품소재의 적자의 수입 사유가 어디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금속소재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자동차와 조선 산업 등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이라든지, 특히 자동차의 강판, 조선에 들어가는 후판이 연간 600만 톤 정도 수입이 됩니다. 금속소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는 전기전자부품입니다. 국내 전기전자 산업 발전에 따라서 수요 확대와 특수 품목의 기술격차에 의한 대일 수입 의존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이것은 반도체 부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도쿄 일렉트로닉스나 동우화인켐이 국내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반도체 장비나 LCD 장비에

서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일반 소비제품이 원 대비 엔의 약세로 인해 2006~2007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1/4분기에 자동차 수입이라든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골프채 수입이 1/4분기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대일 무역수지 적자에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일본으로 한국의 부품을 많이 사달라고 하며 투자해 달라고 하는 요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한국의 부품소재의 산업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R&D 센터의 공동연구 방안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nly One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벌써 지났습니다. 지금은 차별화의 시대입니다. 서두에서 후카가와 교수의 말씀을 드렸지만, 4월 15일에 닌텐도의 이와타 사장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위(Wii)라는 새로운 제품을 한국에 소개하며 하시는 말씀이, 매일경제에 상당히 큰 기사를 쓰시면서 닌텐도의 기본 철학은 「독창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후카가와 교수가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또 이것이 오늘날 닌텐도를 있게 하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한국의 기업은 이제 더 이상의 기술 제후는 없습니다. 기술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는데, 누가 기술을 금방 주고, 합작을 쉽게 해주겠습니까? 그 다음은 M&A를 통한 규모 확대입니다. 부품 업체 중소기업이 한국에 40,000개인데,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세합니다. 그 다음 대를 잇는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가 한국 업체

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일 부품소재 협력방안」, 어제 한 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이 문제가 또 개진되었습니다. 이 협력방안의 전제로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신뢰성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 거래를 통한 신뢰성 확보 및 개발 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해야만 기술개발도 제대로 되고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일본 업체는 적어도 부품업체와 수요업체 간에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장기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기술을 개발하든지 제품을 만들 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국과 일본 업체가 교류했을 때 이러한 것이 처음부터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교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계약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모자라더라도 일본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 비행기 샅만큼은 적어도 부품이 없다고 해도 그 정도는 주는 것이 일본 기업들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미 업체에서는 일절 용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업체들이 일본에 부품을 많이 의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물론 장사를 하다보면 이익을 남겨야 하긴 하지만,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오르게 되면 여기 일본과 한국 업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일본사람들은 가격을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올리고, 정 안되면 양을 조금 줄여서 공급을 합니다.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올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 걸림돌이 손익의 문제인데, 한국도 총 위원장님께서 옆에 와 계시고 제 다음에 강

연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이 문제는 충분히 앞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협력 방안으로서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교류의 활성화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어제와 오늘 세션을 듣고 놀란 것은 고등학생들의 교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Step by Step으로 되어야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 간 경제인 회의를 통해 교류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구나 생각하여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술인력 교류 중에 한국측의 무역아카데미에서 IT 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부족한 것이 열처리, 도금 등 기반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인력 교류 인력의 확대입니다. 물론 이것이 3D 업종 중 하나가 돼서 저희도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Sector별로 기술 분야에 협조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일본 전문가의 파견 및 한국 내 취업 확대, 한국 기능 인력을 일본 내 연수 확대,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꼭 하나 이것만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 중에서 특히 공용화 및 표준화의 필요성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ISO나 IC 등의 국제 표준 관련법에 의해서 이 분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이것을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또 국제 시장 선점 및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의 표준화와 공용화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일 공용화를 위한 가칭 「표

준위원회』라든지, DB도 구축하고, 산업별 규격조사를 하는 등의 비교를 통해 가능성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품 소재 관련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측에서 오늘 여러분의 FTA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FTA의 하나의 전제조건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 간 또는 국민적 합의도 되어야 하겠지만, 부품이나 무역 적자가 이렇게 많아서는 FTA를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무역 장벽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FTA의 한 전제로 부품 특히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는 누구든지 하기는 어려운, 이 문제의 선결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노동조합총연맹의 장식춘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 ③ 『韓國 勞働者들의 優秀性을 믿고 投資해 주십시오』

張 錫 春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委員長



한일 경제인 회의에 한국의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이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 관계가 기업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일본에서 한국에 투자를 했을

때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약속의 의미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총연합회 단체인 한국노총 위원장 장식춘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조합도 사회의 책임 있는 경제주체라는 인식 하에 건전한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이어져 온 그 동안의 노사관행을 대화와 참여를 통한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하겠다는 새로운 운동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제가 오늘 한일경제인이 모이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도 이처럼 변화된 한국의 노동조합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해외에 잘못 알려진 한국의 노사관계의 실상을 여러분들께 직접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 여러분, 먼저 저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께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평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외국인이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의 홍보 부족이나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도 한몫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기업별 노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된 전체 기업별 5,889개 가운데 작년 한 해에 1.9%에 해당하는 112개 사업장에서만 노동쟁의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외국과 같이 국가 단위나 산별 단위의 파업이 아닌 기업 단위의 파업이며, 그 쟁의 건수도 매년 점차 줄어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노사관계에 있어서 파업은 노조의 최후의 수단일 뿐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

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행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노사협력과 산업평화는 확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오늘 회의가 한일 경제인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인 줄 압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외자 유치에 대해 한국노총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노총은 경기 침체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전한 산업자본의 한국 유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둘째, 한국 노동자들의 부지런함과 우수한 교육열, 자기계발 의욕, 회사와 동료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노동자들의 우수한 인적 자원은 투자매력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 기업을 운영한다면 엄청난 집중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투자해서 노사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노총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일본 산업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환영하며, 한국노총의 합리적인 노동운동 노선에 대한 한일 기업인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質疑應答 및 自由討論

座長 : 감사합니다. 간결하고 힘찬 주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섯 분 패널께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측 여러분의 분위기와 한국측 여러분의 주장의 톤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토의의 시발점으로써 일한 간의 산업 협력을 한다는 것과 국가와 국가 간 무역 통계상 무역 불균형은 일본과 한국의 산업 구조 차이를 생각한다면 실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 기업이 서로 분업하고 협조하면 할수록 일한 간 무역 역조가 확대된다는 구조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일본측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셨지만,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양국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측의 어느 분이랄도 좋습니다. 왜 일한·한일 간에 부품소재 차원에서의 거대한 불균형을 우리가 문제시해야 하는가?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이 미래에 상당한 실력을 갖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당분간은 일한 간 그러한 소재 부분에서 무역 역조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임 선생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任千錫 建國大學校 商經大學 貿易學科 教授 : 건국대학교의 임천석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속에 최근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오신 일본의 학자를 만났는데, 얘기의 화제가 한일 무역 적자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일 무역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



당히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결국 그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위해서 한국 기업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시하는 한국측의 태도가 문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상당히 강한 어조로 당신도 경제인이니까 한일 무역불균형을 문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나고 강하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의 주장에 대해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론을 그 선상에서는 제가 반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분의 말씀대로 한일 무역불균형의 원인은 한국의 산업화와 수출화 과정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불균형이 커지면 이를 균형으로 돌리려고 하는 본능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일 무역불균형이 한국의 선택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를 문제로 느끼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불균형이 일본 쪽에서는 그것이 왜 문제인가 하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것이 한일 FTA를 포함해서 현재 한일이 협력해 나가야 하는 가운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본측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한 제 소견입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座長** : 일본측이라도 좋습니다. 네, 금 선생님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후에 무라카미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선생님, 말씀하

시지요.

**琴秉周 (株)WOOSUNG I&C 社長** : 실제 경제적으로 들어가면 균형이 되어 있기 않기에 불균형이라고 말하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많이 들여와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반드시 숫자나 기술만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사이는 옛날 저희가 역사를 배울 때에 좋지 않은 것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라고 나서 일본에 와서 느낀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GDP 세계 2위를 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일 간 성숙이 참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GDP가 2위 아닙니까? 물론 저희 문제가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 업체들 서로는 부품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합작이 참 잘 됩니다. 대만의 LCD 반도체 등 이런 곳에 가 보면 일본하고는 참 협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네들은 일본과 협조가 이렇게 잘 되는지 제가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는 기업 간의 문화와 국가 간 역사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만과는 큰 문제없이 협조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기업 규모를 떠나서 감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발전하는데 일본의 부품소재가 공헌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이 적어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한국과 협조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자세로서 불균형(자꾸 불균형, 불균형 하니까 일본측에서는 들으시기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이 좀 개선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

리는 부분의 하나가 우리도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민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가 1500억 불인데, 그 중 부품소재가 1100억불 정도 됐습니다. 또 임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나중에 FTA를 6월에 본격적으로 재개했을 때에, 당연히 불균형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座長** : 문제의 뿌리가 양국의 역사나 정서적인 부분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무라카미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村上 雅章(MURAKAMI Masaaki) 韓國三井物産(株) 代表理事 社長** : 저의 답은 한국 산업의 장래, 특히 국가 전략적으로 제가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의견은 한국 산업의 단체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았을 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품소재라는 부분은 거의 미세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표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조선이나 IT 소위 말하는 디지털 산업 부분, 그리고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TOP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기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육성에 대한 축적이 일본이 앞서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의 하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

끼고 있는 것 중에 일본의 제조업,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내셔널리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과 장인기술에 대한 깊은 존경심, 이것이 한국 역사에서 과연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00년, 200년의 전통공예, 아주 약소한 기술을 키워서 그 기술이 전통에 입각해서 최종적으로 미세기술이, 예를 들어서 커다란 일본을 지탱하는 자동차라든지 첨단기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인이나 제조업에 대한 존경심 없이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계승되어서 지방에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키우고 육성해야 된다, 이것이 기술의 계승이 더욱더 깊어지고, 이것이 한국 산업계의 국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10년, 20년 후는 이것이 차기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지적재산권이 당연히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앞으로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너무나 대기업이 막강하고, 재벌의 리더십이 하나의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기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座長** : 기술에 대한 깊은 존경심, 이것은 한국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발전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한국이 중소기업의 층이 얇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중소기업 정책 심의를 4년 간 담당했었는데, 그 동안 법률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최대 법률은 중소기업의 도급·금

형·프레스·압연 등 중소기업의 기반기술을 지원하는 대규모 정책을 경제 산업성이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도요타, 후지필름 등이 국제적인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깊이가 없었으면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층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긴 역사를 한국에서는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관계의 협력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잠시 동안은 무역 불균형이 계속 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노조에 선생님 혹은 한국측 발표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野副 伸一(NOZOE Shinichi) 亞細亞大學아시아研究所 教授** : 방금 무라카미 선생님과 이타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자신도 업무 관계로 40년 동안 한국을 계속 지켜 봐 왔습니다. IMF 직후였습니다만, 한국의 아는 분을 찾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한일 무역 불균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때 그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30년 동안 병이 낫지 않으면 이것은 불치병이며, 50년이면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듯 한일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라카미 선생님과 이타미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국측의 관계자 여러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琴秉周 (株)WOOSUNG I&C 社長** : 저희가 자꾸 무역 불균형 시정을 하자는 것이 꼭 때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수출이라는 것이 일본 덕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IT 업종이나 지금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LNG 조성, 물론 미세한 설계 기술은 프랑스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능력이라든지, 일반 기계 등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가 너무 일본에 의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고, 또 그만큼 성장을 해 왔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무역규모 면에서 더 협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국측에서 무엇을 하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좀 더 전향적으로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동북아의 물류, 인적 교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일경제인 회의이기 때문에, 경제가 테마로 되어 있는 만큼 숫자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이 협조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자꾸 때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를 불식하시면 좋겠습니다.

**任千錫 建國大學校 商經大學 貿易學科 教授** :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의 임천석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정부가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한국의 TV 광고 속에 지금은 돌아가신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님이나 포항제

철을 만드신 박태준 회장님이 1960, 1970년대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조선소와 제철소를 건설하는 그 당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의 경우에 울산의 아무 것도 없는 벌판에 조선소를 건설한다며 지도 한 장을 들고 세계 각국의 선박 수주 메이커를 돌아다니면서, 혹은 세계은행을 찾아다니며 용자를 부탁하고 출발했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4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한국도 곳곳에 공업화가 진행되어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40년 전에 아무 것도 없는 빈손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그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잘 실감할 수 없습니다만, 그 광경을 보면 눈물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100년 이상의 공업화 경험이 있고, 더 그 위로 올라가보면 에도시대부터도 상당한 공업화의 집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균형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을 향해서보다는 한국의 기업인이나 젊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때때로 이 얘기가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친일적으로 비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는 조심해서 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 계시는 경제인 여러분들은 아마 그 부분은 감안하실 것이고, 얼핏 듣기에는 한국분들이 일본측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어떻게 하면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의 수준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쫓아갈 수 있

을가에 대해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 계신 분들이 조금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불균형 문제를 무역수지 문제로서 봤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산업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봅니다. 또한 이것은 요구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경제적인 순리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座長** :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분들이 때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이 정신에서는 한일 간에는 그야말로 불균형이지요. 기업이 정신이 넘쳐나는 것이 한국 기업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산업구조 전체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층이 일본은 두껍고,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 우리는 한일 협력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말만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좀 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을 패널들께 부탁드립니다. 패널 여러분 중 한 분 얘기만 더 듣고 나서 장내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일 간에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한일 협력, 패널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의 지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野副 伸一(NOZOE Shinichi) 亞細亞大學아시아研究所 教授** :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아서 마지막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

드렸는데, 이 무역 불균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보다는 더 장기적 안목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재 양성, 특히 IT 기술자의 양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중 젊은 세대들의 실업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일손이 부족합니다. 특히 IT 분야에서 기술자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대규모로 일본으로 IT 분야의 젊은 기술자를 데려오는 것은 일석이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한일 양국에서 장기적 프로젝트로서 추진한다면 좋겠다는 것을 아까 제 발표 때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배운 한국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또 여러 가지 힘이 될 것이고, 한일 관계에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IT 기술자들 중에 외국인 기술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는 2만에서 5만 명 정도이며, 중국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5천 명 정도입니다. 해외는 5만 명 정도인데, 대부분이 중국 사람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인은 일본의 IT 기술자로서 안성맞춤이고,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 기술자가 좀 더 많아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아웃소싱 분야에서 중국인은 임금이 싸입니다. 또 중국인은 임금이 짼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충격적인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한국

인보다 중국인이 뛰어나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나 하면 한자실력이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한자를 거의 모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를 쓸 때도 적절한 일본어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계속 튕겨져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IT = 영어 실력」이라고 말하며 영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시책인데, 동시에 한국은 한자 실력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한자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조차 느끼게 됩니다. 즉, IT 기술의 교육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부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그 밖에 다른 분?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村上 雅章(MURAKAMI Masaaki) 韓國三井物産(주) 代表理事 社長** :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인재교육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꼭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일본은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이지마 회장님께서 한국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와야 합니다. 특히 최근의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의 중견 기업을 인수하셨습니다. 일본의 높은 기

술을 샀는데, 인재와 자본의 부족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찬스입니다. 이러한 일본 기업의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 중에 외국에 헬프 사인을 보내는 곳이 있으면 한국에 알려져 매칭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재 문제입니다. 일본 기업에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다섯 가지 면이 한국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압도적인 돌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높은 교육수준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초일류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학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영어와 일본어는 물론이고, 그 외의 어학실력 또한 놀랍습니다. 이것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인들과 일하면서 항상 어학실력에 놀랍니다. 또 하나 해외지향성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4,800만 명이지요. 그 중 600~70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은 윤리의식이 높습니다. 대졸 혹은 대졸 직전 남자는 군대에 다녀오는데, 군대에서 강력한 윤리 의식이 함양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국 젊은이들은 지금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일본에 계신 여러분께 이웃 나라에 우수한 인재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座長** : 그럼 한국측 패널 여러분들 중에서 한일 간의 협력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말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琴秉周 (株)WOOSUNG I&C 社長** : 무라카미 사장님께서 워낙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별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만, 다 알고 계시지만 한국 사람들이 조금 급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이 저희를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데, 오전 세션에서 나왔습시다만, 제일 좋은 것은 길게 보고 청소년 교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KOTRA 등 여러 기관 등 창구를 일원화해서 양쪽에 산업연수원 등 좀 더 체계적인 산업연수 교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그럼 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任千錫 建國大學校 商經大學 貿易學科 教授** : 아까 아침에도 한일 간 기술협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과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기본적인 산업분야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후계자를 구하기 어렵다거나, 3D 업종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산업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상당히 서로 쇠퇴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높은 차원의 하이테크도 필요하지만, 저변에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재계가 같이 힘을 모아 공동의 학교를 만드는 등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고, 이런 인력을 배출시켜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한국의 기업에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쳐 보면 참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에서는 지금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학교 수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시간이 나면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일에도 등한시하고, 또 대학에 들어왔을 때 완성된 성인으로서 예의나 사고가 부족해서 이걸 어디서 다시 가르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공 수업에서도 때때로 그런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상당히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 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발언을 하면서 예절이나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매체를 통해서나 대학에 오셔서 강연도 해 주시고 해서 현재 가정이나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평소에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座長 :** 가정교육 문제는 일본에서도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자꾸 공부만 하라고 하는 면에서는 한국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張錫春 韓國勞動組合總聯盟 委員長 :**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인적 자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인들은 유능하고, 제가 봤을 때 인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한국 사람들의 애사심이

대단합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노동조합에서 나와서 회사 물건을 팔고, 또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과 납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등 노조에서 그런 역할도 합니다. 노동조합이 나서서 소비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해 R&D 쪽에 정보를 줘서 소비자의 욕구를 최대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한국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한국의 노동 운동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국민들도 투쟁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식상해 하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이제는 변화가 왔습니다. 한국에 우수한 노조도 있으니까 마음 놓고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장에서 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손을 드신 분, 되도록 일본측과 한국측이 평등하게 하고 싶습니다.

**張世豐 韓國(株)Lost-Wax 代表理事 :** 저는 한국 로스트왁스 대표이사이고, 한국 소리마치 대표이사입니다. 이 두 회사는 일본의 자본이 들어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무라카미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왜 감사를 느끼느냐 하면 한번 물어 볼게요. 앞의 세 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활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론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백 수십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아까 무라카미 사장님께서 한국은 기술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속활자를 제일 먼저 만든 선조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있으면 한국에서 오신 분 중에서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오. 없어요. 몰라요. 왜? 기술자를 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고려 고종 서기 1234년에 만들었습니다. 청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나아질 것입니다. 믿습니다. 또 무라카미 사장님도 이제 믿어 주세요. 사회보시는 분들 한국노총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일본 회사와 합작을 해서 손해를 주지 않는 회사가 되니까, 1979년도에 회사를 만들어 잘 나가니까 일본 경제 신문에서 『일본 기업이 해외진출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분 한 분이 자기도 한국에 나가고 싶다고 하며, 그 이유가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가 1987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장 위원장님 한국 인건비가 비싸요.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역 적자를 이루고 있는 속에서 나라 측에서는 사정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본에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머리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무역 균형을 위해서는 머리만 쓰지 말고 마음도 써주신다면 한일 관계가 원만하리라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座長** : 그럼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분, 말씀 해주십시오.

**柴田 光慈(SHIBATA Koji) 丸紅韓國會社 社長** : 마루베니 상사에서 한국에 투자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는 무역의 흑자라는 것을 만들려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국 간의 거래를 통해서 서로가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그러한 마음뿐입니다. 일본에 수출할 때 상품요구가 상당히 까다롭고 수출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전 세

계를 향해 나갈 때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면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 몇 년 전부터 상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보다 소득수지가 늘고 있습니다. 즉, 무역보다 해외투자 이익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이 그렇듯 개별 기업이 그러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기업과 같이 세계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이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쓰이 물산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계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노동문제나 IT 기술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즉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진출하느냐, 이것이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座長** : 그것도 좋지요. 다음 분 말씀해 주십시오.

**金珍鉉 (株)曉星 顧問** : 오늘 아까 모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한일 양국 간의 균형이 문제인지, 불균형을 문제 삼는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이고 불균형이고, 결과는 이루어진 교역의 총 결산에 불과합니다. 한일과 일본 사이에 이뤄진 모든 교역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사고 싶은 사람이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이 파는 결과로 이루어진 교역이기 때문에 그 교역자체는 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뜻이 있는 교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까



닭이 있는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이 있으셨지만, 한일 간 무역은 물건은 있으나 양국 모두의 신장에 대해서 속도가 다르고, 따라서 우리 양국 간 무역 규모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정말 이루어져야 할 교역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 발언의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아침 사이에 우리 두 나라가 한나라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과연 얼마만큼의 인적과 기타의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무역과 교역의 패턴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한국에서 사 오고, 이것은 일본에서 사 온다는 것은 모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좀 더 경제적인 교역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일 양국의 지금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교역을 발굴해서 양국의 교역을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균형도 찾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리액션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뒤에서 손을 드셨던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高杉 暢也(TAKASUGI Nobuya) 韓國富士ゼロックス(株) 最高顧問** : 한국 후지제록스의 다카스기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10년에 걸쳐 일본계 기업을 경영해 온 경험이 있고, 40회의 경제인 회의 중 8번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인데요, 어제 오늘 논의되었습시다만, 제가 8번 참석해도 그때마다 한일 FTA를 체결하자는 것이 공동성명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왜 실

현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300억 불의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키워드는 「투자」,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지금까지도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해서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지원을 해서 JAPAN DESK가 만들어져 활동을 해왔는데, JETRA와 KOTRA도 중소기업에 매칭해서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논의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되어 새로운 비즈니스-프렌들리(Business-Friendly)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한일경제인회의 밑에 신산업무역회의가 있어서 어제 아소 선생님과 허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천하자는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점과 점이 이어져 선으로, 선이 이어져 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회자인 이타미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이지마 회장님, 그리고 조석래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일·일한경제협회가 주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역시 「투자」,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세 가지 문제점은 전체 중 하나의 해결책이기는 한데, 어제 논의에서도 한국측에서 한일 기업 간 협력의 강화, 중소기업 공동연구의 개발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중소기업 문제와 부품소재 문제는 일본측

과 한국측에도 각각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니즈와 니즈를 조율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안 속에도 있었습니다만, 『One Stop Service for 중소기업 또는 부품소재』라는 Institute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양협회가 제안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일한경제협회·산업기술재단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긴 한데, 그러나 Face to Face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각각 니즈와 니즈를 조율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씩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한꺼번에, 순식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논의를 들어도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해결책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그러한 싹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으로 만드는 것은 올 6월에 실무자회의(과장급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회의를 총괄해서 거기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논의를 하계끔 해서 한일 FTA는 말뿐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실천시키기 위해 한일 FTA를 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座長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맨 끝에 앉아 계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金都亨 啓明大學校 國際學大學 日本學科 教授 : 고맙습니다. 무역 불균형 문제를 최근에 제기하면서 일본측의 학자와

경제계로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금 전 다카스기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FTA라는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총력을 집결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300억 달러라고 하는 적자문제에 대해서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1993년에 한일경제인포럼을 통해서 무역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일단 낙착을 봤습니다. 부품산업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60~70%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것으로 논의가 거의 종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이 중국 진출을 통해서 대중 무역흑자가 누적되면서 전체적으로 흑자가 쌓여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대일 무역적자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흑자를 보면 됐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조에 선생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대중 흑자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그 대신 대일 적자는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일 FTA가 본 협상에 들어가서 실시가 될 때쯤 되면 결국 대일 적자가 GDP나 무역의 전체 양에 비해서 우리가 국민경제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경제인회의라는 것은 결국 경제 전체의 상황을 공유하고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장으로 생각한다면 이 문제 제기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양측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300억 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전의 무역적자를 문제시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무역불균형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런 장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역 불균형이란 결국 무역과 투자

의 불균형 현상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저축에 비해 투자가 너무 왕성합니다. 일본은 그 대신 내수가 부족해서 저축은 많고 투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축소 균형으로 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투자율을 좀 줄이고, 일본은 투자율을 인상하면 무역 불균형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대 균형을 지향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입을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중소 부품산업의 인력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한국 현장에도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의 경제회복이란 것이 보면 대중·대미 수출을 통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대외 의존적인 경제회복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을 내수 확대 쪽으로 돌린다면 다소 무역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역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속에서도 다행히도 앞서 무라카미 사장님도 지적하셨지만,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노력에 의해서 현재 조달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내 분업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일 FTA를 위해서 좀 더 의견을 집약해가는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니깐 그걸 또 얘기한다고 하며 한국측을 비난하는 이런 분위기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 (5) 座長 總括

座長 :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패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경을 초월한 산업협력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아주 깊은 어려움입니다. 산업협력이 발전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누군가가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품이 흘러가게 됩니다. 국경을 초월한 부분에서 무역 통계를 취하게 되면 불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숫자가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한국 분들이 마음·감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일본사람들은 비즈니스의 합리성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휘 구사의 차이를 느꼈지만, 양쪽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감정의 문제가 배경에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논의를 해도 그것이 감정적인 논쟁으로 발전하기 쉬운 문제를 일한 FTA 문제와 무역 불균형 문제는 그 뿌리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감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은 양자 간 문제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동북아를 겨냥하고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함께 발전한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는 한 장래적인 발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호혜적인 시나리오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패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벌써 시간이 5분 초과되었기에 일단 여기서 제2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2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시는 이타미 히로유키 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에 참석하신 강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동안 Coffee Break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정각부터 폐회식을 갖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폐회식에서 소개해 드릴 공동성명 안을 배부하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ffee Break (共同聲明(案) 配布)>

## 6. 閉 會 式

### (1) 共同聲明 採擇

司會【武澤 泰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以下同一】 : 지금부터 폐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폐회식의 진행은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團長 : 여러분, 이틀에 걸쳐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폐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0회를 맞이한 일한·한일 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 안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국 단장단께서 공동성명 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武澤 泰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許 南 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

공동성명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08년 5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일본국 치바현 우라야스시에서..... (이하 생략, 공동성명 전문은 본 보고서 II항에 기재)



飯島 英胤 團長 : 이상의 공동성명 안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조석래 회장님 어떠십니까?

趙錫來 團長 : 일본판하고 한국판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있는데, 하나는 2번에 한국측에서는 「경제제휴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인데, 여기는 「경제제휴 강화를 위한 대화의 츠미카사네(積み重ね)」, 「츠미카사네(積み重ね)와 지속적이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느 쪽이든지 괜찮은데, (일본어로) 일본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번에 「한일 경제인에 의한 무역 투자 등의 경제제휴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번역이 한국의 번역에서는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어로는 「대화의 축적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許南整 專務理事 : 관계없을 것 같다고 사무국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趙錫來 團長 : 또 하나, 일본측에서는 마지막 5번에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FTA/EPA 교섭 재개와 조기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에 양국 경제인이 상호 협력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양국 경제인이 협력하겠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지?

여러분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별 의의가 없으시면 그냥 합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는데, 문제가 된다면 서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飯島 英胤 團長 : 네, 이상 양국의 언어로 공동성명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장내에 계신 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석래 회장님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이 원안대로 승인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진행은 사무국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폐회사를 조석래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그럼 양국 회장님의 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측의 조석래 회장님께 폐회사를 부탁드립니다.

## (2) 團長人事

趙 錫 來  
韓國側 代表團 團長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어느 회의보다도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골고롭게 생각하고 있던 무역 역조 문제나 기술 협력 문제, 중소기업 육성 문제, 투자 문제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적인 대화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좋은 대화의 결과를 어떻게 실천에 옮겨서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우리 양국의 경제 협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경제로 가도록 우리 양국 경제인들이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가진 후에 얻어지는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주신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측의 일한경제협회와 일본측 참가자 여러분에게 한국측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국

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뵈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늦게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대한 폐회식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司會** : 조석래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이어서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 폐회사를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IIJIMA Hidetane)**

**日本側 代表團 團長**



이틀간에 걸쳐서 열  
면 토의를 해 주신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실은 이번 회의의 테마를 선정한 시기가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조석래 회장님과 저 둘이서 「앞으로의 일한·한일 경제교류, 인적 교류를 더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정면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는 무역 문제, 투자 문제, 기술 개발력 교류의 문제, 인재 양성의 문제에 대해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테마를 다루었습니다. 발표를 하신 여러분들도 매우 준비를 잘 해주셨고, 또한 사회를 맡아 주셨던 두 분의 교수님도 그야말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중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진솔한 논의가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성명 안을 말씀드리고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전진해서 내년에 한국의 한일경제협회가 주최하는 경제인회의에서는 보다 많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열면 토의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멀리

한국으로부터 일본을 찾아주신 경제인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본에 오시면서 전날과는 확 다르게 5월의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사무국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노고가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호텔의 회의장 레이아웃부터 요리를 맡아 주신 호텔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

### (3) 閉 會

**司會** : 이이지마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일한·한일 경제인회의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회의 통역을 해주신 최은주씨, 박희씨 그리고 나가토모씨, 세 분께 성대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금번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틀 동안 진행된 제40회 경제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양국 단장님의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시 30분부터 30분 동안 2층 「Akemi」라고 하는 Room에서 공동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경제인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때 다시 만나 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

## <청간지>





## VII. 兩國團長 共同記者會見



**司會【武澤 泰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以下同一】**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장에 나와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양측 경제협회의 단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본측의 이이지마 회장님, 한국측의 조석래 회장님 아까 소개드렸습니다. 먼저 이이지마 회장님으로부터 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飯島 英胤(IIJIMA Hidetane) 日本側 代表團 團長** :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일을 위한 경제인 회의가 제40회가 되겠습니다. 과거 이 회의의 개최 자체가 위협받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없지 않았었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40년간에 걸쳐서 꼭 개최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질력에 의한 그러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양측 대표끼리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번 회의만은 추상론이나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의논이 아니라 한일간에 많이 놓아져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향후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으로 해야겠다. 라고해서 양국의 경제교류 문제, 인재육성문제 그러한 공통된 문제 중에서 기술 개발력의 강화든지 현재 299억

불에 달하고 있는 무역 불균형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것 없이 솔직하게 논의를 하자 그런 방식으로 합의를 보고 이번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정말로 우리가 솔직하고 본심으로 토의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토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도 나눠 드렸습니다만,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과거 언제보다 실천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하고 서로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될 것이고, 한일 양국이 서로가 협조를 하면서 교류를 확대하면서 전진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司會** :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돼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석래 회장님으로부터 말씀 있겠습니다.

**趙錫來 韓國側 代表團 團長** : 우선 양국의 보도진한테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이이지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틀간에

양국 300명이 모여서 회의를 아주 진지하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아주 알찬 결실을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여기서는 정부가 비즈니스-프렌들리 한 정부로서, 앞으로 정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비즈니스-프렌들리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경제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회의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참가한 경제인들이 무역역조의 확대 문제라든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든지,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기술 협력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한 것에 대해 상호인정을 하면서 양쪽에 투자 확대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그러한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이지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동성명에 다 나타나있습니다마는 양쪽에 모든 분야에서 서로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그렇게 양국 경제인들이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는 한층 더 강화된 그런 관계로서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진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아 그럼 여러분으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먼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質問者** : 동양전자신문입니다. 이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飯島 英胤 團長** :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조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1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일을 하시고 정상회담을 가지셨습니다. 그 때 대통령께서 하시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일한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후쿠다 총리가 예방했을 때도 후쿠다 총리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역사대로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는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표면적인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솔직하고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주문도 하고 대처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찬 회장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처칠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과거와 싸우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미래는

없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너무 과거에만 집착을 하면 우리 한일 일한 간에는 미래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서로의 문제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서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고 해야 할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각국의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처해나가고자 하는 기초가 이번 회의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趙錫來 團長 :**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회의에서 얻은 것은 방금 이이지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분위기나 솔직한, 본심으로 얘기한 것은 그전 회의보다는 훨씬 진일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이지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100% 동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양국의 경제인들은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가 나타나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양국간에 아주 밝은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하나의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정부가 우리 양국의 경제인들에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부가 된다는 것, 이것을 양쪽에서 서로 인정을 하고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되어졌고 그것에 따라서 일본측에서 한국의 투

자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투자기회가 많이 늘어난다 하는 것에 대해 서로 인식을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일 관계에 무역 역조가 더 이상 확대되면 서로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가급적 균형이 되도록 상호간에 협력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 것 이것이 큰 수확입니다.

또한 그런 무역 역조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양국간에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협력이라든지 혹은 또 무역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균형을 잡는다. 라든지 이런 것이 큰 수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는 에너지, 또는 환경 분야에서 서로에 협력을 하면서 기술협력을 하고 지구 전역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質問者 :** 조석래 회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공동성명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한일FTA체결 문제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의 경제계에서 한일FTA 체결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고, 전에 노무현 정권 아래서는 이러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라든지 특히 농업 문제 때문에 교섭이 중단되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부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라고 하고는 있지만 아까도 언급이 있었던 300억불의 무역 역조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한국 경제계 내에서 이 무역 역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FTA의 체결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FTA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

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趙錫來 團長 : 지금 한일FTA의 한국측의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우리 경제인은 무역 자유화를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역 자유화 자체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다준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은 덕을 보는데 어느 한쪽은 루즈한다. 손해를 본다. 그런 관계로서는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인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당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300억불 가까운 무역 역조를 해결해야만 그러면 FTA를 할거냐?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가 협력해서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간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양쪽에서 확대 균형적으로 혹은 또는 자유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역·무역을 하는데 장벽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술협력을 많이 논의하고 그러한 것이 원활하게 된다면 한일FTA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그 한일간의 FTA를 한다고 했었을 때에 한일 양측은 아주 하이레벨의 모범적인 그런 FTA를 하자고 서로 제안을 했고 거기에 양쪽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FTA가 훨씬 확대해서 만약에 이게 동아시아에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핵이 되고 기초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

라는 모습이다. 라고 양쪽 경제인들이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양쪽 교섭이 시작이 됐는데 양쪽 교섭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서로가 알게 된 것은 한국에서는 공산품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율의 개방을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본측에서는 농수산물에서 대해서 개방도를 그렇게 높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은 한국측 교섭하는 당국자로서는 본국에 돌아가서 농수산물은 그렇게 높은 개방을 못하고 공산품에서 대해서만 높은 개방을 한다고 하면 역시 현재 생기고 있는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해소라든지 또는 양국에 교역조건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일시적으로 교섭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수산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일간에 농수산물 무역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금액이 약 1억 3,000만불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국의 교역내용이 8백28억불 그 안에서의 1억 3,000만불 그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한국측 경제계의 바람입니다.

조금 숫자를 제가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13억불입니다. 1억3,000만불이 아니라 13억불입니다. 그 13억 중에서 실제로 수산물은 약 2억 5,000만불이고 나머지 물건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소주라든지 혹은 농산물의 가공된 가공식품 김치라든지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농업 또는 수산업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측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런 문제가 잘 극복 된다면 한일 FTA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한국측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司會 : 아, 예정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質問者 : 산케이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양국 회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백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라고 하면 몇 점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飯島 英胤 團長 : 평가를 할 때 그 축을 척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분이 숫자가 300명도 되었다. 그것도 그 멤버 여러분들도 아주 수준이 높은 이번 한국 양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주신 멤버 여러분의 수와 질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하나이며,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짧은 시간이였습니다만 상당히 내실 있는 토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일 양측이 모두 균형이 잡힌 토의라고 할까요? 서로가 밸런스 좋게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한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회의 진행에 있어서 아주 시간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상당히 압축된 그러한 좋은 내용의 얘기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앞으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기술 개발력의 강화라든지 FTA체결 지원이라든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80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기자여러분께서 스스로 채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인은 80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趙錫來 團長 : 지금 내용 설명을 하신 것에 있어서는 이이지마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 아주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여태까지 어느 회의보다도 훨씬 발전된, 솔직한 그런 회의였기 때문에 이이지마 회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많은 일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이지마 회장님께서 상당히 엄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좀 점수를 낮춰줬는데 저는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일한간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같은 점수로서 저는 조금 더 올리고 싶지만 같은 점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飯島 英胤 團長 : 이 80점이라는 점수는 일본의 대학에서 성적을 매길 때 생각을 하면은 우, 양, 가, 라고 성적을 매기는데요, 제일 높은 '우'에 속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A, B, C라고하면 A에 속하는 상당히 좋은 점수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리

를 빌어서 조회장의 협조 덕분에 상당히 유익한 회의를 우리가 개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조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司會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자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려면 악수를 하는 장면을 찍어주십시오. 표정을 보시면 이 회의의 평가를 대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료》